第2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8.4.14.~4.1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개회식 ····· 3

Ⅱ.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Ⅲ.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5

Ⅳ. 부 록

1. 의사일정안 ····· 25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7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3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9
5.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9
6.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5
7. 조례심사보고서 ····· 87
8. 심사보고서 ····· 9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무 위원 외 5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7.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권오삼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 운영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상황입니다.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무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21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 15일부

터 4월 17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4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여섯 명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실시하던 것에서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 회기를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정무 교육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신설하여 그 위치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두고,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장은 학생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 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위기관별 부서의 설치 및 부서장의 직급, 분장 사무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매입 및 교환은 13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4,190㎡, 청주시와의 공유재산 교환 취득 3만 50㎡와 가칭 솔밭초등학교의 신축부지 1만 2,98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19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영재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과학고등학교에 1,704㎡의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를 신축하고 학생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자 봉명동 1142번지의 교육감 관사를 철거하여 1,400㎡의 원어민교사 숙소를 신축하고 충주 학생회관 설립부지에 2,100㎡, 옥천

중학교 과학관 증개축에 1,170㎡의 영어체험센터 2개소를 신축하며, 원거리 배치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주시 안림동 1083-51번지에 760㎡, 제천 남천초등학교 사택부지에 660㎡의 교직원공동사택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성고등학교에 1,420㎡의 기숙사, 산남고등학교에 1,196㎡의 기숙사와 화장실, 중앙여자고등학교에 1,600㎡의 기숙사와 생활관, 중평공업고등학교에 960㎡의 실습실과 화장실, 각리중학교에 1,050㎡의 교실을 증축하며, 영동군청의 지원금 9억 7,800만원과 22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양강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에 각각 846㎡, 영동초등학교에 958㎡의 다목적교실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와 건물 취득 총 330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4만 7,224㎡, 건물 1만 6,67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주 운동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오동 산 39번지의 임야 2만 1,421㎡와 폐교인 보은 삼승초등학교의 토지 1만 7,275㎡, 건물 1,620㎡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월오동 산 39번지의 임야는 청주시에서 월오동 청주 목련원 사업추진에 따른 장례식장을 건립하고자 청주시 소유 휴암동 산 65-1번지에 토지 3만 50㎡와 교환에 따른 처분이며, 보은 삼승초등학교 폐교는 보은군청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어 주민 및 동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와 건물의 처분대금은 10억 5,100만원으로 토지 3만 8,696㎡, 건물 1,620㎡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별첨 5)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국고지원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계상, 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

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00억 2,000만원에서 1,18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 2,000만원, 자체수입 47억원, 차입금 감액 16억 6,000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560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175억 2,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8억 3,000만원, 교육격차해소 2억 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8억 7,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억 2,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500억 3,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 5,000만원, 직업교육 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56억 3,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5억 7,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감액 17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참 조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2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3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서수웅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별첨 2)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5)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별 책 부 록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무 위원 외 5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효겸 부교육감께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정진구 교육정보화 과장께서는 시·도교육감 정보화 담당과장 회의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는 바,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절에서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63회 임시회에서 설립 승인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된 바, 학생회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교통안전체험관과 교육문화회관의 공연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사기능으로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 체험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유사기능의 기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원 및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기관의 통합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에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 또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 배정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 중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상급학교 진학 시 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2월 29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 배정수수료에 대하여 면제한 바, 중학교 배정수수료 면제와의 형평성 및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의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재학생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건당 300원씩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 수입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하여 학교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무상의무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제증명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2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정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정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000원 대비 8.7%인 1,186억 1,367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38억 1,871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 2,502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325만 7,000원, 자산수입 40억 5,506만 4,000원, 잡수입 6억 4,317만 9,000원, 지방교육채 감액 16억 5,812만 4,000원, 전년도이월금 560억 2,6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13억 8,437만 5,000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000원, 교육일반 263억 8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의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교육채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지원계획에 의하여 2008년 2월 말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실적에 따른 발행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액 91억원에서 2008년 2월 말 명예퇴직수당 집행액 74억 4,187만 6,000원을 제외한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의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없고 사업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방과후 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교원단체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평가 학교평가미흡교 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 영화상영 참여 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1쪽 본청시설 1급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감,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비 190만원 삭감,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 개선비 2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예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추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 18억 5,180만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재정여건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7.4%를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당초 예산 대비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86.7% 증가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삭감내역과 같으므로 보고서 14쪽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정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외 11개의 사업에서 18억 5,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 세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하며, 아울러 지방교육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한 74억 4,187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 ▸ 심사보고서(별첨 8)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5.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부 웅

위 원 서 수 웅

의사국장 김 장 한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4. 14. ~ 4. 18.(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월 14일(월)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4. 14. ~ 4. 18. (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16:00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4월 15일(화)	□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휴회
4월 16일(수)	□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휴회
4월 17일(목)	□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휴회
4월 18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산 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15-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정무 교육위원 외 5인
발의연월일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15-1

발의연월일 : 2008. 4. 4.
발 의 자 : 정 무,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제안이유

○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회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 회기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조제3항)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정기회의 회기는 20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를 "정기회의 회기는 20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②(생략)	제2조(감사) ①~②(현행과 같음)
③정기회의 회기는 20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③…… ……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임시회는 그 회기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④~⑥(생략)	④~⑥(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10조 (회의)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15-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5-2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절 제명을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4절)

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설치함(안 제17조제1항)

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

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 제28조)

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협의 완료

다. 입법 예고 : 2008. 2. 22 ~ 3. 12(20일간)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

⇒ 의견 제출자 : 평생교육체육과장

라. 부패영향자체평가 :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 중 "법 제34조"를 각각 "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4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절의 제목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

학교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을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별표 1중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를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제8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법 제32조의 ....
제1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	제1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

현 행	개 정 안
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4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설치) ①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
제16조(업무) (생략)	제16조(업무) (현행과 같음)
1.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4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제17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②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둔다.
제18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 2. 도서실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4.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현 행	개 정 안
5.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설치) ①법 제32조 .....
제23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설치) ①법 제32조 .....
제7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7절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26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의 ....전문계고등학교 ....충청북도전문

현 행	개 정 안
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업무) ....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1. 전문계고등학교 ....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2. 전문계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9조(설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제29조(설치) 법 제32조의 ....
제30조(도서관) ①도서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제30조(도서관) ①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생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4.12 대통령령 제20003호]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부칙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도서관법」 [전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9호]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 4)

의안번호	제215-3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3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나.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안 별표 1)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입법예고(2008. 2. 29. ~ 3. 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를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중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증명수수료란중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을 "재적에 관한 증명"으로, "수료(예정)에 관한 증명"을 "수료에 관한 증명"으로,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을 "졸업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란의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 ---------- ---------- ---------- -------.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 ---------- ----------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생략)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현행과 같음)
,,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 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1. ---------- ---------- ---------- ----------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단위: 원)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1.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89조
4. 제증명 수수료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지방자치법 제128조
	마. 수료(예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별표 1】 (단위: 원)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1.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4. 제증명 수수료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지방자치법 제137조
	마. 수료에 관한 증명	1건	300	
	바. 졸업에 관한 증명	1건	30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

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215-4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일 (제 회)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8년 4월 4일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15-4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본 청	청사 증축 부지 매입	4,190	1,885,500
	청주교육청	청주시 공유재산 교환	30,050	991,650
	(가칭) 솔 밭 초	학교신설 (추정금액변경)	12,984	10,387,200
	소 계	**3건**	**47,224**	**13,264,350**
건 물	본 청	기숙형영재교육센터 신축	1,704	1,997,750
	본 청	원어민교사숙소 신축	1,400	1,960,600
	충주교육청	북부영어체험센터 설치	2,100	2,827,000
	옥천교육청	남부영어체험센터 설치	1,170	1,484,346
	충주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760	1,112,894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건 물	제천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660	1,058,478
	주 성 고	기숙사 신축	1,420	1,624,280
	산 남 고	기숙사 신축, 화장실 확충	1,196	1,266,650
	중앙여자고	기숙사 신축, 생활관 개축	1,600	1,840,970
	증평공업고	실습실, 화장실 증축	960	1,000,120
	각 리 중	학생수용시설 확충	1,050	1,350,140
	양 강 초	다목적교실 신축	846	721,000
	양 산 초	다목적교실 신축	846	721,000
	영 동 초	다목적교실 신축	958	840,000
	소 계	**14건**	**16,670**	**19,805,228**
합 계		**17건**	**63,894**	**33,069,578**

□ 처 분

(단위 : ㎡, 천원)

기관명	처분재산명	구 분	소 재 지 번	수 량	대장금액
청 주 교육청	운동초 (임야)	임 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39	21,421	535,525
보 은 교육청	삼승초 (폐교)	토 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17,275	154,784
		건 물		1,620.8	361,316
합 계		토 지		38,696	690,309
		건 물		1,620.8	361,316
		3건		**40,316.8**	**1,051,625**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 임 : 배치도면 20부.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2008년상반기			2008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취득합계		1	30,050	991,650	16	33,844	32,077,928	17	63,894	33,069,578
	계	토지	1	30,050	991,650	2	17,174	12,272,700	3	47,224	13,264,350
		건물				14	16,670	19,805,228	14	16,670	19,805,228
		기타									
	1. 매입	토지				2	17,174	12,272,700	2	17,174	12,272,700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1	30,050	991,650				1	30,050	991,650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4	16,670	19,805,228	14	16,670	19,805,228
		기타									
처분	처분합계		3	40,316.8	1,051,625				3	40,316.8	1,051,625
	계	토지	2	38,696	690,309				2	38,696	690,309
		건물	1	1,620.8	361,316				1	1,620.8	361,316
		기타									
	4. 매각	토지	1	17,275	154,784				1	17,275	154,784
		건물	1	1,620.8	361,316				1	1,620.8	361,316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1	21,421	535,525				1	21,421	535,525
		건물									
		기타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재산의 표시				추정금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본 청	토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3외4	4,190	1,885,500	하반기	- 청사 증축 부지 매입	교육감	(도면1)
청주 교육청	토지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65-1	30,050	991,650	상반기	- 청주시 공유재산 교환 - 향후 학교설립 활용	교육감	교 환 (도면2)
가칭) 솔밭초	토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9	12,984	10,387,200	하반기	- 학교신설에 따른 추정금액 변경	교육감	(도면3)
본 청	건물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	1,704	1,997,750	하반기	- 기숙형영재교육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4)
본 청	건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142	1,400	1,960,600	하반기	- 원어민교사숙소 신축	교육감	(도면5)
충주 교육청	건물	충주시 호암동 526-1	2,100	2,827,000	하반기	- 북부영어체험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6)
옥천 교육청	건물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1,170	1,484,346	하반기	- 남부영어체험센터 신축	교육감	(도면7)
충주 교육청	건물	충주시 안림동 1083-51	760	1,112,894	하반기	- 충주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육감	(도면8)
제천 교육청	건물	제천시 동현동 36-52	660	1,058,478	하반기	- 제천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육감	(도면9)
주성고	건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1,420	1,624,280	하반기	- 기숙사 신축 (100명)	교육감	(도면10)
산남고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2	1,196	1,266,650	하반기	- 기숙사 신축 (80명) - 화장실 증축	교육감	(도면11)

재산의 표시				추정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청주중앙여자고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	1,600	1,840,970	하반기	- 기숙사 증축 (100명) - 생활관 개축	교육감	(도면12)
증평공고	건물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	960	1,000,120	하반기	- 실습실 증축 - 화장실 증축	교육감	(도면13)
각리중	건물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4	1,050	1,350,140	하반기	-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감	(도면14)
양강초	건물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	846	721,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원)	교육감	(도면15)
양산초	건물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1	846	721,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원)	교육감	(도면16)
영동초	건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	958	840,000	하반기	- 다목적교실 신축 - 영동군청지원금 (360,000,000원)	교육감	(도면17)
합 계			**63,894**	**33,069,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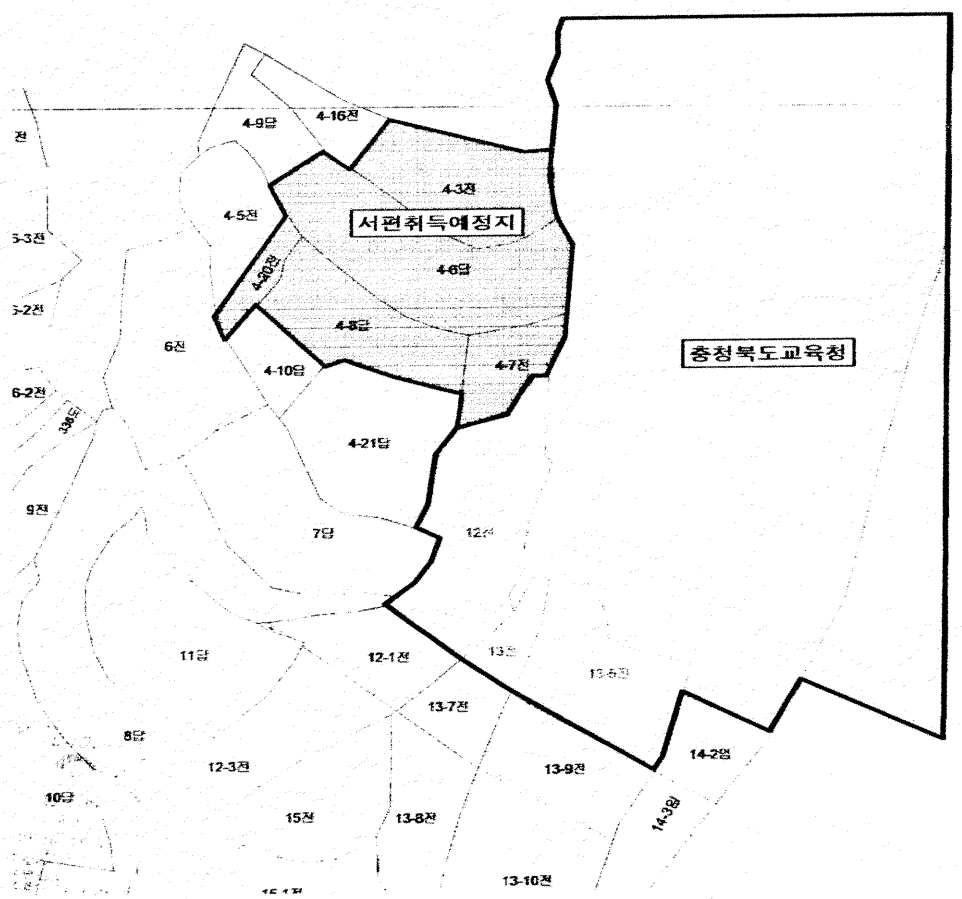
3.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재산의 표시				대장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매입요청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청주교육청 (운동초)	임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39	21,421	535,525	상반기	- 청주시청의 교환요구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청주시장	교환 (도면18)
보은교육청 (삼승폐교)	토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17,275	154,784	상반기	- 보은군청의 매입요구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보은군수	매각 (도면19)
	건물		1,620.8	361,316	상반기			매각 (도면20)
합 계			**40,316.8**	**1,05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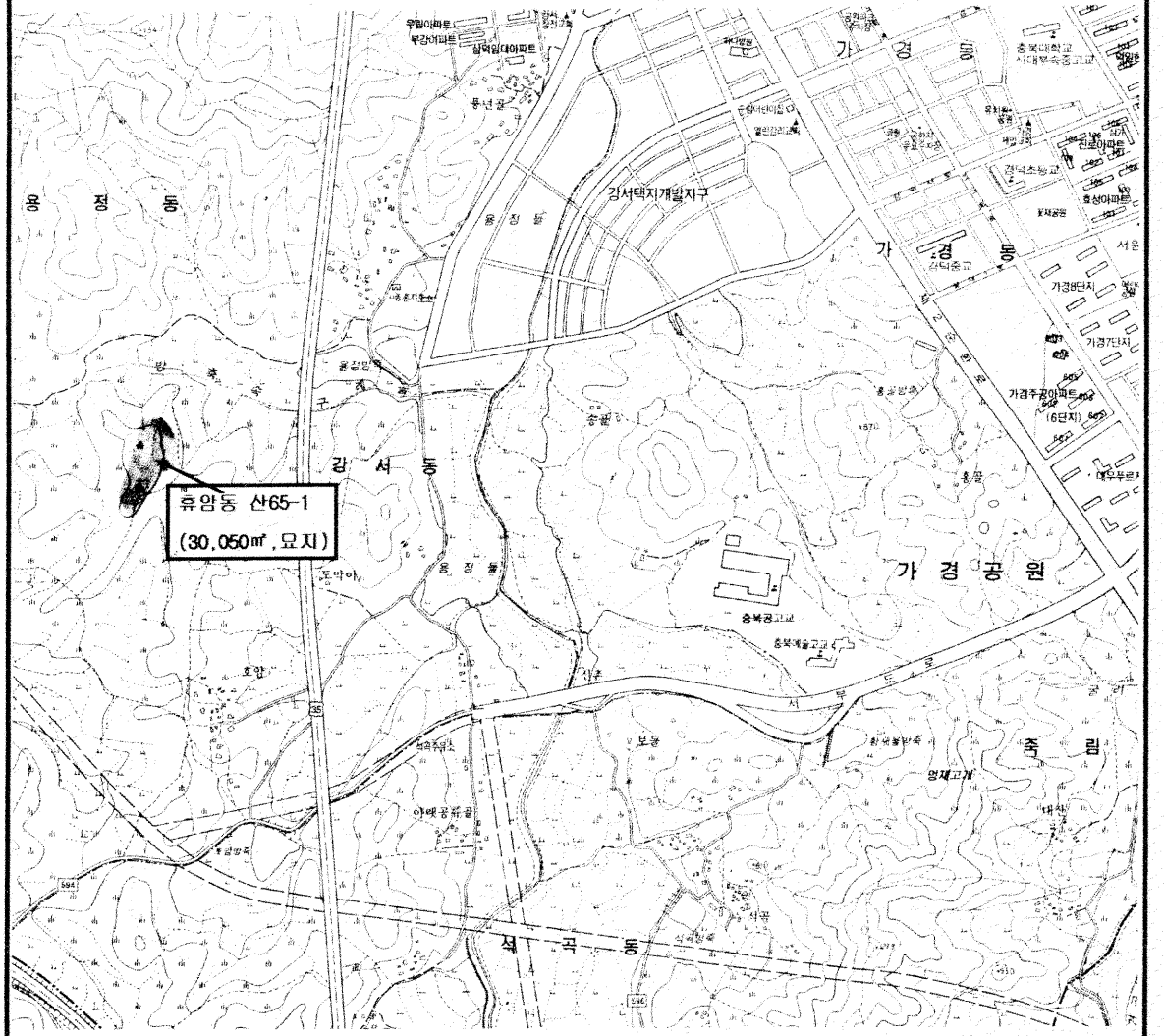
(도면1) 본청 청사 증축 부지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청사부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3	전	992	446,400	향후 본청청사 증축 부지 확보
		4-6	답	1,646	740,700	
		4-7	전	446	200,700	
		4-8	답	904	406,800	
		4-20	전	202	90,900	
		계		4,190	1,88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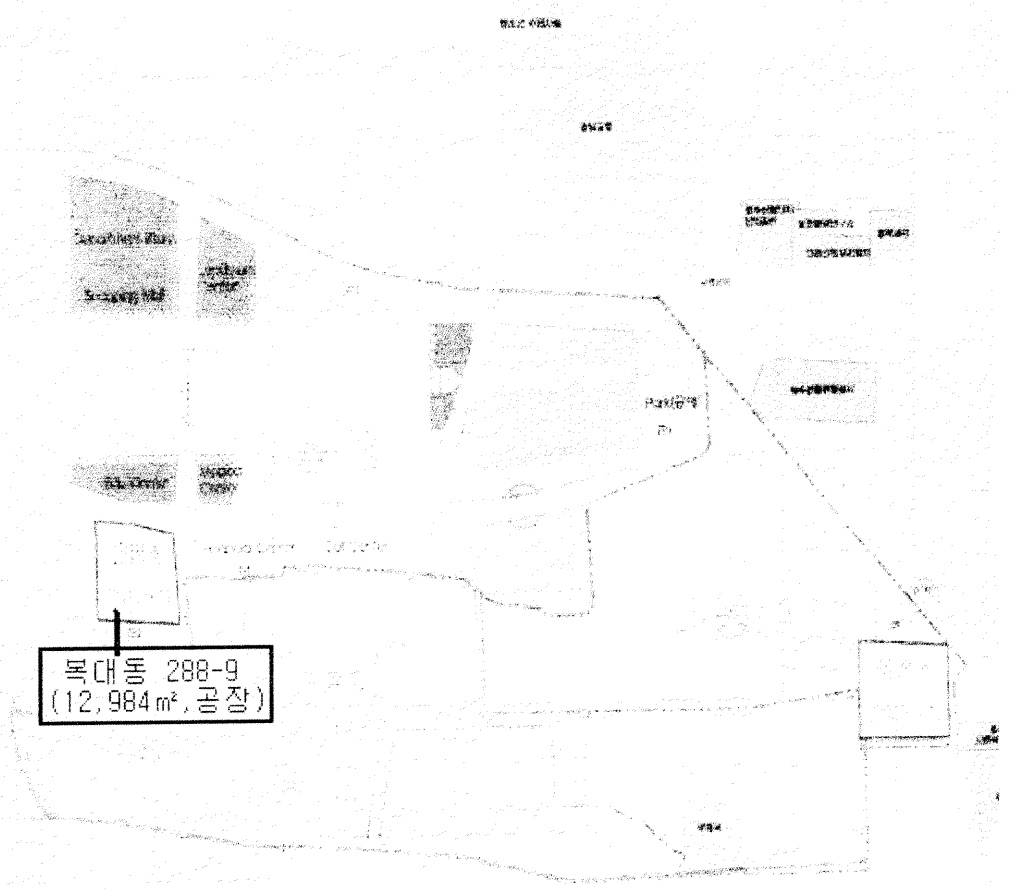
(도면2) 청주교육청 토지 취득(교환)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임 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산 65-1	묘지	30,050	991,650	청주시청 교환요구 향후 학교설립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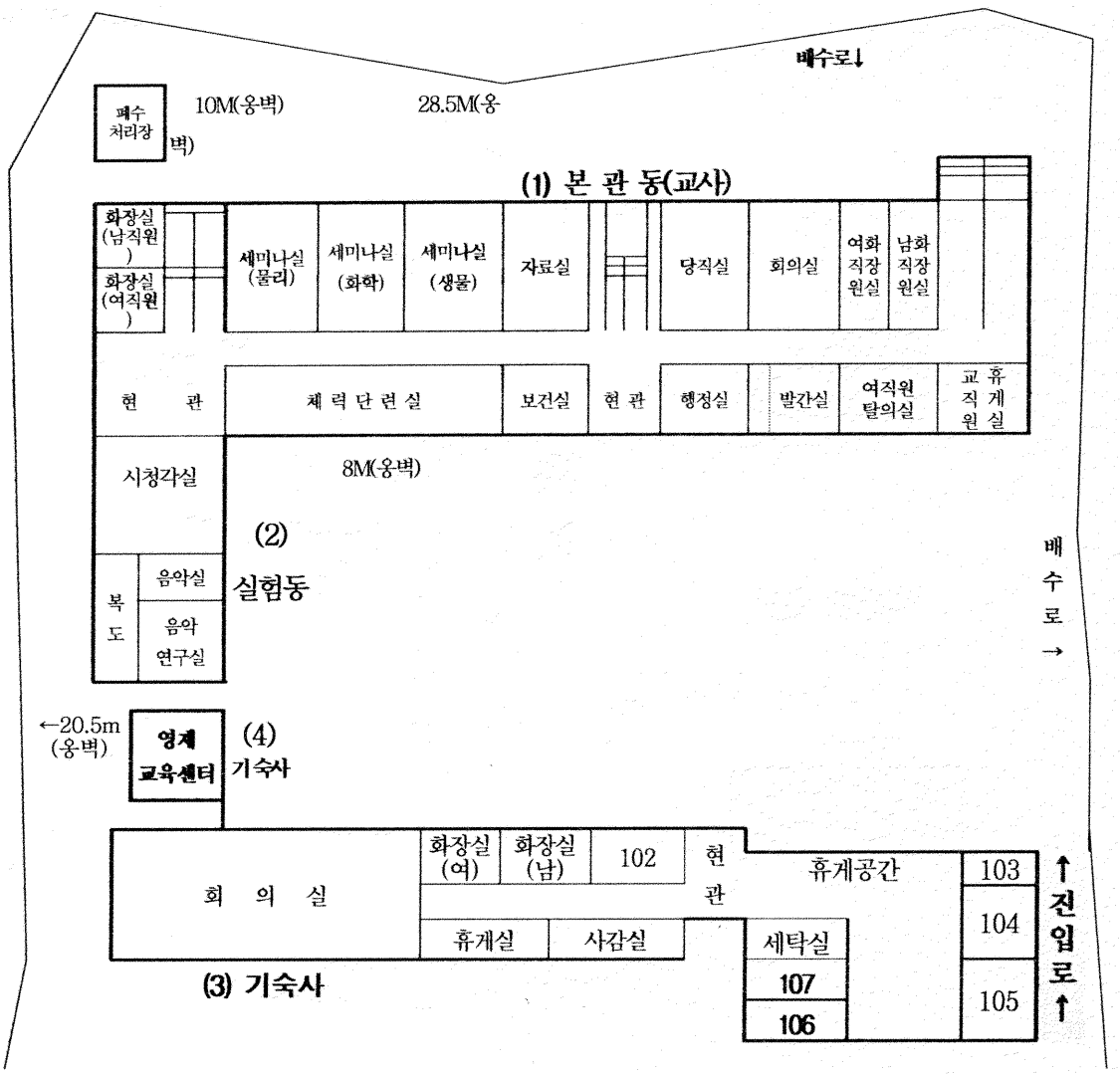
(도면3) 가칭)솔밭초등학교 토지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초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9	공장용지	12,984	10,387,200	당초관리계획) 11,685,600천원 금회관리계획) 10,387,200천원 소계) 22,072,800천원 당 초 예 산) 5,842,800천원 금 회 추 경) 16,230,000천원 소계) 22,072,800천원



(도면4) 기숙형영재교육센터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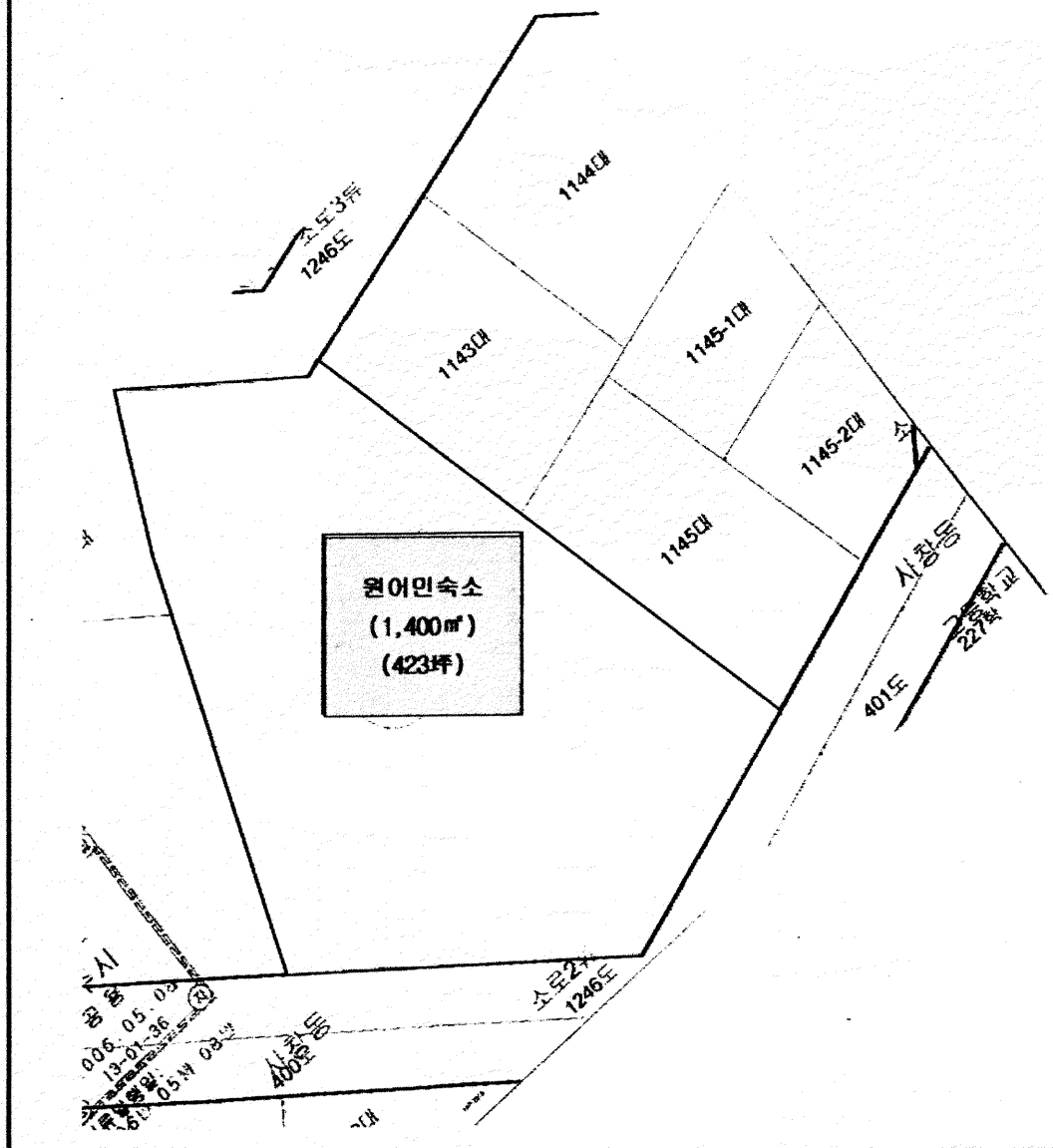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영재 교육센터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	철.콘.슬	1,704	1,997,750	영재교육 운영 지원



<충북과학고등학교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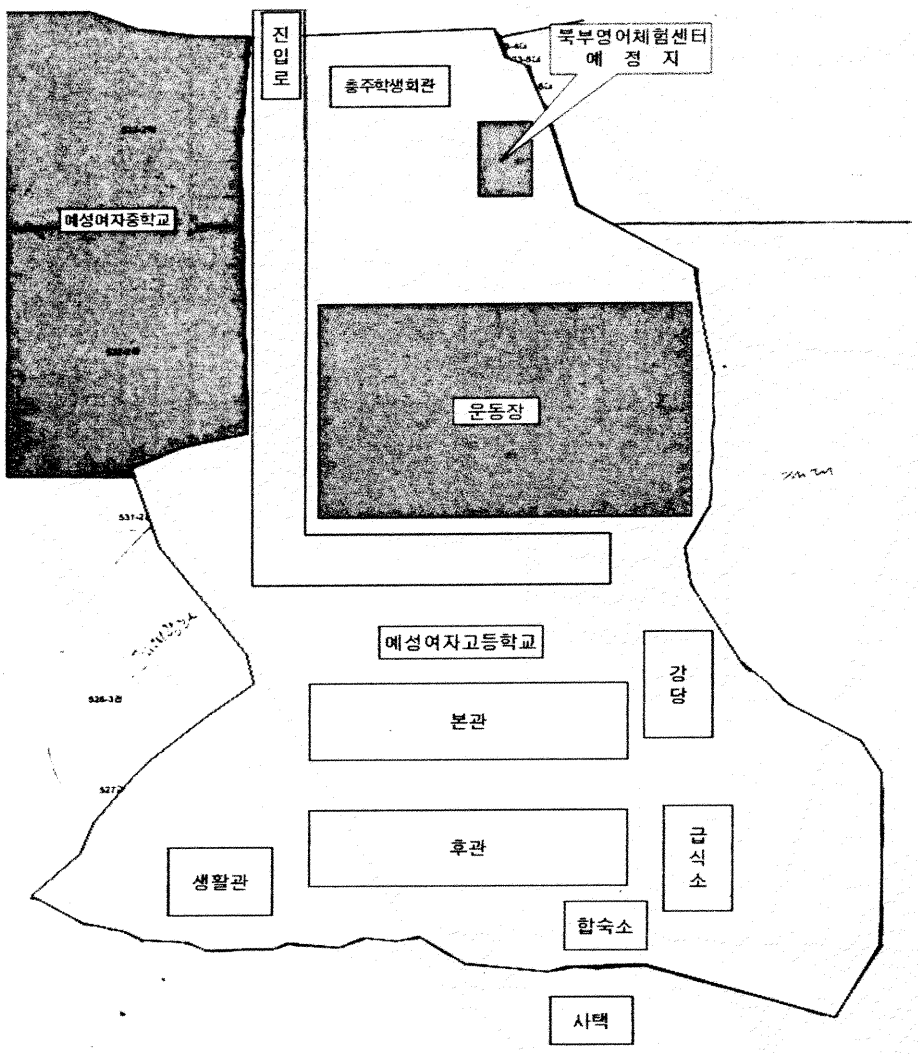
(도면5) 원어민교사 숙소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숙 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142	철.콘.슬	1,400	1,960,600	원어민교사 근무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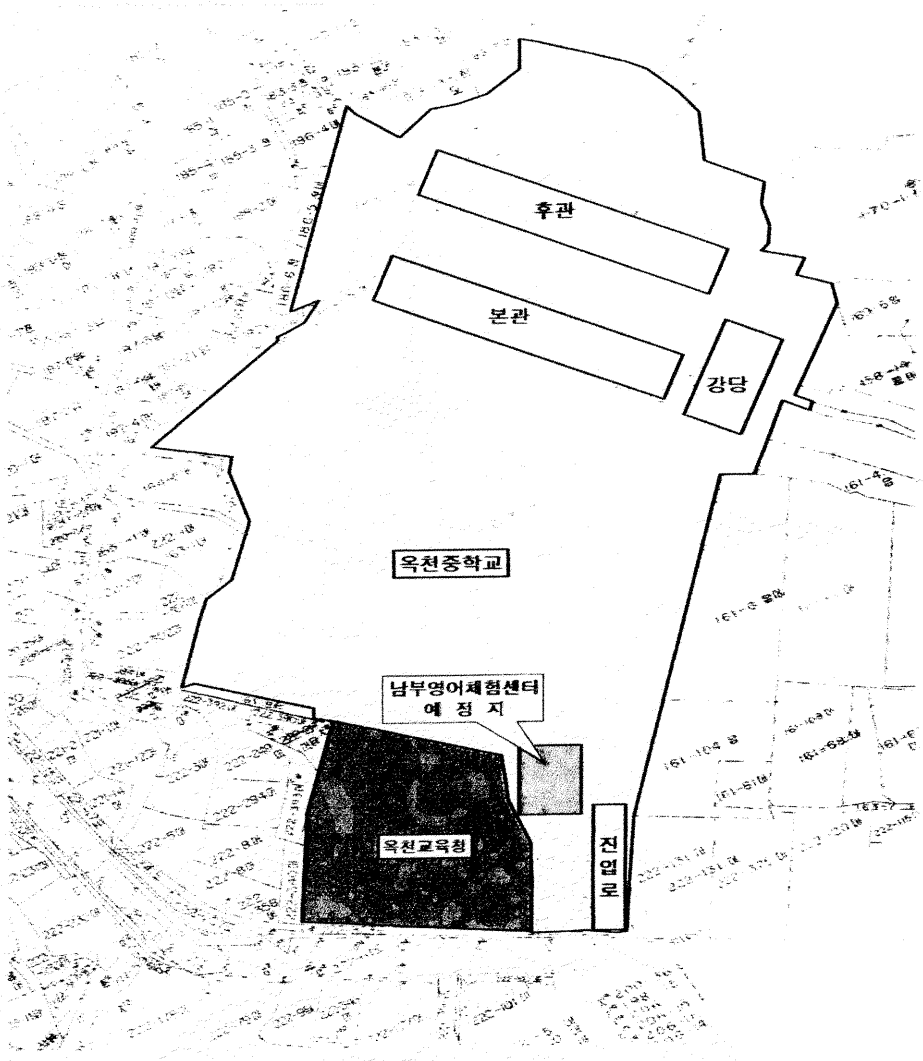
(도면6) 북부 영어체험센터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영어 체험센터	충주시 호암동	526-1	철.콘.슬	2,100	2,827,000	학생영어교육활성화 지원



(도면7) 남부 영어체험센터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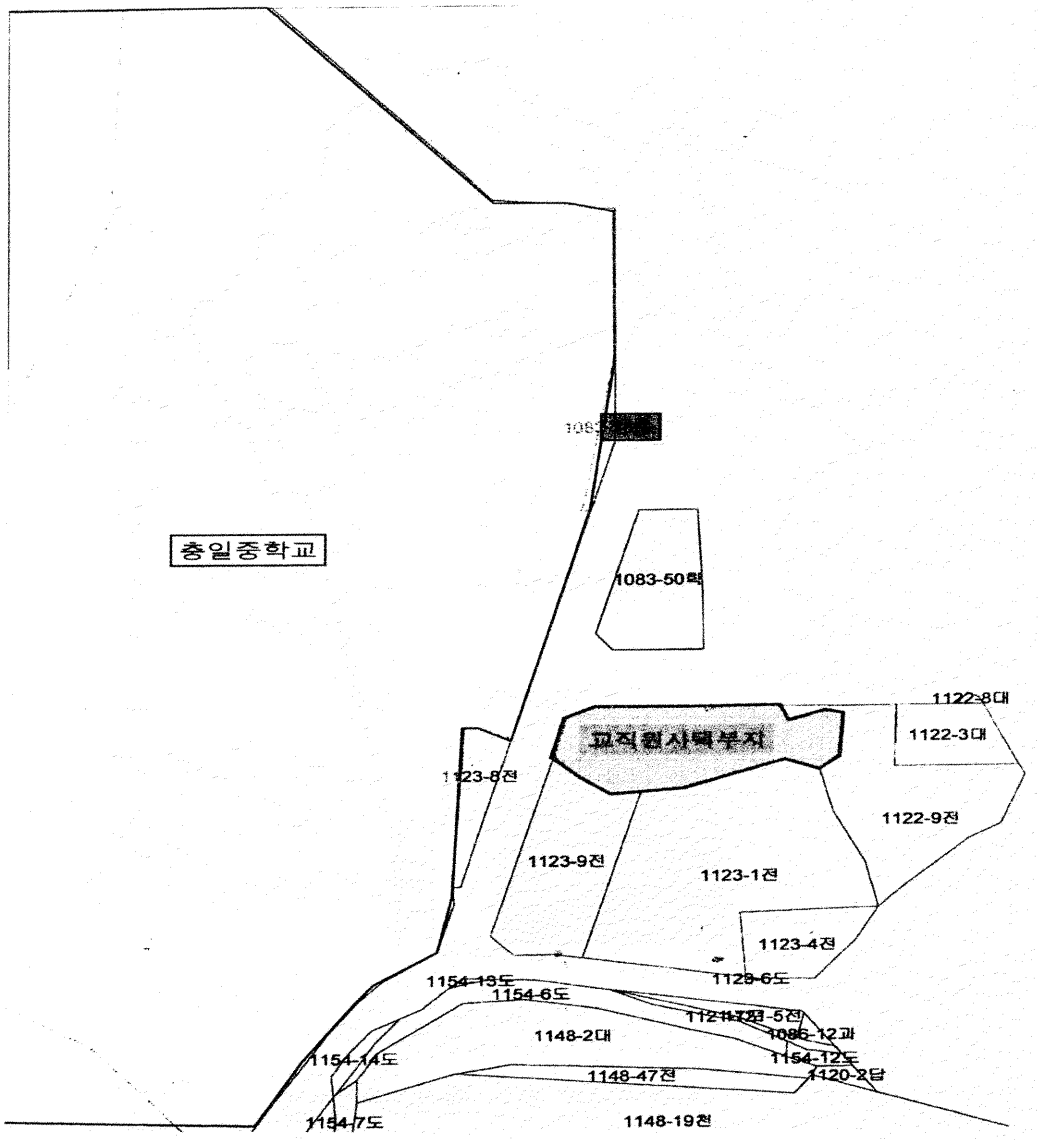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영어 체험센터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철.콘.슬	1,170	1,484,346	학생영어교육활성화 지원



<옥천중학교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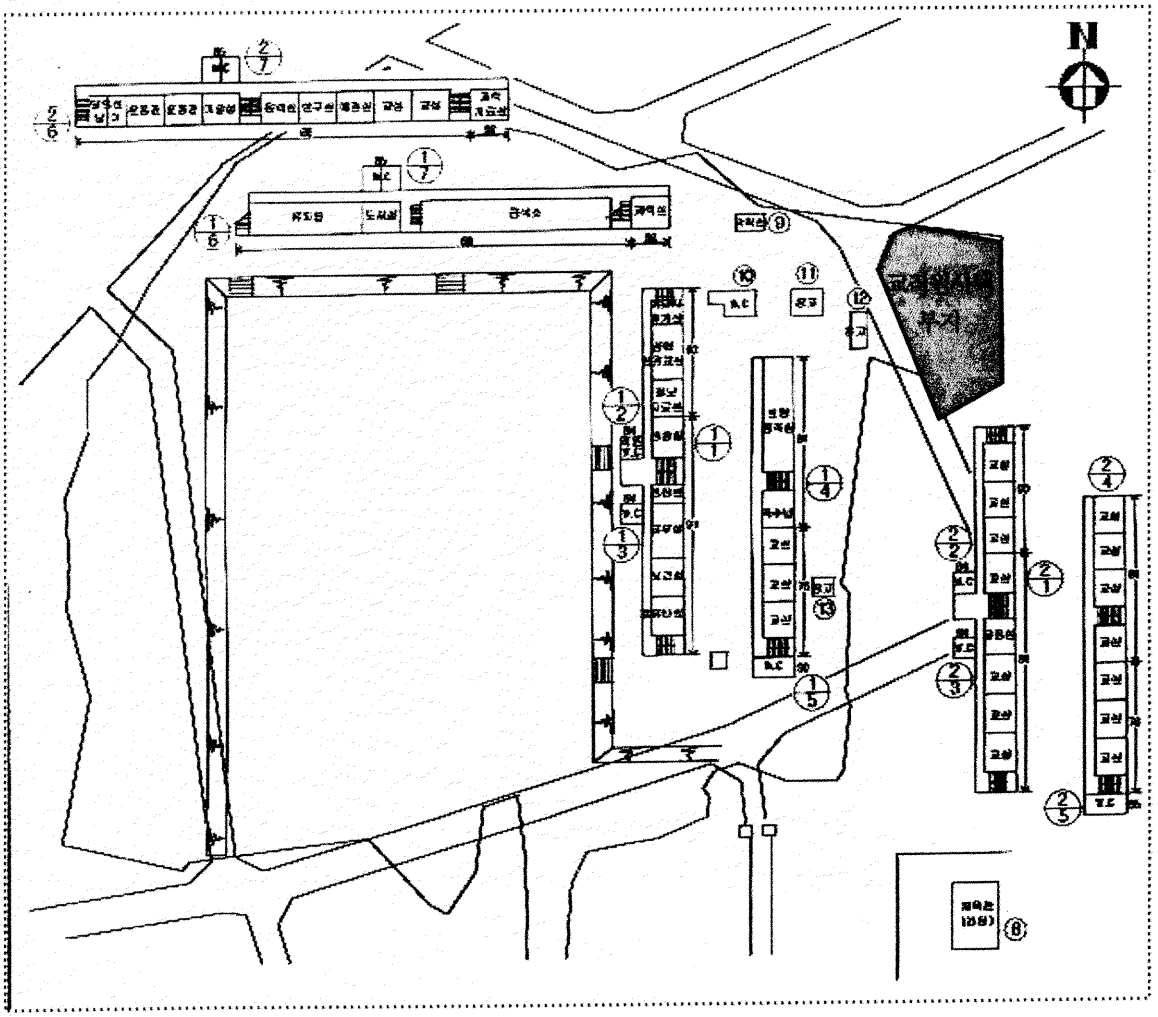
(도면8) 충주 교직원공동사택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교직원 사 택	충주시 안림동	1083-51	철.콘.슬	760	1,112,894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도면9) 제천 교직원공동사택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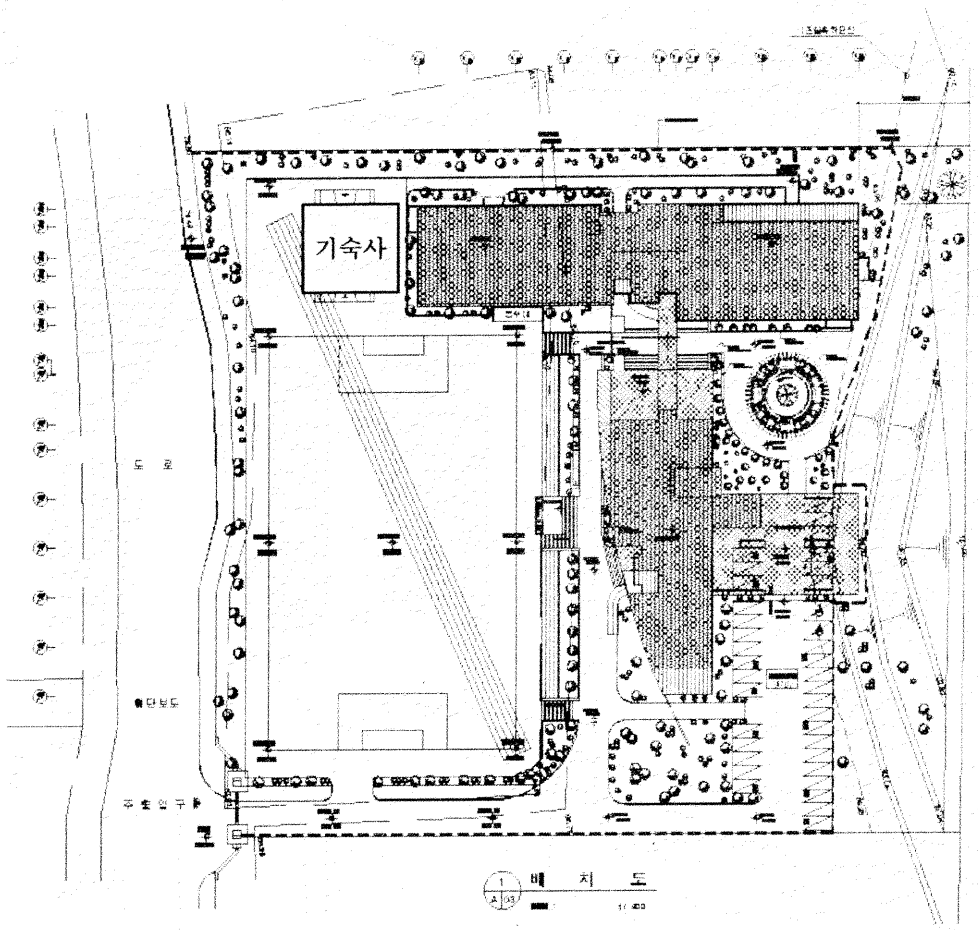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교직원 사 택	제천시 동현동	36-52	철.콘.슬	660	1,058,478	교직원근무여건 개선



<남천초등학교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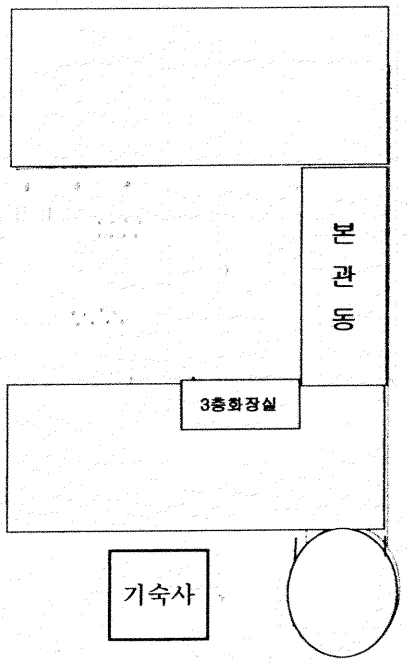
(도면10) 주성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	철.콘.슬	1,420	1,624,280	학교시설 증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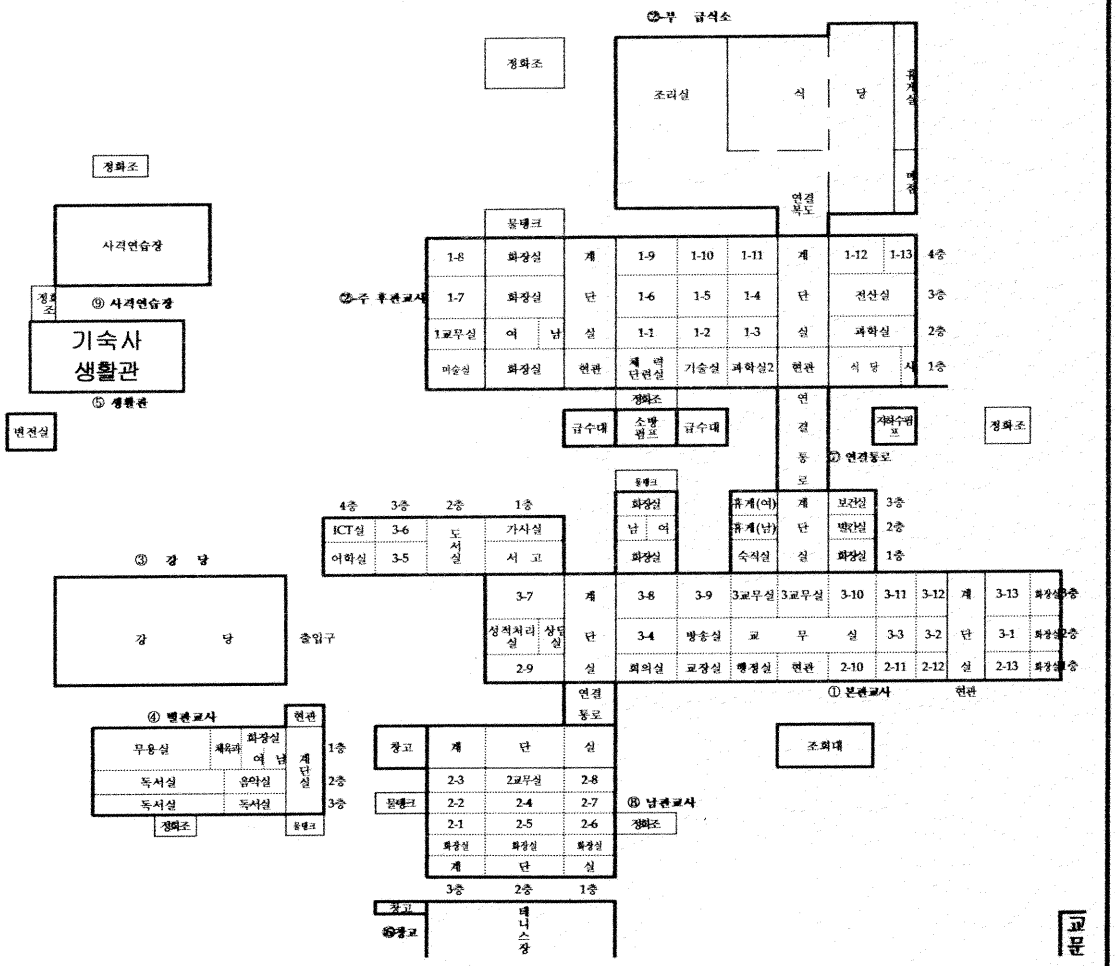
(도면11) 산남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2	철.콘.슬	1,136	1,189,930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			철.콘.슬	60	76,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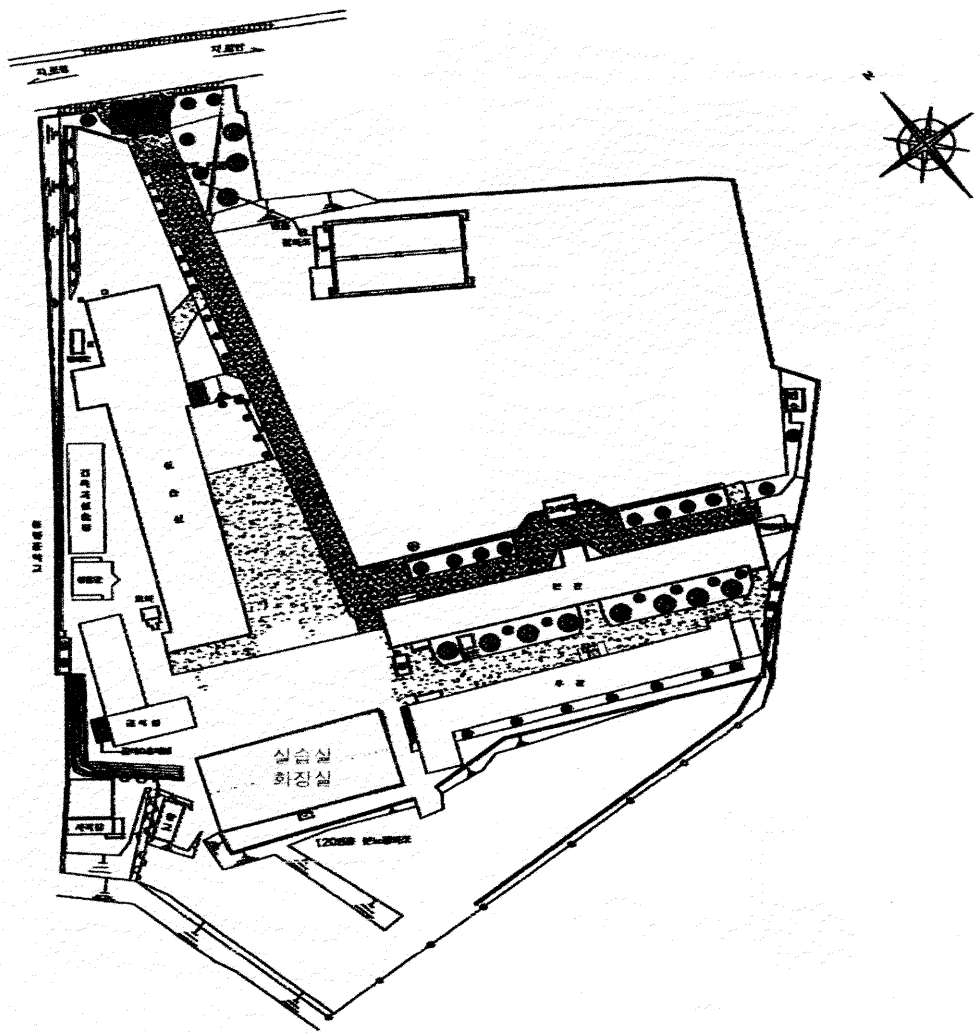
(도면12) 중앙여자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	철.콘.슬	1,420	1,673,970	학교시설 증개축
생활관			철.콘.슬	180	16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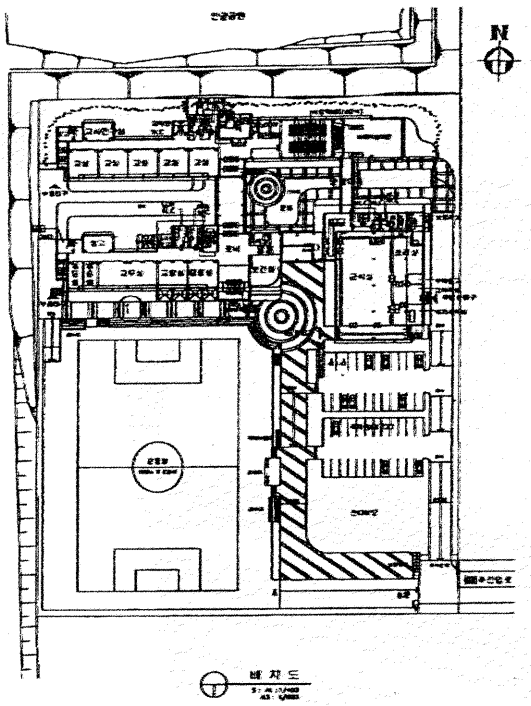
(도면13) 증평공업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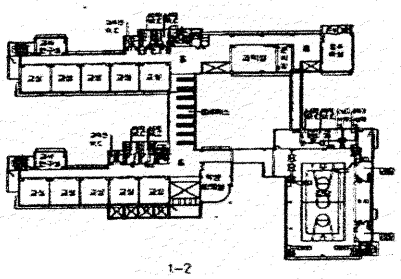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실습실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	철.콘.슬	900	890,120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화장실			철.콘.슬	60	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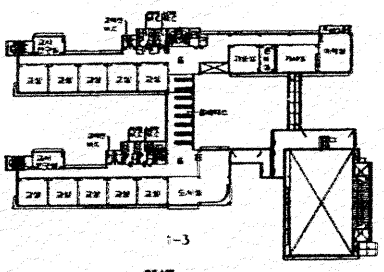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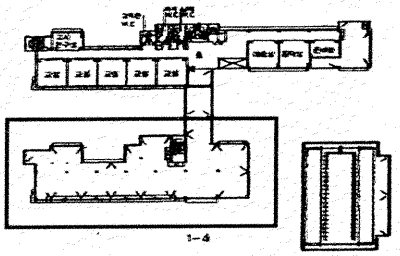
(도면14) 각리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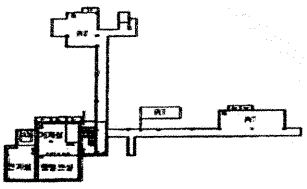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교 실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4	철.콘.슬	1,050	1,350,140	학생수용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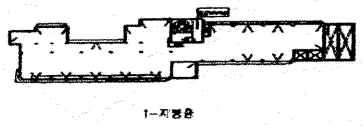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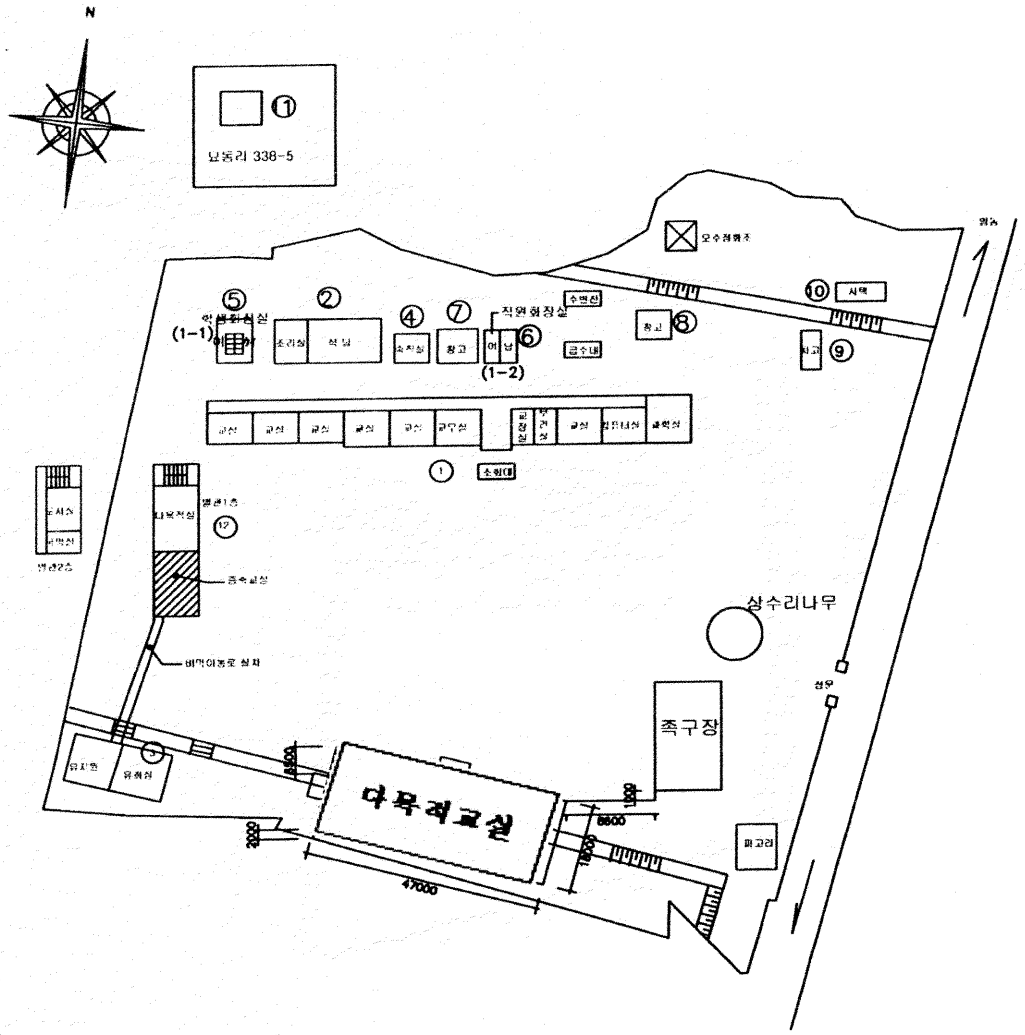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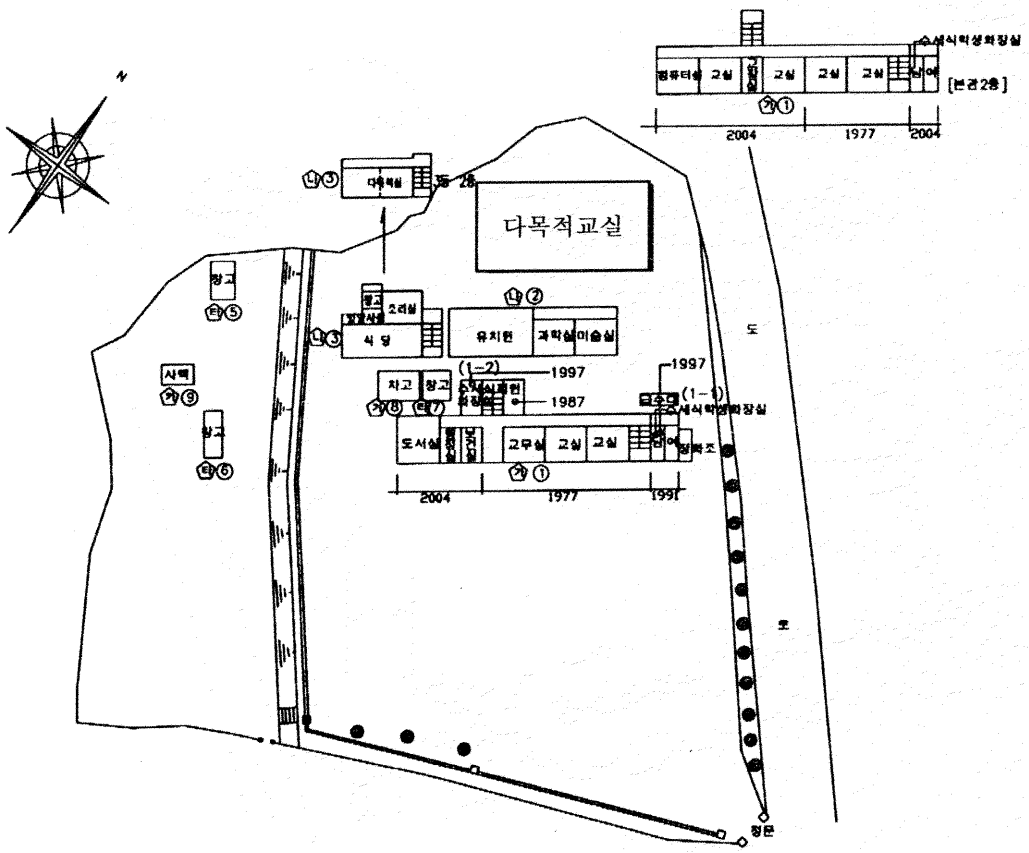
(도면15) 양강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	철.콘.조	846	721,000	다목적교실 신축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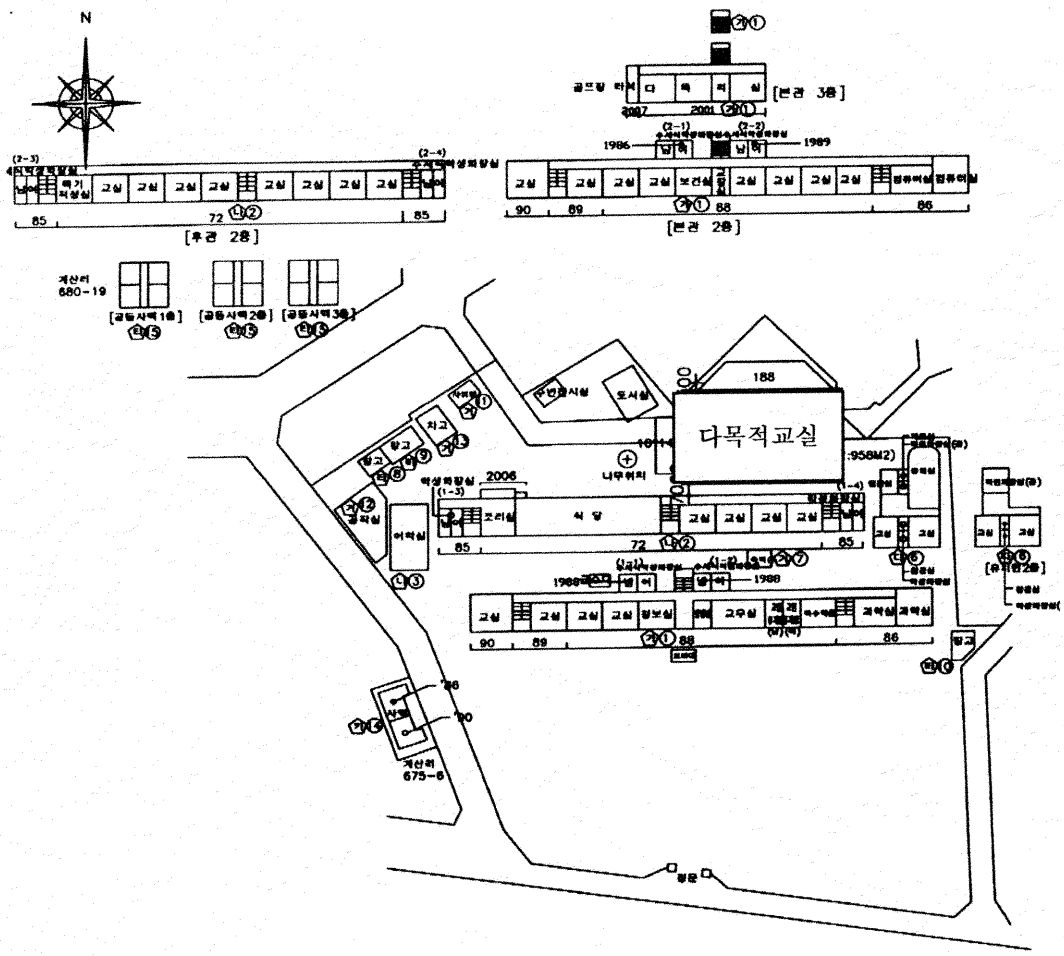
(도면16) 양산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1	철.콘.조	846	721,000	다목적교실 신축 영동군청지원금 (309,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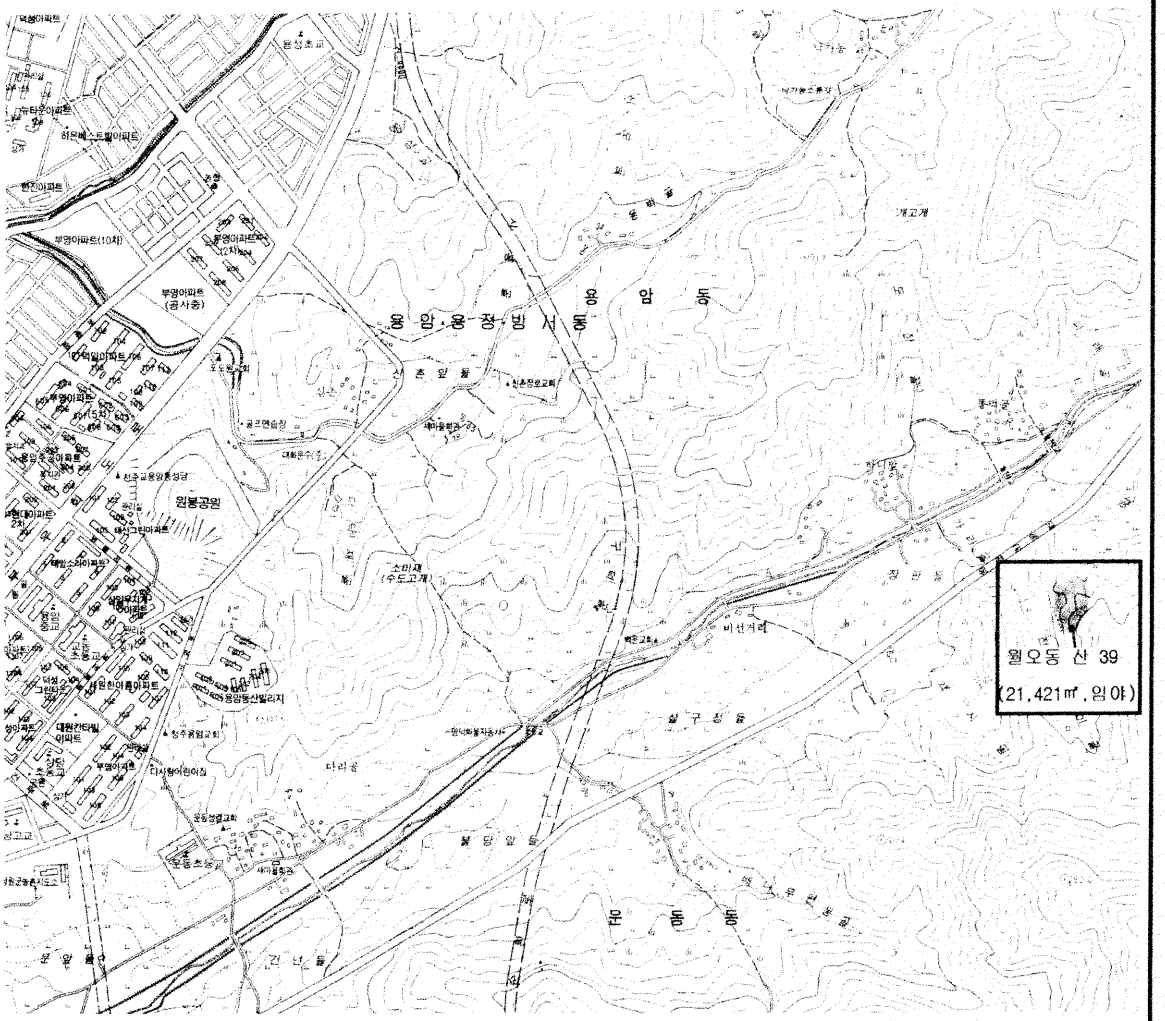
(도면17) 영동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	철.콘.조	958	840,000	다목적교실 신축 영동군청지원금 (36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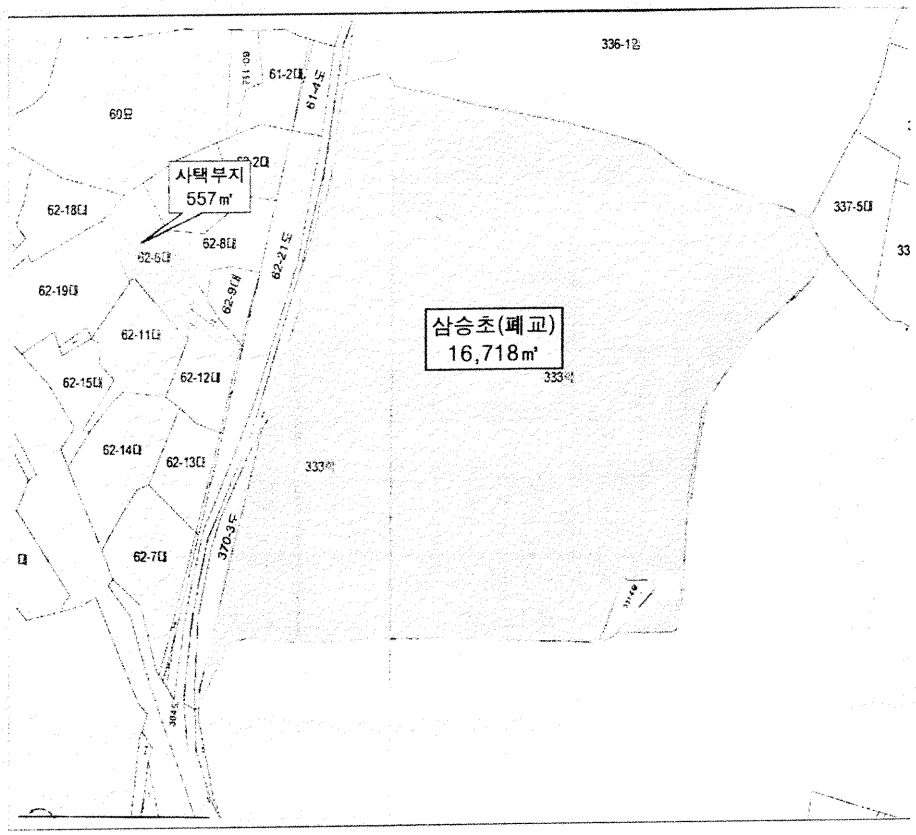
(도면18) 운동초등학교 토지 처분(교환)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추정금액 (천원)	사 유
임 야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 39	임야	21,421	535,525	-청주시청 교환요구 -월오동 화장장 인근으로 교육적 활용가치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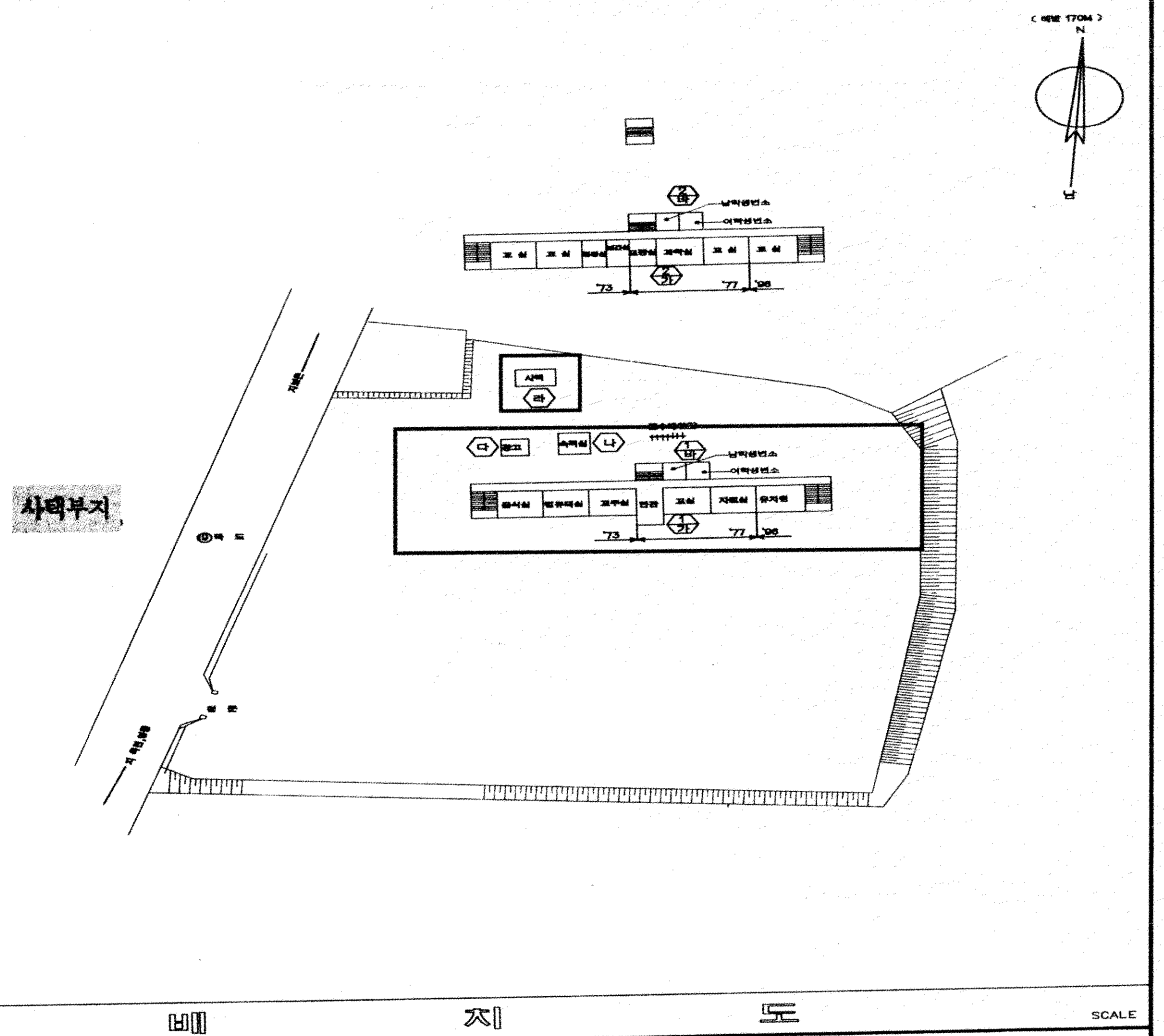
(도면19) 삼승초등학교(폐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대장금액 (천원)	사 유
학교용지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서원리)	333	학교용지	1,6,718	149,793	-보은군청 매수요청 (향토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 -교육목적 활용 가치가 적음
사택부지		(62-6)	대지	557	4,991	
계				17,275	154,784	



(도면20) 삼승초등학교(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식)	대장금액 (천원)	사 유
교 사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	철.콘.슬	1,538.50	357,797	-보은군청 매수요청 (향토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 -교육목적 활용 가치가 적음
숙직실			시.벽.슬	28.80	906	
사 택			시.벽.슬	28.80	1,071	
창 고			시.벽.슬	24.70	1,542	
			계	1,620.8	361,316	



(별첨 6)

의안번호	제215-5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 (제 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4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15-5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16억 5,812만 4천원, 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0억 7,551만 5천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6억 1,712만원 계상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

(별첨 7)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4. 18.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4월 14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자 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4절 제명을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안 제4절)

○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설치함(안 제17조제1항)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둠(안 제17조제2항)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 제28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Bio교육문화회관 설립 현황

가.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밀레니엄타운 내

나. 규모 : 부지 23,141㎡ 건물11,951㎡/도청 사용 3,912㎡ 포함

다. 구조 : 지하 1층 지상 3층(공연장, 체험학습실, Bio교육관, 관리실)

- 체험학습실 7실(실내놀이마당, 인터넷카페, 도예실, 무용실, 보컬실, 국악실, 영화음악감상실)

○ Bio교육문화회관 설립 경과 및 추진 일정

가. 교육위원회 설립 승인 : 2004. 2. 12.(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나. 건축공사 : 2005. 12. 21. - 2007. 11. 28.

다. 토목공사 : 2007. 11. 14. - 2008. 3.

라. 학생회관과의 통합 결정(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2008. 1. 22.

마. 내부시설 및 조례개정 : 2008. 2. - 2008. 5.

바. 시범운영 : 2008. 6.

사. 조직구성 및 개관 : 2008. 7. 1. 조직 구성 후 개관

○ 충청북도학생회관과의 통합 타당성 검토

가. 통합배경

- 학생회관과의 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결 필요
- 교육문화회관 설립에 따른 인원 및 예산의 중복투자 요소 제거

나. 외부 조직진단 결과

- 조직진단 용역계약 : 2007. 08. 24. 퍼스트 경영기술 연구원

· 교육문화회관 신설에 따른 직속기관 간 조직 재설계

- 조직진단 결과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이 적절함

다. 학생회관과의 기능비교

- 기능비교

구분	학 생 회 관		교육문화회관
	조례(제19조)	현재업무	
유사기능	○ 도서실 운영	○ 아동 도서실 운영 - 독서교실, 논술교실	
	○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 학생문화 축제 행사	○ 체험실, 공연장 운영 - (보컬실, 무용실, 실내놀이마당, 도예실, 인터넷카페, 국악실, 영화음악감상실) ※ 방과 후 프로그램은 체험실 여유시간 활용
	○청소년 문예·체육 공간	○ 수영장 관리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 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 방과후 학교(서예, 가야금, 북아트, 종이접기, 힙합댄스, 바둑, 외국어, 기타) ○ 디지털자료실 운영	
개별기능	○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운영	○ 좌동 ○ 평생학습 강좌 운영 - 비즈공예, 수지침, 서예, 동영상 제작, 북아트, 종이접기, 오카리나, 기타 등	○ 각종 문예 공연

※ 학생회관에서 별도 운영 중인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교통안전체험관과 교육문화회관의 공연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사기능으로 판단됨

라.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통합운영		교육문화회관 단독 운영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인력 측면	○ 효율적 인력관리 ○ 정원감축 ○ 관리인력 최소화	○교육문화 기획 전문 인력 감소	○교육문화 기획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비효율적 관리 ○간접지원 인력 (관리직)낭비
재정 측면	○ 재정 효율화 ○ 인건비 절약 ○ 최소비용, 최대 효과	○1분임경리관 3분임출납원 체제로 회계처리 지연	○ 1분임경리관 1출납원 체제로 안정적 회계가능	○중복투자, 인건비 추가소요
운영 측면	○ 역할 분담에 따른 효율적 교육사업 ○ 체험실 다양화로 고객 만족도 제고 ○ 관리실 축소	○관리불편 ○시설별 연계 체험학습 이동 대책 필요	○ 평생교육 및 다양한 문화체험 중심기관 운영 가능 ○ 관리용이 ○ 이용목적별 기관 접근성 용이	○학생회관 기능저하 ○체험실 부족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제한

○ 효율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 체험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며 유사기능의 기관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기관의 통합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생회관은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 학생수영장, 안전체험관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문화회관은 공연, 체험학습, 방과후교실, Bio체험 등 운영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개정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3호)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전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시행 2007. 4. 4.)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4월 14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 중 질병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급학교 진학 시 이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및 「충청북도소재고등학교입학전형전형료징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일정 금액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 2006. 12. 29.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 배정수수료에 대하여 면제한 바, 중학교 배정수수료 면제와의 형평성 및 이중납부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입학 배정수수료의 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현재 재학생 및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건당 300원씩 부담하고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비하여 학교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생들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무상의무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뿐 만 아니라 교육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 또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3호), 「특수임의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27. 법률 제8566호-법명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개정 2007. 10. 17. 법률

제8655호-법명변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2007. 5. 25. 법률 제8483호)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4. 18.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김 부 웅

간 사 서 수 웅

위 원 곽 정 수

이 상 일

정 무

(별첨 8)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4.18. 11:00)

심 사 보 고 서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 수정예산안 : 2008년 4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 4월 14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수정예산안 : 2008년 4월 15일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8년 4월 1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

○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16억 5,812만 4천원, 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0억 7,551만 5천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6억 1,712만원 계상

3.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제출사유

○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가 지원 사유 발생

나. 변동내역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변동없음)

○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16억 5,812만 4천원, 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변동없음)

○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3억 8,437만 5천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3억 826만원** 계상

- 유아및초중등교육 : 3억 886만원 증액
- 교육일반 : 3억 886만원 감액

다. 변동 세부내역

○ 학교일반시설 : 1억 7,580만원

- 문광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2실)

○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9,056만원

- 충주중학교 화장실 증축(1동)

○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 4,250만원

- 청석고등학교 지붕방수(5실)

○ 본청직속기관시설 : 5억 3,108만원

-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증축공사(증축 및 비품구입)

○ 예비비및기타 : 8억 3,994만원 감액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안) 총괄규모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 대비 **8.7%**인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1,488,638,461	1,370,024,788	118,613,673	기정예산 대비 8.7% 증

나. 세입예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세입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1조 3,633억 7,5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595억 4,3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91.6%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2,398억 3,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438억 1,871만원 증가(전체 세입의 83.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2,398억 3,93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438억 1,871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436억 6,171만원, 수준별이동수업지원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35억 3,3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157억 2,502만원 증가(전체 세입의 8.3%)

· 법정이전수입은 1,201억 8,0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125억 2,968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11억 3,000만원, 시도세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3억 6,328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경비로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3,64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33억 5,5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9%인 31억 9,534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인 흡연예방교육비가 기정예산 대비 2,680만원이고, 다목적교실증축지원비 8억원, 운동장인조잔디조성지원비 1억 2,000만원,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비 18억 9,700만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28억 1,700만원이며,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비 3,054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3억 1,5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등 국고지원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 3억 5,154만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 자체수입은 463억 5,3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47억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19억 3,7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인 325만 7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2.1%)

· 기본적교육수입은 316억 3,2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인 325만 7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수업료가 기정예산 대비 325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임

- 자산수입은 51억 9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4.7%인 40억 5,506만 4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0.3%)

· 자산임대수입은 10억 6,83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2,751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문의초 구룡분교장 2,320만원, 동이초 청마분교장 431만원 등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751만원이 증가된 것임

· 자산매각대는 40억 4,0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39.5%인 40억 2,755만 4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토지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37억 2,702만 4천원, 건물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2억 5,166만 2천원, 기타유형자산 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4,886만 8천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 잡수입은 15억 4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7%인 6억 4,317만 9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0.0%)

· 잡수입은 9억 6,09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3%인 2억 4,567만 6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억 4,567만 6천원이 증가된 것임

· 과년도수입은 3억 9,75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인 3억 9,750만 3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기초자치단체비법정전입금 미전입, 교원명퇴수당 미수납금, 소송비용 미수납금, 대가료 미수납 등 과년도수입이 3억 9,750만 3천원이 증가된 것임

○ 차입은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및학교채는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천원 감소(전체 세입의 0.5%)

· 지방교육채가 74억 4,1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6억 5,812만 4천원 감소된 바, 이는 2008년 2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실적에 따른 발행액 감액에 따라 금융기관차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16억 5,812만 4천원이 감소한 것임

○ 기타는 714억 6,75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8%인 560억 2,656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714억 6,75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8%인 560억 2,656만 7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4.8%)

· 순세계잉여금이 711억 1,9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6%인 556억 7,861만 2천원 증가된 바, 이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56 억 7,861만 2천원4천원이 증가한 것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4,79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인 3억 4,795만 5천원 증가된 바, 이는 유치원교육비지원사업, 장애아무상교육비지원사업, 농신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 스포츠클럽우영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기정예산 대비 3억 1,505만 7천원,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이 기정예산 대비 3,289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임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장 관 항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이전수입	1,363,375,709	91.6	1,303,831,979	95.2	59,543,730	4.6	
중앙정부이전수입	1,239,839,313	83.3	1,196,020,609	87.3	43,818,710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39,839,313	83.3	1,196,020,609	87.3	43,818,710	3.7	
보통교부금	1,239,839,313	83.3	1,196,020,609	87.3	43,818,710	3.7	
국고보조금	0	0.0	0	0.0	0	0.0	
특별교부금	0	0.0	0	0.0	0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536,390	8.3	107,811,370	7.9	15,725,020	14.6	
법정이전수입	120,180,400	8.1	107,650,720	7.9	12,529,680	11.6	
지방교육세전입금	96,270,000	6.5	95,140,000	6.9	1,130,000	1.2	
시도세전입금	12,874,000	0.9	12,510,720	0.9	363,280	2.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036,400	0.7	0	0.0	11,036,4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355,990	0.2	160,650	0.0	3,195,340	1,989.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87,450	0.0	160,650	0.0	26,800	16.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817,000	0.2	0	0.0	2,817,000	100.0	
국고지원전입금	351,540	0.0	0	0.0	351,540	100.0	
자체수입	46,353,333	3.1	41,651,833	3.0	4,701,500	11.3	
교수-학습활동수입	31,937,230	2.1	31,933,973	2.3	3,257	0.0	
기본적교육수입	31,632,605	2.1	31,629,348	2.3	3,257	0.0	
입학금	182,066	0.0	182,066	0.1	0	0.0	
수업료	31,450,539	2.1	31,447,282	2.3	3,257	0.0	
선택적교육수입	304,625	0.0	304,625	0.0	0	0.0	
기숙사 및 급식	304,625	0.0	304,625	0.0	0	0.0	
행정활동수입	1,502,685	0.1	1,502,685	0.1	0	0.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502,685	0.1	1,502,685	0.1	0	0.0	
사용료수입	1,268,602	0.1	1,268,602	0.1	0	0.0	
수수료수입	234,083	0.0	234,083	0.0	0	0.0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장 관 항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산수입	5,109,060	0.3	1,053,996	0.1	4,055,064	384.7	
자산임대수입	1,068,318	0.1	1,040,808	0.1	27,510	2.6	
임대료수입	1,068,318	0.1	1,040,808	0.1	27,510	2.6	
자산매각대	4,040,742	0.3	13,188	0.0	4,027,554	30,539.5	
토지매각	3,727,024	0.3	0	0.0	3,727,024	100.0	
건물매각	251,662	0.0	0	0.0	251,662	100.0	
기타유형재산매각	62,056	0.0	13,188	0.0	48,868	370.5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5	0	0.0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5	0	0.0	
이자수입	6,300,000	0.4	6,300,000	0.5	0	0.0	
잡수입	1,504,358	0.1	861,179	0.1	643,179	74.7	
제재금수입	145,947	0.0	145,947	0.0	0	0.0	
변상금	6,892	0.0	6,892	0.0	0	0.0	
위약금	139,055	0.0	139,055	0.0	0	0.0	
잡수입	960,908	0.1	715,232	0.1	245,676	34.3	
기타잡수입	960,908	0.1	715,232	0.1	245,676	34.3	
과년도수입	397,503	0.0	0	0.0	397,503	100.0	
기타잡수입	397,503	0.0	0	0.0	397,503	100.0	
차입	7,441,876	0.5	9,100,000	0.7	△1,658,124	△18.2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7,441,876	0.5	9,100,000	0.7	△1,658,124	△18.2	
지방교육채	7,441,876	0.5	9,100,000	0.7	△1,658,124	△18.2	
금융기관차입금	7,441,876	0.5	9,100,000	0.7	△1,658,124	△18.2	
기타	71,467,543	4.8	15,440,976	1.1	56,026,567	362.8	
전년도이월금	71,467,543	4.8	15,440,976	1.1	56,026,567	362.8	
순세계잉여금	71,119,588	4.8	15,440,976	1.1	55,678,612	360.6	
순세계잉여금	71,119,588	4.8	15,440,976	1.1	55,678,612	360.6	
보조금사용잔액	347,955	0.0	0	0.0	347,955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15,057	0.0	0	0.0	315,057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32,898	0.0	0	0.0	32,898	100.0	
합 계	1,485,638,461	100	1,370,024,788	100	118,613,673	8.7	

다. 세출예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7.0%인 913억 8,437만 5천원이 증가된 1조 4,046억 3,624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0.4%인 9억 2.103만8천원이 증가된 27억 4,949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47.9%인 263억 826만원이 증가된 812억 5,272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175억 2,352만 7천원이 증가된 9,256억 4,850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8.5%인 178억 2,652만 7천원이 증가된 803억 6,499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1,087만원이 증가된 406억 8,337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21.7%인 38억 6,655만 3천원이 증가된 217억 2,123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16억 1,930만 5천원이 증가된 2,278억 536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3%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86.7%인 503억 3,759만 3천원이 증가된 1,084억 1,275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 직업교육 부문의

·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67.9%인 8억 5,145만 8천원이 증가된 21억 565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2.1%인 6,958만원이 증가된 6억 4,384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0%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의

·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42.3%인 56억 3,229만 1천원이 증가된 189억 4,587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5.2%인 31억 222만 4천원이 증가된 235억 1,516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17억 3,502만 8천원이 감소한 82억 3,075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71.6%인 193억 877만 3천원이 증가된 305억 6,092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분	정책사업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교육			1,488,638,461	100.0	1,370,024,788	100.0	118,613,673	8.7
	유아및초중등교육		1,404,636,243	94.4	1,313,251,868	95.9	91,384,375	7.0
		인적자원운용	925,648,507	62.2	908,124,980	66.3	17,523,527	1.9
		교수-학습활동지원	80,364,999	5.4	62,538,472	4.6	17,826,527	28.5
		교육격차해소	40,683,375	2.7	40,472,505	3.0	210,870	0.5
		보건/급식/체육활동	21,721,239	1.5	17,854,686	1.3	3,866,553	21.7
		학교재정지원관리	227,805,367	15.3	226,186,062	16.5	1,619,305	0.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8,412,756	7.3	58,075,163	4.3	50,337,593	86.7
	평생-직업교육		2,749,496	0.2	1,828,458	0.1	921,038	50.4
		평생교육	2,105,651	0.1	1,254,193	0.1	851,458	67.9
		직업교육	643,845	0.0	574,265	0.0	69,580	12.1
	교육일반		81,252,722	5.5	54,944,462	4.0	26,308,260	47.9
		교육행정일반	18,945,879	1.3	13,313,588	1.0	5,632,291	42.3
		기관운영관리	23,515,169	1.6	20,412,945	1.5	3,102,224	15.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230,753	0.6	9,965,781	0.7	△1,735,028	△17.4
		예비비및기타	31,560,921	2.1	11,252,148	0.8	20,148,713	179.1
합 계			**1,488,638,461**	**100.0**	**1,370,024,788**	**100.0**	**118,613,673**	**8.7**

라. 지방채 조서

○ 금회 지방교육채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지원계획에 의하여 2008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실적에 따른 발행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액 **91억원**에서 2008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 집행액 **74억 4,187만 6천원**을 제외한 **16억 5,812만 4천원**을 감액하였음

마. 삭감 내역

○ 세입 삭감액 : 해당없음

○ 세출 삭감액 : 1,851,800천원

○ 삭감내역 및 사유

- 세출

·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및협력 교원단체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평가 학교평가미흡교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 영화상영참여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301쪽 본청시설 1급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감

·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비 190만원 삭감

·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 예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추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원 전액 삭감

바. 종합의견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 재정여건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전입금 사업비, 2007년도 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7.4%를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 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 대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86.7%, 증가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제안일자 : 2008. 4. 18.

나. 제 안 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다. 수정이유 : **삭감내역 및 사유 참조**

라. 수정 주요 골자

○ 세출

- 세출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특별활동지원

·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 전담인력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교직원단체관리

·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및협력 교원단체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학교평가관리

·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평가 학교평가미흡교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보건/급식/체육활동 (단위사업)보건관리

·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부문)평생직업교육 (정책사업)평생교육 (단위사업)평생교육활성화지원

·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시범학교운영 주민과 함께 만나는 영화상영관운영 영화상영참여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교육일반 (정책사업)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 예산안 301쪽 본청시설 1급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학교일반시설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학교일반시설

·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비 19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10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안 413쪽 중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추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원 전액 삭감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4. 18.

예산·결산소위원회

위 원 장 정 무

간 사 서 수 웅

위 원 곽 정 수

김 부 웅

이 상 일

第2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21

Ⅱ.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41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16시 01분

議事日程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01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웅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심사가 제대로 잘 되도록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6시 03분)

●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교육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수웅 위원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 간사 서수웅

감사합니다.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소위원회가 오늘의 소임을 다하는데 심부름을 충실히 해서 간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05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06분)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수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간사 서수웅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청이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이오전시관이

있던데요. 그 바이오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갖다 설치만 해놓고 바이오 운영을 우리가 다 맡아야 하는 건지 아까 거기서 이해를 못했는데요, 혹시 도청에서도 우리처럼 관리인이 나와서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아까 못 들었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관리를 맡는다면 그에 따른 경비나 인력도 상당히 요구되어야 할텐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걱정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 운영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도청에서 바이오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공공요금 등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을 때부터 아예 수도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는 물론 학생들한테 받는 수수료까지도 각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아까 거기서 설명 듣기로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정수 위원님.

●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아직 학생회관이 명칭이 학생교육문화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 앞에 학생을 넣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거기 학생 소리가 안들어가고 그냥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되면 도청 사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의 명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직원들 등 우리 직원들하고 상당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 당시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할 때는 우리 명칭에 바이오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관의 기본 뜻하고 도청에서의 얘기하는 바이오 쪽하고 너무 바이오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빼고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현재 학생회관은 직제가 총무과,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부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아까 거기 갔을 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부서의 명칭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닐 테지만 지금 어떻게 두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현재에 조례에는 원장만 둔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 가면은 현재 총무부 또 운영기획부, 학생문화관리부 이렇게 3부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부장의 직급은 어떻게 편성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지요?

● 총무과장 김용환

지금 현재 부장은 지방4급 또 총무부는 지방4급으로 하고 운영기획부는 교육연구관, 학생문화관리부는 거기도 지방4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4급 티오의 증감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총무과장 김용환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두 자리가 규칙에서 지방4급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4급 정원이 2명 내려와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의 연구관은 현재 현 학생회관의 연구관 자리가 지금 있죠.

● 총무과장 김용환

거기의 연구관은 5급 연구관이고 지금 운영기획부 연구관은 서기관급 4급 연구관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5급 연구관이 4급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4급 연구관 따로 5급 연구관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용환

만약에 규칙이 확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4급 연구관도 한 분 발령을 받고 그리고 전문직 운영기획팀에 과장급 연구관 5급 연구관이 한 분 배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의 연구관은 사실상 보직이 5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있는 부서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장이 가기 때문에 총무부나 기획운영부나 문화관리부 쪽에는 부장급으로 해 가지고 본청 과장급 서기관 내지 본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학관 내지 연구관이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데 현재의 계획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오늘 새로운 학생교육문화원에 가봤더니 앞으로 유사기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 조정을 해야 효율적인 건가 하는데 궁금하고, 저쪽에 건물면적이 11,951㎡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따른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확보 방안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원을 학생회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회관하고 교육문화원 다시 조정되어서 생기는 기관하고의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서 우리 먼저 조직진단 결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키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전문직 6명, 지방공무원 43명 총 49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학생회관 정원이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18명중에는 전문직 3명, 지방공무원 15명으로 현재 그 인원은 교육문화회관설립추진단에 정원이 지금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11명을 활용하고 나머지 전문직 3명과 지방공무원 4명은 기관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이쪽에 공고에 옆에 있는 현재 학생회관에도 작지만 공연장이 있죠. 그리고 저쪽 4층에 중강당이 있고, 오늘 가봤더니 거기도 공연장이 큰 것, 작은 것, 무용연습실 다 있더라고,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영동에 있는 학생회관의 활용방안을 한번 재검토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동시에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 총무과장 김용환

그래서 유사기능은 중복되는 기능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영동에 있는 학생회관에서는 지금 주로 교육박물관,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등을 운영하고 거기에 평생교육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유교실, 여유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지금 주중동에 있는 교육문화원은 학생들 체험학습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접근방법이 사실 영동은 좁기는 해도 시내 가운데여서 접근방법이 좋은데 주중동은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할 때 교통의 문제가 생길 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가령 한 천명 학생이 한 학교가 다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각자 오라고 그러기도 어려울 테고 버스가 운영이 되기도 그렇고 접근성이 아직은 거기가 멀단 말이에요. 특히 학교가 이쪽이 많은데 이쪽에서 그쪽까지 가려면 적어도 20분 내지 멀게는 30분까지 걸릴 것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쪽이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우리가 개별로 물론 체험장에 입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학교단위로 전부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또 그 체험장을 입장하는 학생들도 학교단위로 받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해에 많은 경험과 또 학교단위로 함으로써 개별로서 학생들을 입장시킬 때에 비효율적인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학교단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성 부분은 수요자측인 학교측에서 임대료를 내던지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으로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재료비, 또 입장료 이런 건 무료로 해보고, 올 2008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보안을 해서 2009년도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용료이

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개원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운영경비 그 다음에 재료비, 입장료부분, 공공료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 문제는 당분간은 학교에서 수요자측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그 접근성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임대버스 학생수송을 위해서 버스임대료를 10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시내하고 청원군 관내 학교를 시범적으로 그 10대를 만약에 예산 승인이 나면 학생수송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번 단계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조문 및 변경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누어준 유인물 3쪽을 보니까 제6조제7호 중에는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4쪽 아래에서 넷째 줄을 보면 제7절을 제목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로 한다 해 가지고 실업계를 전문계로 바꿨습니다.

또 제26조제1항도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로 거기도 실업계를 전문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아래에 제28조제1호 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전부 실업계를 전문계로 이렇게 바꿨는데, 유독 유별나게 제6조제7호는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의 차이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뭔지, 혹 다른 데는 다 실업계를 전문계로 말을 바꾸었는데 유별나게 이 6조만 산업교육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이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산업교육이라고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과 명칭도 과학산업과고 실업교육에 관한 것이 요때는 산업교육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규칙에 따라서 기타는 전문계로 하는 것이.....

● 정무 위원

아니 전부 산업계로 한다든지 전문계로 한다든지 통일을 하지, 제6조만 유별나게 산업교육이라고 실업계교육을 산업교육으로 바꾸고 그 이하에 있는 전부 조문은 실업계교육을 전문계교육으로 용어를 바꾸었는데, 산업교육이라고 하면 실업교육보다는 산업교육이 폭이 넓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산업교육보다는 전문계교육이 폭이 더 넓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산업교육과 전문교육을 그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했는지?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일반계열이냐 실업계열이냐 이렇게 학교의 성격을 구분 지어서 계열을 나눌 때에는 과거에 실업계라고 하던 것을 전문계로 바꾸자 이렇게 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전문계열로.

그리고 전문계열에서 가리키는 교육은 무엇이냐 과거에 실업교육이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산업교육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부족한데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실무자의 뜻은 실업교육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및 실업교육이라 할 때는 실업교육의 두 가지가 하나는 실업교육, 산업교육에 대비해서 과학 및 산업교육이라는 용어를 썼고, 기타는 실업교육에 대한 규칙변경으로 실업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교육으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실업교육을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 정무 위원

제6조제7호로 실업교육을 전문교육으로 바꾸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

이 아니라, 이렇게 볼 때 학교이름은 전문이라는 학교이름을 붙이고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내용은 똑같이 실업이었던 것을 산업으로 고쳤기 때문에, 산업이나 전문으로 하나 통일하면 안되나 이렇게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뭔가 궁금한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교육을 했으면 산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안되나 그 말이죠.

● **정무 위원**

서수웅 위원님 말씀 마낭 이거 6조에만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했는데 이것도 전문교육으로 바꾸면 남들이 법적으로 읽을 때도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실업교육, 산업교육, 전문교육 말이 다 다르니까 이게 뭐가.....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요거 전문담당 의견을 들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예

● **위원장 김부웅**

정무 위원님, 그럼 답변하실 분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위기관별 부서의 설치 및 부서장의 직급, 분장사무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럴 예정이라고 여기 아침 제안설명서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부서의 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정원이 49명쯤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비대해지는 기구인데, 실제로 그 기관의 장을 보면 직급을 보면 우리 직속기관 중에서 학생수련원은 부이사관, 중앙도서관은 부이사관, 학생회관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더 비대해진 문화원에 부이사관 설치 할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교육문화원의 규모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리시설도 상당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내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단순히 과거의 순수한 영조물만 관리하는 영조물 관리보다는 영조물 관리부분도 상당히 비대해지고, 또한 학생수련장이나 저희들 교육문화원 쪽에 주중동 사무실들이 워낙 기능 자체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단순한 영조물 관리에서 거대한 영조물 관리체제로 바꾸다 보면 지금 4급 기관장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급 기관장을 둘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정원 속에서 3급 정원을 교육감 재량으로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천야영장장하고 교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어서, 3급을 교육문화원 쪽으로 옮기고 지금 학생야영장 쪽에는 4급 기관장을 둘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부이사관 자리가 하나가 증원은 안되고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3급을 정원을 교육부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의 입장은 시·도 간에 형평 있는 조직 내지는 직급을 줘야된다는 취지에서 3급을 증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4급을 2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아까 말씀 도중에 부서장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학생회관하고 수련원하고의 교체를 해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하시겠다 그 얘기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은 왔는데 단 그것이 학생교육문화원 개원 이후에 직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직제규정을 고쳐서 기관장을 3급 기관장으로 문화원에 보내고 또 현재의 3급 기관장이 있는 야영장은 4급으로 두는 그 절차를 밟아서 7월 1일날 인사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관리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다보니까 학생문화원의 기능이 상당히 큰 것으로 가서 실제로 보기도 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4급 정원이 둘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4급 보직할 때 제가 작년도 행정질의나 또는 사무감사 때 늘 얘기했던 것이, 조금 한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려운 직렬에서 이런 직렬에서 요번에 복수직렬로다가 예를 든다면 시설직 공무원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요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시설직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직종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인사의 부분이기 때문

에,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공무원들간에 직종간 밸런스를 맞춰서 임명하느냐 그 부분은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웅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건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또 거기 시설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위원님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까?

말씀하시죠.

● 곽정수 위원

그동안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그러시죠.

● 곽정수 위원

곽정수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의 직급이 지금 부이사관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여기 기존에 학생회관 관장은 여기도 보면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2003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어떻게 개정안하고도 그냥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3급이 아니고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지방부이사관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방부이사관이 있으면 그냥 됩니다.

● 곽정수 위원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학생회관 관장이라는 말만 교육문화원장으로 바꾸면 이 조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례 개정 없이 현행 규정상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감님이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급으로 둘 거냐 장학관으로 둘 거냐 3급으로 둘 거냐 그 부분은 인사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아직 다 안됐다고 그러면 하나를 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시기인가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학생회관의 업무하고 중앙도서관 업무하고 서로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니 그거를 좀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시길 저희들이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업무조정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용역기관에서 그런 업무조정 의뢰를 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소개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중앙도서관은 지금 현재 학생회관하고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체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2007년도에 외부용역을 주어서 우리 각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구조 전반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를 개정하면서 많이 반영을 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정적인 장소입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하면서 대상은 학생과 주민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학생회관 즉 현재의 학생회관이나 교육문화원 쪽에는 굉장히 동적이면서 학생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인들 사회체육 부문보다는 학생들 내지는 학생들과 관련된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원화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 같은 데는 어차피 학생들보다는 지금 민간인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특수사항도 있지만, 지금 주중동에 있는 교육시설들은 주로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여가가 있는 경우에 민간인까지 평생교육을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회관 쪽에서도 특정한 평생교육 부분은 이쪽 영동에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 개정할 때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답변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산업교육 그거에 관해서 담당장학사가 여기에 왔는데 제가 설

명 드릴까요, 담당장학사님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김부웅

편한대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일단 담당장학사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아시겠는데요, 지금까지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명명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실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낙인효과 또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과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학과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실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문계고등학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 갖고 계열이 전에는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업계 또 실업계열이라는 용어를 전문계 또 전문계열 이렇게 바꿔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분야별로 전문화, 특성화를 시켜서 직업분야의 매니아를 형성하는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 정무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것이 상부지침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직에서 그 용어를 만든 건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전문계고등학교로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지금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한다는 말을.....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바꾸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 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런데 교육은 왜 산업계로 했느냐?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바

꿔놨는데 전에는 실업교육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전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실업교육이다 하는 것은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해놓고 전문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전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 갖고 교육부에서도 과학실업교육정책과였었는데 전에는 과학전문교육정책과로 그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과학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혼란이 될 수도 있고 혼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교육정책과로 교육부에 있는 직제도 변경이 됐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럼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든 용어가 아닌란 말씀이죠.

● 과학산업교육과 산업교육담당장학사 김순태

예, 그렇습니다.

● 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43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곽정수 위원

지금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실익을 분석했을 때 덜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비스하

는 차원이 더 효과가 큰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곽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총계가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능가할 만큼 그렇게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자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도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가 학교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종이 값 한 장이라도 진짜로 원가를 학생들 수익자들한테 징수를 할 때보다는, 현실적으로 교육여건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학생들 편의도 제공해 주고 행정력도 다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징수를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제·증명수수료 등등을 징수해 봐야 사실은 그게 학교재정에 큰 도움도 안되면서, 민원인에게 이것도 무슨 돈을 받느냐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학교장 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안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건 잘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용어상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내용 3항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 신설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미 그런 조항이 있는데 다시 이런 조항을 만든다면 내용의 중복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 총무과장 김용환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에는 적용범위로 해서 다른 법령에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했고, 또 우리가 5조 5항에 넣는 것은 면제의 범위를 면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나오는 그 범위는 징수에 관한 총괄적인 그런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징수절차나 징수방법, 그 수수료에 관한 내용 등등해서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조 5항

에 면제에 대한 확실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의식을 주고자 확실하게 5조 5항에 면제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강원도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에서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냥 면제한다라고 그러면 면제한다는 그런 규정 내용만 딱 있으면 얼른 이해가 갔을 텐데,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볼 때 암만 읽어봐도 다른 법령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조항을 신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중복해서 면제를 또 한다는 얘기인지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서술상 맞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총무과장 김용환

이 5조 5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 간사 서수웅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네요.

● 총무과장 김용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한번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이미 2006년도에 징수를 폐지한 도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강원도에서도 2007년 12월에 개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입이 학교운영에 무슨 지장을 주는 건 아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제·증명 수수료 받는 금액이 약 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수입이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 보면 어떤 데는 2만원미만인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몇 십 만원자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지금 2,000만원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다 잘라지니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볼 때는 세입 징수하느라고 사실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이렇게 비효율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도 조금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또 질문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서수웅,

위 원 곽정수,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8. 5. .

위 원 장 김 부 웅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8. 4. 14. (월) 16: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第21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47

Ⅱ.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251

2.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253

Ⅲ. 별 책 부 록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4월 17일(목요일) 10시 01분

議事日程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정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정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뒤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간사선출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정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수웅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존경하는 정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4.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07분)

●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4월 15일자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 및 변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김부웅 위원

근데 왜 올라 왔나 이유는 알고 동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무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 사전 설명을 담당 관리과장으로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그 수정내용은 문광초등학교에 특별교실이 부족해서 학생들 특별활동 하는데 지장이 막심하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교실이 2실이 됐고요.

● 김부웅 위원

아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서 수정안이 나왔단 얘기예요, 뭐 그리 급한 게 있나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4월 4일날 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불가피 하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자로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정무

또 이의가 계신 분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 위원장 정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증평 청안중학교에 작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 예정현황, 그 다음에 작년도, 금년도의 재적 학생수, 그 다음에 학생의 전·출입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그 날짜, 그리고 직원조직과 그 직원의 과목 및 업무 이렇게 작년도, 금년도 분을 소상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06년, '07년의 사립학교에 지원한 차량구입비 현황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중의 금년도 연구학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곽정수 위원님하고 김부웅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심사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안을 소관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지난 4월 4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4월 15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시급한 시설현안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문광초등학교 교실증축 1억 7,580만원, 충주중학교 화장실증축 9,056만원, 청석고등학교 지붕방수 4,250만원,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증축 및 비품구입비 5억 3,1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억 3,9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별첨 2)

(끝에 실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별책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본회의 별책 1)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등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매번 제가 어떻게 첫 번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싫은 소리 잔소리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애정 어린 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교육계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대학진학문제서부터 심지어는 학교의 사설학원에 강사가 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까지 하는 등등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해서, 사실은 시 · 도교육청에서도 대단히 거기 대처 내지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뉴트렌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큰 액수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100억 단위 이렇게 되면 했는데, 우리 시 · 도교육청도 한 10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또 투자 심의를 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100억 이상은 중앙 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

고 20억 이상 되는 100억서 20억 사이에서 되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의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우리 직원들과 교육위원회에 추천한 위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수 전문가들이 혼합되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전에 무슨 컨펌 없이 그냥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업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뭐라고 그럴까 해소하는 방법 중에 액수가 꼭 20억이 아니더라도 작더라도 신규사업이거나 또는 그런 안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후 의견 개진이 있는 후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미흡한 게 서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때는 열린교육이 마치 교육의 금과옥조처럼 생각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지은 학교가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한 학교가 전부 열린교육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지은 건물을 되돌아보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지금 또 경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가곡중학교의 초·중교 통폐합 건 때문에 거길 가봤더니 군내에 관사가 네 댓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전두환 정부 시절에 대통령특별하사금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폐가가 됐고 학교 그 주변에 내구연한이 안됐는지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학교의 외관도 아주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학아동 수도 줄어서 학교의 규모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도 줄었고, 또 두 번째로 생활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교직원이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 도로교통망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통근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숙소가 사택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건물 같은 것을 투자 할 때는 앞으로 내구연한이 50년씩인데 그 용도를 적의 판단하셔서 지어야 되

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는 학력신장이 제일 모두에 나와있는데 모두가 다 학력신장 학력신장하다 보니까,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학교에 기숙사를 짓게 되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모두다가 기숙사를 짓기를 원합니다.

또 부형들도 기숙사를 지어서 학업에 전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부형들이나 학생들은 또 기숙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고운 눈빛으로만 보니 것은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등교할 때 매번 보는 기숙사가 과연 학교 안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잘 관계정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려 두면, 양 기관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의 기관으로 전부 봐야 되는데 양 기관이 다 사실은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이 선출직이다라는 것은 공약을 제출하고서 선거에 당선됐다라고 보면 그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공약을 걸고 선출된 분들이니까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사실은 양 기관이 서로 완급을 조절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데 공통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방향이 차이날 수 있어서 독주를 견제하고 또 경중이나 완급을 조절하고 하는 이런 절묘한 조화의 예술이 위원들 개개인에게도 이게 요구됩니다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위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의 임무도 사실은 여기 부응하게 작용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써 치우기식 예산은 아니었는지, 또 실적이나 명분 없는 사업항목에 의례적인 존치는 없었는지, 또 제목만 바꾼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온 일은 없었는지, 또 비슷한 사업을 쪼개나 무슨 간담회니 검토회니 또 협의회니 평가회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쪼개서 넣지 않았느냐 이중 계상이 된 일은 없었는지, 또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한 일이 없었는지, 또 집행의 우선순위가 재확인되어야 되겠고,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만 시·군교육청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서

로 예산상에 살펴서 트레이드는 가능한 게 아닌지,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확실히 되는데 이게 오해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목을 움츠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충북교육 발전 30년 포럼 이런 걸 만약 만든다고 그럴 경우에, 내 구성원이 내가 각자 구성원이다라고 그러면 그 역할을 그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산서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1쪽에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 11억 3,000만원과 시·도전입금이 3억 6,328만원해서 총 14억 거의 15억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3항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는데, 2006년도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결산정산 분은 전입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필요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청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당초 예산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편성시기가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도청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전체 추경액이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추경액이 중앙 부서에서부터도 다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청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청이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청 쪽에서는 또 지방비를 직접 자기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수에 더 가깝고 저희들은 어차피 외부에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면은, 그거를 다음 번 회계에 저희들이 그 차액을 받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세 전입금은 이번 추경에 도청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73쪽에 과년도 수입 중에 교원명예퇴직수당환수금 미수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일단 재직 중에 어떤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형사 벌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퇴직을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명예퇴직금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재직 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수시점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던 시점을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같은 과목으로 반납이 여입이 되지 않고 과목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징수가 됐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징수는 지금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공직에서 다 끝나고 어떤 벌을 받게 되면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통보라든가 아니면 회수금 이런 걸 통보를 보내도 잘 수령이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식적으로 고지서가 잘 전달이 안되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예산에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니까 재직 중에 명퇴를 신청해 놓고 명퇴가 집행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재직 중에 형사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추후에 발견이 되어서 명퇴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집행은 된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들이 본래 명퇴나 훈장은 재직 중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 그 형벌도 중한 거죠, 이런 걸 받게 되면 명퇴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명퇴신청을 결정하는 시점까지는 그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곽정수 위원

96쪽에 공보감사담당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시책홍보간담회, 교육시책현안업무추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우선 홍보매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일간지나 방송, 통신사해서 한 15개가 되는데, 최근에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사 이후에 한 30개사가 대전지역까지 해서 한 30개사가 되어서 매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금년도에 교육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 **곽정수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가 급격히 증가해서 사실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언론매체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최근에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충북교육방송운영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그 후면에 보면 버스를 이용한 홍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익적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무료로 홍보가 되는데, 최근에 변화하는 교육시책이라든지 최근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가족 내부에서만의 홍보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언론사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송출을 해 주는 송출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가장 늦게 시작했고 시청이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작까지 맡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예산상,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가서 송출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시책이 교육내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유관단체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내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버스는 질문 안하셨는데 그것도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 해 보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 말을 안했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109쪽하고 그 다음에 153쪽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위해서 본예산에 국고부담으로다가 초등 27억원, 중등 64억원 등 91억원을 편성했으나 2월말 퇴직자 112명에게 74억 몇 천 만원을 주고 잔액이 16억이 남았는데, 추경예산에는 국고잔액을 감안하지 않고 자체 지방비로다가 25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퇴직인원이 39명 외에 더 집행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16억 남은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39명 외에는 더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말에 집행한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잔액도 사실은 국고에서 부담할 잔액을 반납해야 될 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9월달에 쓰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2월달에 서 있는 예산은 이미 정산이 된 걸로 보고 다시 25억 가지고 쓰는 거는 39명 외에는 더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국고에서 온 돈은 반납하고 우리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 그런 얘기죠, 지금.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국고는 2008년 2월말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명퇴수당 지급 추이에 대해서 혹시 무슨 지침이나 예측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지침은 없고 예측하건데 명퇴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 예산에 감당하기 많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아마 연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명퇴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39명 이

외에 집행이 어렵다라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명퇴를 안받아주는 걸로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신청자 중에서 선별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작업을 그렇게 하지만 내년, 후년도 성립예산을 할 때는 어떻게 세울 예정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 후년도에는 가급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교원들의 명퇴금을 2008년도 2월 달까지는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국고부담을 할 때에도 직접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지방에서 해서 쓰면 그 기채액을 이자와 함께 중앙에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써 왔는데, 아마 계획으로는 2009년도부터 조금 더 당겨 말씀드리면 2008년 9월부터는 국고로 지금 퇴직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명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그 규모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으로써는 명퇴자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명예롭게 퇴직을 시켜야 될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 **곽정수 위원**

한 가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1년에 두 번 정시 명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예산 편성상이나 또는 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2월말 명퇴, 8월말 명퇴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명퇴를 여섯 번을 합니다. 여섯 번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두 번밖에 하지 않고 그 이외에도 그건 어디고 다 해당이 되는데 뭐냐 하면 수시 명퇴라고 그러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명퇴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에도 기구가 갑자기 개편이 되어서 없어지는 부서가 생겼다 그럴 때,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이 퇴직을 원할 때는 명퇴처리를 해 준다, 또 지금 금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고위공무원단이 무슨 TFT팀으로 구성됐다 뭐 안된다 어디 하급 지자체로 밀어낸다고 그러

니까, 또 하급 지자체에서도 또 안받겠다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서, 아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명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수시 명퇴제도를 기존에 알고 있었는지 또 수시 명퇴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도적으로 수시 명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행정 관행으로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 그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명퇴도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 공직에 봉직하면서 수시 명퇴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이 없어야지, 국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봉직한 사람들의 그 공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제도나 규정만 따져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안했으니까 안된다 하는 이런 경직된 사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동의합니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65쪽 논술교육 활성화에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대학입학 시험과정에서부터 논술교육이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이 과거에서는 일부 교과 국어과, 사회과 중심으로 지도되어 오다가 그 경향이 탈교과적, 범교과적으로 지급됨에 따라서 지도교사의 능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양성과정을 위해서 논술교육 직무연수를 충북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시키고, 또 논술교육 동아리를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 하나는 충북대 4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시기적으로 서울대 10명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이 420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충북대 직무연수는 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420명이 동시에 지금 연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 **교육국장 김종근**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 방학 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 **곽정수 위원**

그래서 양적으로 420명이 동시에 연수하기에는 방학기간이 몇 번이나 나눌지는 몰라도, 또 이걸 횟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소요일수를 줄인다라고 그러면 부실한 연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것을 주무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이반을 잘해서 주관하는 측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학교평가 미흡교 지원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수한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미흡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퍼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평가는 3년 주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초등학교 1년 그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82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수교에게 시상금을 주고 보상을 해 주었는데 교과부에서 부진한 학교도 지원을 해서 빨리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미흡학교도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학교간에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촉구해라 해 가지고, 지금 미흡학교도 하위순 1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곽정수 위원**

다음에 전문계고교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해당이 되네요.

거기 보면 추경에 3개가 추가 지정이

되어서 연구시범학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현재 전문계교가 몇 개교인데 연구시범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그 부분 과학산업교육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곽정수 위원

네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3개교고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2개교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 곽정수 위원

아니 근데 전문계고교가 몇 개교예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32개교요.

● 곽정수 위원

32개교 중에서 먼저 2개였다가 이번 3개였다 5개된 겁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율은 많지 않은데 본 사업보다 추경사업이 더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그런 목적이 더 생겼어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그것이 타 기관 요청에 의해서 요번에 세입교부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곽정수 위원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청원교육청 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9억 8,000이 들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청원교육청에서의 체육공원사업은 유리분교장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곽정수 위원

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조금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원군 유리분교가 폐교가 되는데 그 지금 지역이 상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부지를 매각해서 저희들이 현금화하기는 매우 아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오창에 벗어나는 도심에 앞으로 적용하

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꼭 사용을 해야겠고, 그래서 거기 운동장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시내에서 운동을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정상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축구를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투리 여백 땅에는 게이트볼이라든가 아니면 골프타석을 몇 개 간단하게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물 안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탁구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학교로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걸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해서, 우선 지역여건이라든가 청주시내에 비좁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이라고 일단 명명은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어떤 운동은 할 수가 없고 다소 몇 가지만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야초등학교가 아마 축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두 면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리분교에 축구장을 필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민이 적어 가지고 폐교시킨 위치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쓸 수 있겠느냐, 그냥 시설만 덩그렇게 해 놓고 결국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파리만 날리다가 세월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시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중에서 넓은 운동장이나 전용구장이 필요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기계공고가 야구를 지금 지정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을 할 경우에 교실하고 접근성이 가까울 뿐더러, 일반 학생들 체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의 운동장을 야구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고, 또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운동장이 운호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을 하다 보면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 고등학교 축구육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운동장을 마련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침 유리분교장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선수

들이 마음놓고 선수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학생들이 가기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로 선수들은 전용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버스를 이용하면 운동장에서 직접 훈련하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전용버스를 이용하고, 다만 버스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압니다.

● **곽정수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근성은 상야초등학교가 유리초등학교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뭐라고 그럴까 그 학교를 다음에 지역이 확장되어서 다시 학교로 쓸 수요를 대비해서 그냥 비워두기는 그렇다라고 그럴 경우에, 그런 대안으로 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면 거기 적절히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266쪽, 거기 보면 평생교육사업 거기에 주민과 함께 만나는 영화상영이라고 그러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8,500만원이 들어 있다가 추경에 4,000만원을 넣어서 이게 1억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영화상영 참여학교에 한 학교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사업내용이 뭐냐 이게 꼭 불요불급한 거냐 하는 내용을 회의심을 갖게 됩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요거는 평생교육차원으로도 필요하고 또 학교 교육활동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름은 평생교육 쪽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면 소재지나 이런데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빈프로젝트 등 영화상영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학교들에게 예산을 2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영화상영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 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릴까요?

그 4,000만원이 20개교에 200만원씩 주어서 각자가 전부 구입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물을 공동 구입을 해서 그걸 돌려가면서 쓰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20개교에 각자 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곽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 하면 20개교 중에는 전부가 똑같은 그런 영상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래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서 20개교가 나누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집행방법은.....

● 김부웅 위원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의 영화관도 영화들 구경을 안가거든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뿐이지 농촌에 지금 영화한다고 그래야 글쎄 얼마나 모일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김부웅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선진사례도 좀 있습니다. 지역민이 학교에 와서 함께 독서하고 또 함께 영화도 보고 그런 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이거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 교육국장 김종근

예

● 곽정수 위원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빈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그런데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예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추풍령중학교 학생수가 소인수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독립된 급식시설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급식시설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등등 하다보면 단가가 높아져야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재 추풍령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50명도 안되는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어서 그 급식을 시행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 종사원서부터 채용을 하다보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료비가 인건비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한 1,2년 운영하다

가 우리 못하겠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운반급식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학재단에 결국 급식소라는 시설만 하나 국가에서 투자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직영으로 하면은 일인당 식단가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식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위탁을 해서 먹을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가정책이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수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 국가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모든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풍령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매우 적고 또 가족의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인당 식단가가 올라갈 경우는 학교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도 매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결국에 운영은 모자라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보충을 해야 될 시기가 언제간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저희들도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학교장하고 한번 신중을 기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좀더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요것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지역인사가 인건비하고 연료비, 운영비 등을 일부를 대주겠다고 해서 수익자부담 식당단가를 최대한대로 낮추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영구적인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떠한 조건을 달고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또 식재료로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일단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집행단계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454쪽에 한글사랑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한글사랑관이 현재 있는 것이 아마 학

생회관 4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전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전한 그 자리가 아마 다문화사랑방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다문화가정사랑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곽정수 위원**

예

●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지금 현재 있는 한글사랑관을 교육박물관 4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1층하고 2층에 1층에는 안전공제회가 입주를 해 있고요. 안전공제회를 2층으로 이전시키고 1층에다가 다문화가정사랑방을 꾸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또 관리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만큼 거기서 효율성이 있을는지 한 번.....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그걸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를 2층으로 옮기고 밑에 층인 1층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용직 한 사람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교직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 영어라든가 이런 걸 와서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가리고 학부모들도 지도를 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할 겁니다.

● **곽정수 위원**

말 그대로 사랑방인데 사랑방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국가의 다민족들이 모일테고 그렇죠.

한 나라만 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아주 참신한 발상이고 좋은데 하여튼 멋지게 잘 운영이 되어서 선진적인 사례가 되어서 타 시·도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사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알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할까요?

● **곽정수 위원**

예

● **김부웅 위원**

저도 이따가 질문 생략하려고 미리 하는 겁니다.

454쪽에 지금 말씀하신 이전보관비가 1억 5,400이 나와있고 423쪽에 보면 한글사랑관 보수비가 5,81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1억 5,400은 한글사랑관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걸 한글사랑관에 맞게 학생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억 5,400이고, 밑에 5,810은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한글사랑관 그것을 2층을 안전공제회에서 사용하고 밑에 층은 다문화가정 저기로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치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회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며칠 전에 심의를 하셨고, 잘 알다시피 학생수련원이 매우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운영상 저희들이 수영장과 지금 바이오 주중동 그 회관을 체험하는 코스나 아니면 학생회관, 박물관 또 한글사랑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바이오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한 천 여명씩 이렇게 이동될 때에 지금 현재 한글사랑관에 와서 잠시 머물다 다시 또 학생회관을 거쳐서 이동을 하다보면 매우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운영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물관하고 한글사랑관을 같은 건물에 위치를 시켜서 학생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거기서 일단 관람이 끝난 학생들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수영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지금 학생회관 4층에 한글사랑관이 갈 전시장의 규격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글사랑관 규격이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치할 비품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정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보충시

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참 관계관님들 고생이 많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세밀히 살펴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아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께요.

57쪽, 58쪽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을 옥천중학교나 삼수초등학교 등 28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영동초에 3억 6,000만원, 양산·양강초에 각각 3억 900만원씩 영동군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금액이 9억 7,800만원입니다.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본래 교육비특별회계인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감한테 이게 전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떨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로 직접을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회계하고 지금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회계가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입을 잡는 거는 학교회계로 그냥 편성이 되고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 특별회계에서 세운 예산하고 즉 군수로부터 받는 돈하고를 다시 모아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이원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는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부웅 위원

결산에서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결산도 별도로 해서 군으로부터 받은 것은 학교에서 결산을 해서 군으로 보내주고 저희들은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정산하고 있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알고 눈여겨보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81쪽에 자치단체보금 집행잔액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285쪽이나 353쪽에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79쪽에 보조금 사용잔액,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 즉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이루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다소 물량을 다 쓰지 못하거나 잔액의 차이가 나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학교는 회계연도가 조금 약간 저희들하고 국고회계하고 틀릴뿐더러 주로 결산 뒤에 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 유아교육비 국고가 지방비하고 5 대 5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94억을 유치원별로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집행결과 91억 3,700만원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약 3억 3,900만원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유치원별로 전부 다 그걸 받아서 집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해 회계연도에 이거를 국고에 반납을 못해서 2008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유치원사업비가 거의 2억 가까이 또 스포츠클럽운영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본래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7월 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5 대 5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확정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넣다보니까 스포츠클럽 쪽에 늦게 교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만 클럽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특수보조원이 20명 증원이 되고 있는데요, 20명 증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개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특수보조원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증가했고 또 아울러서 특수학급 25학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에게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증가한 겁니다.

● **김부웅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다?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책정을 한 걸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일인당 연간 1,321만원으로 되어 있고, 요번 예산에서는 1,10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퇴직금도 당초에는 110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91만 8,000원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그 추가 예산은 3월부터 2달이 빠져있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월중 단가는 같다는 그 얘기죠?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보조원의 자격이 있는 건지

요?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현재 특별한 자격은 없고 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특수교육보조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특수교육보조원이 하는 일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보조하는 활동 식사시간 또는 용변 또는 생활지도 또 교사들의 자료제작, 수업보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당초에는 그 인원이 한정됐다 추경에 20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당초보다 추경할 때 그 장애학급 숫자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학교뿐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업무를 맡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맞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이 보완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 곽정수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특수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옛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모이다가 지금은 많이 분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생이 있다고 해서 다 특수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특수학생 수는 조사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분산이 될지 예상이 어려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이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사명감이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필요한 부분 공익요원을 많이 신청해서 하기도 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올해도 33명 들어가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33명의 공익요원이 지금 여기 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예

● 곽정수 위원

좀 공익요원 대체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실은 좀더 많은 공익요원들이 이 일에 와서 봉사도 하고 장애도 이해를 하고, 또 사회통합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 젊은 공익요원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면 우리 교육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익요원을 좀더 많이 확대 활용하는 쪽으로 또 우리 물론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 인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135쪽부터 143쪽 사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증감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지자체 대응투자사업 및 2007년 특별교부사업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방과후운영 활성화 경비를 보니까 교육청별로 1억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는데 대응투자 지원금으로 봐도 됩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부웅 위원

135쪽, 136쪽, 137쪽 나오는데 136쪽에 보면은 교육청별로 1억원씩 쭉 나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으로 봐도 괜찮겠느냐 이겁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부분은 대응투자와는 상관없이 방과후학교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에듀코어스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금 방과후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규모에 따라서 군단위에는 중학교 1개교, 시 단위에는 시 규모에 맞추어서 학교 수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쭉 넘기다 보니까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이런 사업명을 가진 사업이 여러 군데 나오던데 지역교육청별로 지원액을 보니까 청원군은 980만원, 보은군은 530만원, 영동 1,870만원, 진천 2,139만원, 단양 2,788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부 차등해서 차이가 많이 나도록 세배씩 차이가 나도록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1,000만원씩 지원센터에 일괄 배분한 것은 지자체전입금이 전입되기 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일괄에서 1,000만원씩 지원한 것이고, 교육청마다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지역교육청마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 수급 여러 가지 활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활동이 활발한 지역교육청에는 더 좀 많이 가고 활동이 미흡한데는 적게 가도록, 그렇게 이해 됩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 **김부웅 위원**

그럼 보은교육청 많이 혼나야겠네요. 530만원이 뭐예요.

보은 관리과장 계십니까?

왜 다른 데는 2,783만원 즉 한 5배 이상 받아 가는데 못 받아 갑니까?

그 다음에 거길 자세히 읽다보니까 진천교육청 오셨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원센터 전담인력 경비가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진천은 전담인력까지 필요한 겁니까?

● **간사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간사 서수웅**

아까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에 에듀스코어스쿨이라고 들었는데 16개교에 16억원을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이 에듀스코어라는 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1개 군에 작은 군에는 한 학교, 시에는 두 학교, 세 학교 줬는데 그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거점학교, 중심학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 **간사 서수웅**

글쎄 그 설명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한 학교 거점학교로 만들었을 때 거기 가서 방과후교육을 받는다 다른 학교아이들도

● **교육국장 김종근**

예,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럼 거기 한 학교에 1억씩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1억씩이면 요게 몇 개월 분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금년도 분으로

● **간사 서수웅**

그럼 아직은 안된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종근**

안된 겁니다.

빠르면 6월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럼 한 6개월 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예

● **간사 서수웅**

그런데 이게 그 학교는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학교는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잘 맞아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요것은 그 지역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인근 학교 거리관계 학생 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텐데 저희들이.....

● **간사 서수웅**

통학문제도 그렇고요.

● **교육국장 김종근**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통학방법은 지금 대표적으로 단양에서는 단양중학교에서 또는 단양초등학교에서 관내 학교를 전부 후송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다수 학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게 얼핏 생각하면 일부 학생만 인접학교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먼 데 애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차라리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똑같이 해서 지금까지 학교마다 나가는 게 있죠, 방과후활동지원비가.

● **교육국장 김종근**

방과후활동지원비는 학교별로 일괄 배부하는 건 없고요. 특수목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활동비, 벽지학교지원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치는 있지만 아직 사례는 없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하기 적에 기본적인 사례는 단양에서 하는 그 에듀토피아 단양 프로그램을 모델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겸해서 제가 지금 139쪽 전후해서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것은 우리 본청의 예산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라기보다, 지자체에서 온 것하고 대응투자금액을 합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요청한 예산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천하고 단양에 전담인력을 계상해 놨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없더라고요.

그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진천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례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래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3억 5,000 대응투자와 우리 국고에서 3억 5,000 해서 7억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억 5,000 중에.....

● 김부웅 위원

전담인력이 필요하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례

전담인력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 김부웅 위원

다른 교육청들은 전부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보니까 단양은 40일을 잡았어 1명을 그런데 진천교육청은 8개월을 잡았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다른 잡은 것보다도 더 많이 잡았고 안잡은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당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석할까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도 많고 지역교육청의 업무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처음 추진할 때도 예산이 허용하면 보조인력을 써서라고 선생님들한테 집중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단양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장으로 있을 때 일을 추진하면서 중심학교, 거점학교 뭐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급식까지를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형편이니까 그 업무가 너무 막대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하나 써서 하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 김부웅 위원

지자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여유가 있으니까 전담인력을 썼다, 다른 데는 그런 여유가 없어 못썼다.

● 교육국장 김종근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느냐 학교로 그냥 배분해 주고 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돈도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추진단협의회라는 게 교육청마다 전부 있더라고요, 그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청원군 20명, 보은 15명, 영동 30명, 진천 20명, 단양 20명 대개 20명 단위인데 이게 인원이 많고 적은 의미가 있을까요? 15명 배 차이가 나는 30명하고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 추진단은 각 교육청별로 지역에 인적 구성이나 사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부웅 위원

보은이 제일 예산도 적은데 15명이고 영동은 예산이 많아서 30명이 아니라 예산도 별로 안많아서 30명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본 겁니다.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비를 책정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싶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거길 짚었습니다. 더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으로 갑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주사무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증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84% 증액한 이유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총의 사무실 집기가 매우 오래 됐고 컴퓨터도 구형이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근데 문제는 청주사무실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괴산사무실, 증평사무실, 음성사무실 할 때 지원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사무실이 되어 있는 데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고요.

● 김부웅 위원

앞으로 한다고 봐야죠. 청주사무실 두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자체 해결을 유도 해나가야지, 글쎄 우리 아까운 예산가지고 이런 데 내는 건 조금 생각이.....

● 교육국장 김종근

그 점 저희들도 매우 걱정이 되어서 타 시·도의 경향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교원단체의 균형관계 이런 걸 살펴봐서 타 시·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이따 별도로 다시 요걸 보충질문을 제가 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사업이 있는데 대상학교가 11개교에서 22개 학교로 확대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예산은 1억 4,607만원에서 3억 6,847만원 즉 50%가 아니라 152%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체의 인력으로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만 이렇게 실시한다면 별도의 경비가 안들어도 될텐데, 지금 수준을 2개 수준에서 3개 수준으로 늘려서 실시할 경우에 예를 들어 영어가 선생님 두 분인데 3수준으로 나누어서 하려면 세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그 인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학교나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편성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신청된 학교를 편성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통상 예산서를 볼 때 사업이 두 배 늘었으면 예산이 두 배는 느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두 배반이 늘었길래 그래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173쪽을 봐주세요. 거기서 173쪽부터 175쪽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비가 있는데 외빙초청여비가 2,010만원, 또 국제교육

협의회 참석경비가 1,216만원이 신설 계상됐어요.

당초 예산에 보면 국제교육과학문화 교류협력 지원경비가 8,9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를 그동안 선생님들 연수를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뉴질랜드, 호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나 필리핀 등 영어상용 국가까지 확대해서 교원 현지 어학연수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목적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965만원과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당초 예산하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 교육국장 김종근

당초 예산은 현지 어학연수 가는 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쪽에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외빈을 초청하고 서로 협의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뉴질랜드교포 자녀초청 숙박비와 식비를 산출한 기초를 보니까 좀 자잘한 것 같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숙박일수가 식비일수보다 하루 적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같아요. 괜찮은 겁니까?

뉴질랜드 거기 174쪽을 보면 식비, 숙박비 14일이 똑같이 같다는 얘기예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에 가정방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부웅 위원

대개 숙박이 14일이면 식비는 15일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같이 14일이 되어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그런데 가정방문기간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거기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 김부웅 위원

안먹고 간 거지 이걸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하면 안먹고 가는 걸 가정방문기간에, 자잘한 거지만 한번 짚어봤는데 이런 것이 언뜻언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을 보시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다가도 12시가 되면 끝내 주세요. 저는 나중에 보충시간을 얻을 테니까 아무리

봐도 반도 못하겠어요.

● 위원장 정무

점심시간을 12시 30분까지로.

● 김부웅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시면, 아까 곽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보충시간을 놓쳤어요.

82개교를 평가해서 미흡교 10개를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서서 167쪽을 보면 선도학교가 400만원, 우수학교가 300만원, 장려학교가 200만원이야, 근데 미흡학교를 3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장려라고 소위 입상한 학교보다 미흡학교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미흡한 학교가 빨리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취지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저 같으면 신경 안쓰고 가만 내버려두겠습니다. 당첨이 안되면 더 많이 받는 걸 뭐 하러 그걸 신경을 써요. 이런 게 언뜻 보면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장려학교가 200만원이면 미흡학교는 100만원정도 이랬으면 모를까 더 많이 받으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께요.

209쪽을 봐주세요.

전문계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발행비 1억 5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권수를 보니까 4만 9,758권을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만 9,758권이나 발행한다고 그러면 기정예산액 3억 7,262만원하고의 용도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이 전문계고 교과서는 다중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발행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 12월에 지방재정교부금 개정 및 초등·중등교육에 관한 사무 및 사업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는 전문계고 전문교과용 도서에 대한 발행비중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용 도서발행비를 지원하는 계열별 교과서 명칭이 농업계열은 농산물유통, 원예, 기술 등 38종이고 공업계열은 기계, 일반, 공업, 화학 등 94종이고 상업계열은 사무자동화, 일반, 기업회계 등 15종이고, 가사실업계열은 관광영어나 식품과 영양 등 23종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농업계열 38종, 공업계열 94종, 상업계열 15종, 뭐 23종 해서 이게 4만 9,758권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 속에는 기정예산액 3억 7,262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하는 1억 548만원만 가지고서 전체 발행하는 건지 거기 중복성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 예산에다가 1차 추경을 더해서

● 김부웅 위원

교재내용을 충실히 하게 하는 거다 권수는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겠는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사업이 우리 자체가 개발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전체를 개발하는 걸 그동안 전문계고는 과목이 소량이 많기 때문에 출판사업체에 부담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부담해오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 김부웅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읽어봐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정보화과 241쪽을 봐주세요.

교육정보화과 넘어가고 평생체육과가 되네요.

학생수송용 버스 임차료가 241쪽이 되네요. 1억 8,000만원이 1개월에 300만원씩 여섯 달을 임차한다면 그 수요가 적을 땐 버스를 세워두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학생문화원 쪽의 예산은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하시죠.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추진담당사무관 양개석입니다. 과장님이 민원상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이 7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중에 단체학습을 위한 학생수송용 버스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오창, 진천 가는 방면 국도 변에 있습니다만 별도의 버스의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학습 예약이 들어오면 학생들 수송하기 위한 것이고요.

단가가 월 300만원 한 것은 단체학습이 월 한 15회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해서 지

금 청주, 청원지역 버스를 계약을 하면 25만원정도 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라 쓴 것은 기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임대하는 거를 하는 거다?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그렇습니다.

월 예약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 김부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해놓으면 수요가 적을 땐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180일 기준해서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연장준비해서 피아노가 1억 자리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회관설립담당사무관 양개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연장은 천 석이상 규모의 학생들 공연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공연을 위한 대관을 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고급 그랜드피아노가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지금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생들한테 전문 피아노 음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대관할 때 전문 피아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5,000만원자리 피아노보다 1억 자리 피아노 소리가 더 낫겠죠.

360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운영 지원인데 사립학교 통학차량 구입비가 7,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공립학교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구비되지 않은 데가 많은데 사립학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립학교도 지금 버스를 통폐합학교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 뭐 특이한 경우만 주로 대주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 버스의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데 사실상 우리가 특수학교가 저희들 도내가 다른 도내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지금 통학교육을 위

해서 각급 학교에 자유대로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로 특수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좀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로 스스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내리기가 어렵고 또 일반버스로는 수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을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각종 특수학교법인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공립학교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시설도 인건비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성심학교가 BTL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을 함과 동시에 학생수가 약 60여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두 대 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천청암학교 5,700만원, 꽃동네학교 1억 2,800만원, 성신학교가 7,400만원 이미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재단자립도가 아주 영세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세명고 기숙사 문제가 있다가 나올 텐데 거긴 재단이 상당히 건실한 재단이에요. 거기도 막 하는 판이면 이건 아니죠. 있다가 다시 그건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을 봐주세요.

영동교육청에 공동사택을 짓는데 감리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천교육청에는 수산면 지역의 공동사택 감리비가 4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감리비를 계상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감리비를 넣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리비를 우리가 공립학교에 지원해 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감리비 예산을 지원해 줬었는데, 올 추경예산부터는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의 감리비를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부터 5억 이상 되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별도 전문감리단에게 위탁을 해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저는 작은 액수지만 대개 5억원 이상

되는 학교에 감리비를 넣고 그 이하는 자체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동보니까 4억 7,000정도의 사업규모이고 제천은 2억 8,000정도의 규모인데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길래 괜찮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385쪽을 좀 봐주세요.

시설과장님 조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맨 밑에 보면 삼수초등학교 BTL사업으로다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 내용하고 3억하곤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BTL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진천 삼수초등학교하고 옥천중학교 BTL사업인데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 삼수초등학교 거를 제가 여쭙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느냐 하는 걸요.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협약 체결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질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거기서 조금 제 의견을 낼께요.

거기 초등학교에 관련되는 인사들과도 제가 같이 삼수초등학교에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알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 다목적실 지을 부지가 마련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자기 학교 땅이 옆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연 녹지가 되어서 군청에서 허가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쓰고 영 허가를 못 내고 저러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군청에서 자기들 거기다가 사업을 하더라고요. 도서관 짓는 사업을 진천교육청도서관 뒤에다가 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같은 녹지야 그래 자기들 사업은 하면서 학교 사업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요새 내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위원장 하시는 장두식 의원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같이 저하고 뜻이 같은 겁니다.

지금 급식소 위에다가 다목적실을 지었

을 경우에 지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식당 위에 체육관이 있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차차 10년 이후면 그 아래 있는 건물들이 위로 올라가야 할 때가 생기는데 지을 자리가 또 없어요. 강당을 지어놓으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 **시설과장 안세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사업을 포기하자고 그러는 쪽이 지금 많이 있는데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삼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급식소 증축할 때 위에 건축할 때 급식소 위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삼수초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재배치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운동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시설이 전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운동장을 위아래 바꾸면 그때 가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문제는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꼭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암이 될 것 같아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상산학교 강당을 연못 좋은 걸 없애고 지어놨거든요. 지금까지 졸업생들 모이는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이 저기다 저걸 지었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교사위원장하고도 저하고도 같이 한번 의견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395쪽부터 407쪽 사이인데, 냉난방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 EHP냉난방기하고 개별냉방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EHP냉난방기는 대부분 전기로 해서 천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이고, 개별냉방기는 실내에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에어컨들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개별냉방기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비싼 거요?

● **시설과장 안세열**

그 EHP가 더 비쌉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요.

내가 잘 몰랐나, EHP가 730만원 개별냉방기가 300만원, 그렇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EHP는 냉난방이 동시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냉방기는 난방은 안되고 냉방만 되는 거기 때문에 쓰임새가 그것이 틀린 겁니다.

● 김부웅 위원

냉방기 있는 데는 나중에 또 난방기를 또 해야할 것 아니에요.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 내지 다른 방식으로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EHP를 설치 못하고 개별냉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 하겠네요.

396쪽을 보면 삼산초등학교에 역사관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오래 전에 향토문화박물관이라는 게 그전에 시·군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게 그거의 일환이 아닌지 모르겠네.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입니다.

삼산초등학교가 보은군의 중심학교로써 내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 교실이 한 1.5실 여유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 역사사료관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전에 삼산학교에 향토사료문화박물관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옛날에 있었죠.

● 김부웅 위원

그게 어떻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지금 그거는 박물관 자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 김부웅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없어졌고.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그리고 그 자료일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8,000만원 들인다는 얘기죠. 먼저 있던 것도 보관 못한 상태인데.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그때 박물관 자리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은 본관에다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 각 시·군에 향토사료박물관을 보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만든다니까 제가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부웅 위원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 데마다 전부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됩니다.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구

보은에서 지역 중심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상산학교 교장할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다가 그냥 자체 예산으로 조금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금방 없어질 형편이 됩니다.

역사관이라고 만들어봐야 이용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문 잠그고 있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고를 좀 해 주세요.

397쪽을 보시면 구룡초등학교 사택 증·개축 사업에 7,65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장사택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재해특교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택 개축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교장 사택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 살고 있나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볼께요. 영동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택 증·개축비, 담장설치비 이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인근에 도시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택 증·개축비로 1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택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살 때는 꼭 필요합니다. 전근을 가요, 그 다음 교장선생님이 안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1년, 2년 방치가 되거든요. 또 들어가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이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차제에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억 이상 된다고 그러면 증·개축해 봐야 한 20평 자리 요런 걸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지금 드려보면서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요건 제가 5월 행정질의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게 엄청 많아 봉양중학교, 대가초등학교, 증평 사립학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제가 간단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 김부웅 위원

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택의 활용빈도가 교장선생님이 집에서 다니시느냐 통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입주를 하시는 때가 있고 공가로 비워두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연말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신청을 받을 때에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 이거를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택 내지는 조금 재해의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처음으로 특교를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29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일괄로 예산이 시달됐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교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줄 바에야, 우리가 다소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은 사택이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부다 고치자 이래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낡아서 들어가지 않았던 근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자택을 사용하시던 간에 빈 사택까지를 우리가 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입주를 안하시면 직원들이라도 입주를 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 말씀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재고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별책 여길 보니까 요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별책을 보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1실에 1억 1,000만원정도가 되어 있고 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옥산중학교는 2,530만원이 보수비고 보광화곡분교는 5,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단가가 틀리는 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실 보수단가.

● 시설과장 안세열

화장실을 보수하다 보면 배관과 칸막이라든가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변기만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 김부웅 위원

신설하는 경우는 똑같은데 그게 틀리길래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중학교 거는 2,500만원 초등학교 거는 5,700만원.

● 시설과장 안세열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 학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 김부웅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433쪽, 거길 보면 연간 6만명이상이 관람하는 곳인데 필름 세 편으로 운영했다고 사업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99년 이래로 한 번도 재투자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 담당자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요?

433쪽입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 김부웅 위원

433쪽에 그 사업이 약 4억 9,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얘기를.....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 설치된 것이 개관연도에 플라네타리움과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설치 당시에 저희들이 필름방식으로 옵션에 들어온 것이 세 편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날로그방식을 세 편을 계속 상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디지털로 바뀔 때도 되었고 현재 영사실에서 쏘고 있는 것이 5,000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두어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시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터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99년 개관이래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개관이래 필름영화 세 편으로 운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동안에 필름대여료가 편당 2억 5,00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방할 때 지금 현재처럼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방된 것은 3년 전서부터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10년간 다녀간 학생수가.....

● 김부웅 위원

6만 명이라고 써 있어요.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리고 1년간 다녀간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한 5,6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도 세 편 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99년이래 약 10년 동안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 무관심했던지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는 세 편 가지고 주기적으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필름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 전체 쏘아주는 프로젝터가 5,000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림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시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력보호라든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적용을 하면 현재 편당 1억 5,000 내지 2억 5,000 가는 것을 한 이,삼천이면 쉽게 필름을 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10년간 방치했던 것 갑자기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제 눈에 뜨인 건데 아무튼 저를 한번 나중에 설득해 보세요.

495쪽 봐주세요.

영동교육청의 학생교류 해외체험 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아주 우수사례로 추천도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청 계십니까?

상당히 우수사례로 제가 알고서 본청에 보고도 하고 그런 건데 선발과정에서 정말 우수 인재가 선발되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잘하고 계실 테지만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소리가 조금 들려서 그러는 겁니다. 친한 사람 간다고

그 다음에 547쪽요.

547, 548 보면 지역의 공유재산관리문제에서 음성교육청에 1억 605만원에 문닫은 학교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이게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아요.

향후에 문닫은 학교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문닫은 학교의 관리하는 대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리에 들어가느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닫는 학교 중에서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학교는 그래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설의 노후화가 조금 덜하고, 완전히 학교를 비어놓은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학교도 어차피 기본 관리는 우리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도록 이렇게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특히 방수 부분이 한번 잘못되면 부수적으로 또 기타 시설이 더 덩달아 이렇게 시설이 더 열악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거를 수리를 합니다만, 예산수지 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수리를 안하고 방치를 해 두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만 또 재산관리 측에서는 그거를 방치면 해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인근에 마을이 있고 그래도 거기에 많은 주민들의 향수가 젖어있는 시설들을 무한정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 음성교육청 같은 경우에 돈도 많지 않은데 1억 이상씩 쓰지도 않는 건물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규정에 허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없애는 정도로 영 안쓸 바에야 임대도 안나갈 바에는, 그래서 그 재산유지 관리비가 안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지역단위 순회교사제 운영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기 맨 밑에 진천교육청은 2,320만원이고 괴산교육청은 780만원 약 3 대 1 수준인데 왜 진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순회교사, 진천이 순회교사 괴산보다 많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순회교사 숫자는 그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진천보다 괴산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3분의 1도 안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괴산이 오히려 많아야 할 텐데

● 교육국장 김종근

질문하신 정확한 근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못드리겠고요, 다시 자료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37쪽, 내 고장 공부 개발보급 예산도 교육청별로 쭉 나와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괴산이 680만원이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됐어요.

괴산교육청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거 부실한 교재 나오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이건 본예산 겁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건 추경에 나왔길래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642쪽 이것도 기본 예산이고 648쪽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 577쪽 이후에는 본예산 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 김부웅 위원

추경도 더러 들어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집계가 포함된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요.

마침 저한테 시간도 딱 됐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문 나머지 하겠습니다.

관계관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무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인사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수입이 임대료 또 매각료, 건물매각, 토지매각, 기타유형 자산매각이 이렇게 있는데, 63쪽에 보게 되면 건물임대료 수입이 당초 대비 207억입니까?

그만큼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청원에 문의 구룡분교장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6년 12월 22일 제199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하기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되지 않고 임대수입으로 계상된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동이초 청마분교장의 경우도 2007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7년 4월 13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것도 역시 매각 의결된 사안으로 알

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둘 다 매각 대금이 아니고 임대료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의초 구룡분교하고 동의초 청마분교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문의초등학교 구룡분교는 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의 숙소훈련소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매수를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처분절차를 밟았었는데, 경찰청 사정으로 인해서 전투경찰대 이전사업이 원천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쪽에서 전투경찰대의 운영관계상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지방경찰청에서 매각을 완전히 취소하는 걸로 했고, 그 이후에 또 임대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옥천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는 옥천군청에서 아마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2006년도, '07년도에 임대를 주던 사업들인데 결국에는 군청에서 그거를 매각을 못할 사정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2006년도, '07년도에 계속 임대하던 분들한테 그것도 계속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본예산 지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설명을 들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각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까지 가서 매각하도록 의결해 준 건데, 그럼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관청끼리 어떤 단계든지 계약단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임대료 주고 말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앞으로 매각결정이 된 건데도 매각할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로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개 경쟁을 하면 될 수도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폐교재산을 팔아봐야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교재산을 안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으면 다시 임대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 되겠습니다.

98쪽에 교육홍보기획에서 1의 가번 대중교통이용 교육시책홍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위원이 되고서 처음에 각 시·군에 가서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버스에 교육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거의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좋은데 일반 대중교통에다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동기가 무엇이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버스는 100%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지역은 학교버스도 드물고 행정용 버스도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교육시책 자체가 교육 내부적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 중에 기본이 바로 된 학생이라는 이런 부분은 교육내부에서 보다도 시민들 협조도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내버스에다가 한 20대 정도를 홍보문안을 한번 게시해서 홍보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 간사 서수웅

글쎄 그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거말고 우리 자체해서 발행하는 홍보매체도 상당히 있잖아요. 충북교육이라든지 교육소식지 뭐.....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뉴스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교육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분들 정도밖에 이용이 안되어 가지고 일반인에게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중 방송하고도 협약을 한번 해서 송출을 한다든지 또 대중교통수단에다가 홍보문안을 게시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간사 서수웅

글쎄요, 그 의도는 참신한 맛은 있기는 한데 일반 버스나 대중교통 택시 같은데 보면 거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의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우리는 홈페이지도 있고 한데 그건 일

부 관심 있는 사람만 보니까 교육에 크게 관심 없는 일반 시민에게도 교육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단 말이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글쎄 이게 의도하는 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조금 가고, 하여튼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유아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애초에 2명을 예상했다가 갑자기 추경을 할 때 8명이나 증가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8명을 더 증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수가 저희 도내에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중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해외 유치원교육을 견학하고 또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2명이라는 것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1%까지는 확대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10명으로 이렇게 8명을 더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그 정도 %를 확보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고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더 많이 2명에서 8명이나 증원시킬 그럴 무슨 사안이, 처음에는 2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해외연수는 교육과학부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해마다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어서 1명 내지 2명만 실시가 되어 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0.2% 가지고는 해외 전문 유아교육 전문지식을 얻는다거나 또 선진 해외유치원교육을 이렇게 견학한다는 것이 너무.....

● 간사 서수웅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 위에서부터 배정된 인원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올해부터 증원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 간사 서수웅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걸 했더라면

좋았을 걸 시차적으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많이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4쪽입니다.

이게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게 먼저 번에 현장에 설명을 들으러 과학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 사업설명을 해준 봐도 없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아마 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좀 해라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이석임 장학사가 와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담당장학사가 계획이 미숙했습니다하고 와서 지금 요걸 다시 한 걸 보니까 보완을 했어요.

보완했는데, 여기서 얼른 봐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숙사를 신축하고 그 기숙사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영재교육교실 7개 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보면 기숙사신축비만 들어 있고 리모델링비는 안들어 있는데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시기를 보면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죠?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운영시기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2010년으로 되어 있으면 올해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내년은 그냥 묵혀놓고.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올해 기숙사를 신축을 하고 내년에는 7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정식운영은 2010년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렇다면 이게 영재교육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했으면 리모델링까지 요번 예산에 넣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리모델링까지 예산이 안돼요?

왜냐 하면 기숙사를 그렇게 19억인가요, 2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1년을 묵힐 바에야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짓던지 올해 안되면 내년에 짓던지 해야지, 20억씩 투자해놓고 왜 1년을 묵힌다면 조금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 교실하고 기숙사 증축을 동시에 하면은 고등학교 애들 수업도 소음이 일시에 나기 때문에 소음기간도 적고, 공사도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사 신축하는 기간

과 교실 리모델링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기숙사 2동 12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리모델링은 소요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리모델링은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에 들어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기숙사보다 그렇게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차를 두고 예산을 투자하고자 해서 당초에 2010년도를 목표로 하는데, 2010년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는 지금 추경으로 시작을 해야 겨우 공기를 맞출 수가 있고 리모델링 분은 2009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같은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다, 비슷하게 갈 수 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간사 서수웅**

그럼 기숙사가 올해 추경예산 해도 내년까지 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저도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말씀하세요.

● **곽정수 위원**

담당장학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의 얘기가 이건 교육감님 선거공약사업입니다라는 얘기를 첫 번에 달아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좀더 친절하게 이거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교육감한테 사실은 누가 되는 일인데, 담당장학관이나 담당실무선에서 뭔가 사전에 충분히 서로 교감을 주고받은 다음에 뭐가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도 설명을 현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미숙하고 뭐라고 그럴까 거칠기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걸 이반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는 정도로다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사국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담당관이나 장학관 그 날 뭐했냐 그랬더니 다른 연수이나 이런 거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사국 일정에 그런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더 성의있게 접근을 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마치 그냥 통과의례로 그거 뭐 제출만 해

놓고서 그냥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눈빛이라면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공기를 금년에 추경에 하고 그 공기 중에 또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두 개의 공기가 맞아떨어져서 후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재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시기로 봤을 때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19억씩이나 들여가지고 1년 동안 묵힌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설명을 듣고 해서 그런 쪽은 해소가 됐고, 또 담당장학사가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기획이 잘 안됐다라는 것을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토요일, 일요일 와서 기숙을 하느냐 그냥 당일 와서 그냥 받고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정도로 미숙했던 게 좀더 세련되게 기획을 다듬어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하러올 수 있을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지 이게 나름대로 그 사업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다라는 그것만 타이틀 붙여 가지고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해서 예산만 탕진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그리고 이게 전국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모범사례로 뽑고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저도 한 마디,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제목이, 저도 초등교육과에 근무를 해 보고 당황한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사랑관 하는데 초등교육과에서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설립에 대한 것, 지금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건 초등교육과에서 한다는 게 무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문 부처인 시설계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초등교육과에서 이걸 설립을 하라니까 알지는 못하지 바쁜데 물을 수도 없지, 참 초등교육과의 애로점이라면 뭐든 맡기면 초등교육

과에 무슨 건축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고는 하지 이런 면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운영방안 당일 장학사님 아까 곽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라도 잘했어야 하는데 너무 어설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만 대부분 현장방문을 나가면 사전준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라든지 설명이 잘되어 있어서 좋은데 유독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는 어째 불친절하다랄까 그런 감이 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나갈 때 알기 쉽게 모르니까 자꾸 질문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답변하는 분도 너무 미숙해 가지고 질문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답변 좀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서수웅**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146쪽입니다.

오전에 423쪽에서 한글사랑관을 보수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방으로 운영한다 거기에 5,7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146쪽에 보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조성 해 가지고 이거는 청주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주고 10개 지역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이라면 우리가 하면 좋은데 이걸 보니까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여성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끝에 가서 겨우 한다는 게 한글문화교육을 거기서 겸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다면 얼핏보면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자칫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우리 교육계통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사전에 잘 지도하라 그렇게 되고, 각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가정 지도센터를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대부

분 지역 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다문화 센터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되, 다만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면 여기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글 및 문화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가서 지도는 그쪽의 각 시·군마다 한글상담원도 있고 한글 지도하는 요원들을 따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다가 우리가 보태는 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참여하는 겁니다.

● 간사 서수웅

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정출신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최초에 이걸 거론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긴 한데, 이 계획만 보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일부는 지자체로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지도교사 연수경비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쓰기도 합니다.

● 간사 서수웅

요 예산범위 내에서요?

● 교육국장 김종근

지도자료도 발간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인데요.

반기문영어경시대회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서 있는 예산이 5,288만 2,000원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지원 못 받았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가 1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우리 자체 투자액이 더 증가된 액수입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강사지원수당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게 1,495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그 기간동안에 증액해야 했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사가 아닌 교사가 산업체 특별학급 야간수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당 23시간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교사에 대한 1시간당 강사비가 '96년부터 12년간 만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 특별학급의 강사수당을 방과후 교육활동 평균 수준인 2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산업체 특별학급은 5학급으로 주당 총 수업시수가 110시간인데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교원 5명이 87시간을 수업하고 나머지 부족한 23시간은 해당교의 교원이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26주를 지원하는 이유가 총 39주중 5월까지의 13주는 기존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26주는 인상된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간사 서수웅

그전까지는 만원씩하고요.

●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입니다.

학생체험학습실 운영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여쭤보기가 그렇긴 한데 학생수용버스 임차 1억 8,000만원인데, 이제 체험학습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인가도 높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원도 안한 상태이고 개원해서 해본 것도 아닌데 예측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관심사로 체험학습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런 버스가 없어도 선착순 가까운 데서부터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해보시고 문제점을 보완한다거나 수요자에 대해 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가까운 데 아이들이나 먼 데 아이들이나 다 관심을 가진다고 그럴 때 많은 수요가 됐을 때 어떻게 선별해서 이

것을 버스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체육교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나 지역사회 주민들, 학생들을 수송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 수송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됐을 때는 차후 검토해봐서 다시 재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를 안해도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할 때 시내 가까운 학교나 버스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골에 그 버스를 가지고 오는 학교부터 먼저 해도 수용이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만일에 체험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가려 가지고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부터 수용을 하다가 웬만큼 된 다음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많이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 잘못했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청주 시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생문화원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타 시·군의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야될 그런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주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있는 학교들이 군소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를 풀로 계약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어느 학교는 1대, 어느 학교는 10대 뭐 이렇게 학교마다 짬뽕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 답변이 아주 명답이네요.

10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조정하겠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평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에

서 산정을 보니까 내수중학교 경우는 15.5실인데 수변전설비가 4,400만원, 오창중학교는 13실인데 1억 1,1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냉난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전기계약 용량이 교육용과 심야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두 가지가 합해서 1,000키로 이상이 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기설비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창중학교는 현재 전기계약 용량이 교육용 150㎾, 심야용이 750㎾로 총 900㎾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용 용량을 증설하게 되면 전체 계약용량이 1,000키로를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야전기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변전설비로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내수중학교는 교육용 150㎾, 심야용 600㎾로 기존 용량중 교육용 전기만 증설하여도 냉난방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변전설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차이 엄청 많이 나네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야냐 그냥 일반용이냐 그게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개선방안이 없는 전혀 거예요?

● 교육국장 김종근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일부러 이렇게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 간사 서수웅

지금 사용하는 전력 그거를 다시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변전설비는 학교 전체 시설용량을 감안을 해서 1,000키로가 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준단가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실제 현황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까지 난방이나 냉방방식이 일정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수월한데 계속 해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답변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 추진 및 운영에서 앞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앞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되는데, 개원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원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금액이 책정을 해보니까 3,0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지, 3,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원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책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학생문화회관설립추진단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7월중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원식을 해야 합니다. 개원식하는 소요예산을 각 이벤트하는데 수요를 받아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개원하는데 따른 경비로써, 저희들이 식전행사로는 각급 학교 학생동아리라든가 예술고등학교를 활용해 가지고 학생문화축제행사를 식전행사로 하고 다음에 개원식과 각종 해당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내외비는 초청경비라든가.....

● 간사 서수웅

그러면 개원에 필요한 다른 행사비용은 없고 그게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다?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예, 한 단위로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개원행사 업무추진비로.

● 간사 서수웅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개원에 따른 제 경비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느낌이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개원할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그 모든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포괄해서 개원식 준비에 같이 포괄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 **간사 서수웅**

큰일났네 깎으려고 했는데, 전체 삭감이 아니라 너무 많다 그래서 깎으려고 그랬더니 그런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손을 안대는 건데 업무추진비라고 해놨으니까 개원에 업무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문화회관추진단 양개석**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간사 서수웅**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깎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최소 경비로 산출된 겁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본청 시설 중에서 1급 관사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심각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교육감님 관사가 이번 예산안에 보면 원어민 숙소로 기숙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육감님이 거주하건 안하건 관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감님 관사를 반드시 매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비좁기도 하거니와 에어컨 없이 사는 분 그분 하나랍니다. 청렴하기로 인정을 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교육감을 입후보하실 때 관사에 안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라는 것은 사저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집에서 겸해야 하는 그런 관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혀서 우리 교육감님 정말로 아주 좋은 저택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공헌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존경을 더 높이 받는 분인데, 지금 그 관사가 없어지면 이분이 안살더라도 그 다음 분이라도 오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도 옳고 다 타당성은 있는데, 이 양반이 앞으로 2년은 보장된 임기란 말이죠. 그 기간에는 안사실 게 뻔한데 이걸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해 놓고 나도 들어가 사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 이미지가 그게 도움이 안돼요.

그래 내가 교육감님한테 나쁜 소리를 듣던 어쨌든 저는 요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매입을 이렇게 계획한 그 배경설명이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서수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관사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사가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상당히 괜찮은 장소였었는데, 그 인접되어 있는 이웃 바로 경계에 4층 건물 들어가 있어서 건물에서 내려다보면 안방이 전부 내다보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방도 내다보여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관사로써 사용하기는 어려울뿐더러, 그 관사를 드나드는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이 전부다 그 여러 세대 사람들이 전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세 교육감님 계실 때도 그 관사를 처분하고 다시 이전을 하려고 물색을 많이 해오던 중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김천호 교육감 시절에도 그거를 이전을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정한 단독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았었고 또 예산사정도 뚜렷하게 지을만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제천시에서 그거를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협의가 되어서 한동안 위원님들한테 처분승인까지 얻어서 절충을 해 봤는데, 제천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제천시에서는 의회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임의대로 처분을 해도 좋다는 응신을 받고, 일단 제천시청에서 매입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3대에 걸쳐서 사용하던 관사를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관사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과연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던지 간에 자연인 아무개를 위한 관사가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감을 위한 관사는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이반을 하게 됐고, 마침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나 우리 교육감님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교사들 그분들을 많이 양성을 하거나 그분들 채용해서 우리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숙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일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들 숙소도 문제가

되어서 그거를 마련해 줘야만 그분들 확보가 쉽고, 어차피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하시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 이 될 바에야 관사를 용도 폐지된 관사를 없애서 거기다가 외국인교사 숙소를 짓고, 차제에 교육감관사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말씀들은 대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외국인 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국인 숙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짓고 운영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도 나올 테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어떤 기대치나 목표를 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급 관사 매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예, 말씀하세요.

● **곽정수 위원**

중앙여고에 금년도 예산에 기숙사 설립 문제가 지금 중앙고, 산남고, 주성고 3개교가 올라와 있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중앙여고의 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자리가 중앙여고 생활관 부지인데 그 자리에서 보면 교육감관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번 지으면 그 용도가 50년이 가는데 50년 동안 교내에다가 이런 기숙사 시설을 놓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교육감님 관사가 용도가 폐기가 됐으니까 그 자리에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중앙여고 교장의 답변이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교장선생님한테 아마 교육감이 먼저 여기다가 중앙여고 기숙사를 지으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은 여학교에 무슨 기숙사까지 지으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지 동의를 안하셨던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강봉 교장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걸 바깥에 짓는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 짓든 안에 짓든 지어만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기숙사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인문고등학교 기숙사도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잘 절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여고의 기숙사부분은 역대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생각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고, 전 전임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밖에 기숙사를 지었을 때에 운영 면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거기다 기숙사를 짓자고 그랬는데, 학교 밖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낮에는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전임교장선생님은 염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원어민 교사를 짓는 과정에서 중앙여고에 마침 기숙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숙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고, 또 마침 생활관이 지은 지가 한 20여 년 됐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쳐서 생활관과 기숙사를 교내에다가 짓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관사부지가 중앙여고하고 가장 밀접하고 길 하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앙여고에서 학교에서 쓰기로 말하면 가장 유용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학교가 기숙사가 밖에 있을 때 관리도 우리가 다소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기숙사가 순수하게 학생들이 기숙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늦게까지 자습을 하든 선생님 지도를 받든 늦게까지 있다가 거의 잠만 자고 또 아침하고 저녁식사 정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별도의 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다소 있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야 그러면 생활관 쪽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주고 지금 현재는 원어민 교사들 숙소를 짓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먼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 접근성이라든가 학교에서 생활의 편의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다음에 326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지원에서 공립초등학교 운영지원 계획이 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26쪽에 충청북도교육청 나항에 공립초등학교 6학급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46쪽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지원을 보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4학급분으로 되어 있어요. 큰 건 아닙니다만 앞에 학급운영 지원에는 6학급, 교재교구

지원은 4학급 그 차이가 나는 2학급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2학급 차이가 나는 것은 복대초등학교에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초등학교에는 본예산 작업 시에 특수학급 배정이 되지 않아서 특수학급 운영비를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 간사 서수웅

특수학급 운영지원은 6학급이 맞는데 2학급은 교재교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저기 성화초등학교는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모르니까 차이나는 게 의심이 갖고요.

그 다음에 364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매입에서 단재교육원 부지매입 그 다음에 괴산중 사유지 매입 이런 매입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괴산중학교 급식실과 후관 일부의 부지가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학교부지로 사용이 되어서 용지도 아마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등기 재산으로 남아있었는데 작금에 와 가지고 그 소유주께서 이거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오랫동안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가하고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그 분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환을 하라는 쪽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괴산군교육청 쪽에서 다시 접촉을 한 결과 일단 매수를 감정가격으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협의가 되어 있어서, 일단 이거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급식소 일부분이 잘려져 나갈 뿐 아니라 학교 본관 가까이까지 부지가 지금 미등기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럼 단재는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단재교육원이 워낙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영재교육센터까지 거기에 다시 신축이 되다 보니까 날로 공직자들이 차량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정원이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바꾸어서 하고도 있지만 잘 가꾸진 그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마침 경계선하고 접해 있는 그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매각을 하면 먼 미래까지도 쓸 수 있고 우선 주차장부지로도 확대해서 쓸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지금 단재 위치로 볼 때 어느 쪽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도관 쪽 뒤편인 것 같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 옆쪽에 낭떠러지가 아닌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그 논을 이번에 영재교육센터 지을 때 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갖다가 성토 좀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야 할 만큼 급한 게 있어서 그러나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아까도 감리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 지금 대가초등학교 냉난방 개선비에 보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게 되면 부연초등학교 경우는 비슷한데 감리비가 안들어가 있고요, 다른데 볼 것도 없이 바로 앞쪽을 보게 되면 서원중학교 같은 데는 냉난방 개선비 훨씬 몇 배 많은데도 감리비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리비가 계상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과거에 공무원들이 감리를 전액 해오다 보니까 자꾸 업무량이 폭주되고 그래서, 올 추경부터 5억 이상만 감리비를 편성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 감리를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5억이 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도 이게 왔다 갔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432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서 연구학교운영지원단 지도수당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서 연구학교운영지원단 지도수당으로 800만원을 계

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연구학교 현장 지도을 위한 연구학교운영지도비를 1,1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먼저 번에.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이렇게 800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했던 그런 이유나 먼저 예산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다시 세운 거죠?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현재 저희들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문직들이 연구학교를 분담해서 일인당 10개 내지 15개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연구사들과 전문성이 관계없는 그런 부분을 지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전문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을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별도로 연구학교를 지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1,100만원은 연구사들이 연구학교 지도할 때 사업성여비로 세워졌던 기존의 예산입니다.

● **간사 서수웅**

요거는 그러니까 연구사님들이 전문성이 모자라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지원단 만드는 경비이다?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학생 상담활동 지원에서 다항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사업비로 12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08년 당초 예산에 이미 얼마입니까? 2,052만원을 이미 편성했는데요. 기초, 보수교육,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52만원으로, 그런데 자원봉사 교육사업비로 또 세운 것은 먼저 번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정항수**

영동 관리과장 정항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청주 북부지역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리 상으로도 영동에서 너무 멀고 교육기간이 한 1주일정도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건상 자원봉사자님께서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학생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다가 3시간씩 한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자 이

렇게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 연수에는 영동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정항수

주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이라든지 먼 지역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상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부분만 한 3시간정도씩 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면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세웠던 예산에서 영동교육청 해당자들에 하는 만큼은 작지만 삭감되든지 절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처음에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할 때 전 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 보면 제천, 단양, 영동 이렇게 먼 지역에서는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면 그쪽 지역도 영동처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 교육국장 김종근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음성교육청 같은 데는 가까이 있지만 특색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연수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준비하신 관계관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소요액 220억 7,280만원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경비인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110억 3,64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전입이 가능한 건지 하는 걸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관계관자들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미 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80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1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 나머지 미 전입액이 한 777억원 정도 됩니다만, 솔밭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1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 차례의 관계자들이 가서 설명도 했고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고 또 지난번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어느 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그 학교를 짓는데 부지매입비를 법으로 보장된 걸 부담 안하는 것은 상당히 위법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의 답변은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일단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밭초등학교 부지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에 앞으로 국회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을 때에, 재원부담을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거는 중앙부서가 6개월 내에 빨리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정해서 결정을 하라는 부칙조항에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재원부담이 누가 부담할 거냐에 따라서 그 법령이 공포되면 그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를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학교를 안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예산편성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돈이 왔을 경우에는 도저히 어떻게 지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준다는 확답은

없지만 일단 중앙 정부로부터 대통령령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일단 안준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집행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할 때에 도와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더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거를 받아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학교를 1년 동안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강력히 전입금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제특별도를 주장하는 지사가 경제문제 공장만 유치해오는 것이 경제특별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의 최종 책임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의 의지가 없다면 굳이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학교 설립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하실 겁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추가질문 계십니까?

● 김부웅 위원

저는 이상일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재원이 거기서 확보가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어야할 그런 필요성은 저희가 접어두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6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각이 나옵니다. 지금 충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충주농고 실습지 보상액이 약 29억 7,000만원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까지 해서 30억 이상 나오는데, 충주농고 실습지 33만 705㎡에 대해서 토지보상액 29억 7,798만 8,000원, 건물매각대 1억 6,322만 5,000원 또 구축물대 뭐 이렇게 해서 약 32억 3,952만 2,000원이 편성이 된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근데 충주농고 실습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금액상으로는 공유재산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업도시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도시계획상 여러 법률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사

항이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한다고 그러면 행정절차상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115쪽 교원신규임용 관리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험을 보는 걸 보니까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이 26개 과목인데 39개 과목으로 13과목 늘어났네요.

과장님, 다음에 시간 나시는 대로 39개 과목의 내용을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교원신규임용시험 관리사업에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009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전용체계 개편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보다 초등에는 7,570만 9,000원, 중등에는 3억 6,856만 5,000원씩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초등이 3,365만원, 중등이 1억 4,793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과목수가 13개 과목 늘어나서 증가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초등의 경우 교원임용시험 전용체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당초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번 추경에 또 같은 사유로 증액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첫째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공동출제분담금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명퇴 등이 또 늘어나고, 퇴직교원이 늘어나고 해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중등이 과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응시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응시시험을 봐보니까 옛날 같으면 대개 예년에 10반 편성하면 시험이 되던 것이 15반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응시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예상을 할 때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늘어났습니다.

● **이상일 위원**

분담금이 증액이 되고 응시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늘어난 경비다 이런 말씀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 거기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서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 사업비로 2,140만원, 187쪽입니다.

186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세부사업내용은 187쪽에 그 밑에 신규사업으

로 용품비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네요, 이 용품비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국감에서부터 예산심의, 결산 그 과정에서 매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우리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서 기본 생활 바로 잡기를 우리 충청북도교육감님 제시하는 교육의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언론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지역교육청별로 또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연수기회마다 홍보를 할 것이고 할 때 쓰이는 용품들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도 캠페인을 같이 하고 또 연수할 때 필요한 홍보매체로써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각종 캠페인에 쓰는 용품이다 이런 말씀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네

● 이상일 위원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국감으로부터 충북이 학생폭력이 어째 그렇게 많으냐, 그런데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꼭 학생들 사이에서만 폭력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사이의 폭력, 또 학부모와 교사와의 사이에서의 폭력 이런 것도 다 크게 학교폭력에 들어가는데, 제가 어젠가 어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 담임교사의 성추행과 집단따돌림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교장과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 부장판사 박철 판사의 판결입니다.

내용은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 집단따돌림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담당교사, 학교장, 학교운영자인 서울시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보면 지사나 교육감이 될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장의 과실은 뭐냐 교사가 성추행을 하고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교장이 바로 잡지 못하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죄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서울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부주의 및 공무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피해학생에게 1억 2,000만원을 배상해 주는데 이중에서 6,000만원은 서울시와 가해교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학교 내에서 폭력, 폭력은 학생간에 폭력,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력,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일어났던 학부모와 교사간에 폭력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캠페인이라도 하시고 교장선생님도 이제 쉬쉬해서는 안될 겁니다. 자꾸 감추고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일어난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고치고 그러는 게 있어야지, 자꾸 동료교사 감싸고 이런 거로 하면 결국 이 책임이 교육감한테 배상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3쪽에 취업약정제운영 과 학실업과 소관이네요.

거기 213쪽 중간에 보면 취업약정제운영에서 산학협력네트워크운영비로 5,26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문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열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어느 교육청이나 다 노력하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다 노력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 아이디어에만 급급해 할 게 아니라 지역 산업의 특성을 살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그래서 산업체와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사회단체간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지역별로 전문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탐색하고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연구용역을 일단 의뢰할 예정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군요.

● 교육국장 김종근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3,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나항의 산업협력 종합발표회 실시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그 내용을 보면 저소

득층 중식비 지원사업 당초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학생 1일 단가가 2,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번에 예일미용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학생들 60명에게는 140일간 중식비 단가가 2,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일미용고라고 하는 학교는 어디서 운영하는 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일미용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교라기보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근데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합니다. 졸업하면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설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텐데 가정형편이 어떤지 개인의 학습문제가 어떤지 간에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니고 그쪽에서 다니면서 미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왜 우리 아이들은 2,200원인데 같은 고등학생들인데 거기 학생들은 2,700원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그 학생들이 자체 급식을 하는데 자체 급식 실비가 부담하는 금액이 2,700원입니다.

우리 학교는 단위가 커서 그런지 또 우리가 고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경비가 작고, 여기는 개인시설에서 설치한 급식비라 학교보다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가 부담하는 실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학생수도 적고 그러니까 자체 급식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2,700원이 책정된 거다 그거죠.

● **교육국장 김종근**

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특별히 거기 애들은 뭐 대접을 잘해 주느라고 500원을 더 비싸게 먹이는 줄 알고, 그 다음에 255쪽 그것도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네요.

256쪽 중간에 보면 복대중학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영전환사업비로 복대중학교에 기존에 2억 4,700만원인가 책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9,357만원을 증액 계상해 놨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복대중학교는 2001년부터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실시하며 2008년 9월부터 직영전환으로다 예정된 학교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조리장의 전실, 세척실, 소모품창고, 탈의실 등 시설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2억 4,0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좌석회전율이 3.8회로 식당공간 확충이 요구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조리장현대화 시설공사 시행 시에 조리장 2층 공간을 추가 증축하여 식당 기준면적을 확보하고, 좌석회전율 2.5회로 하여 쾌적하고도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해서 급식시설을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이걸 조금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2억 더 해서 한 4억 끝냈으면 공사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없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사업진척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본예산과 이번 추경이 도의회 거쳐서 확정되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몇 십 억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당초 예산에 아예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산을 조금 너무 아낀다는 생각으로 잘못해 놓으면 1년도 안가서 또 고쳐야 되고 개축을 해야 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47쪽 이거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입니다. 통폐합학교가 유리분교장하고 가좌분교장이 통폐합이 됐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학교당 통폐합될 경우에 지원기준이 3억원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2개 학교면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준지원액보다 4,664만원이 초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초과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준수로 말하면 3억원씩 지원해 주는 게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의 폐교를 시켜가면서 본교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본교에 많아지고, 또 아울러 부속시설인 시청각실이라든가, 샤워실, 학생화장실 이런 부분이 3억원씩만 가지고는 도저히 손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 4,664만원을 포함해서 환경개선비로 더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개 학교가 동시에 오다 보니까 학생수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손보는데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조금 더 주게 되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결국은 학교에 따라서 3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이군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보다도 본교의 시설이 충분하거나 소규모학교 학생들 몇 명 정도 왔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개의 분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본교 학교에 있는 기본 시설들을 어차피 손을 봐주는데 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소책자 5,000부 발간하는 걸로 500만원 계상됐는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이 2008년 4월 신규구성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금년 4월 달에 신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인지 신규로 선출된 위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입니다.

이 사업은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도내에 약 4,8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이 있고 교원위원은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의 교육만 가지고 심의하기가 부족해서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늘 상시 휴대할 수 있게끔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다보니까 신규로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일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게 1,000원 자리 5,000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고 핸드북 마냥 그 안에 간략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메모되어 있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평생학습축제 중앙도서관 거네요. 중앙도서관에 누구 오셨어요?

안계시면 나중에 물어보죠.

중앙도서관에서 오셨어요?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경석원**

예

● **이상일 위원**

한 가지만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평생학습축제 행사경비를 1,200만원 계상했죠.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도 행사경비가 2,080만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경석원**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게 1,200만원씩 더 경비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경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체험관 운영을 당초에 10개만 하려고 했던 건데 희망하는 기관이 많아 가지고 30동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체험관 임대료가 5만원 곱하기 4일해서 30동해서 600만원이 되고요, 체험재료지원비가 10만원씩 해서 30개 동에 300만원, 그리고 운송비가 있습니다. 운송비를 30만원씩 해 가지고 5대 왕복 2회 해 가지고 300만원 이래 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건데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10% 경비 절감하라는 얘기 있었죠. 그런데 이런데 자꾸 몇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강좌수를 늘리고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게 과연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당초에 6% 성장도 안되고 외국에서 여러 가지 유류값, 곡물값 이런 게 폭등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의 전망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10% 경비절감 아마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알차게 몇 개 강좌나 이런 것만 알차게 운영하는 게, 주민들이야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한다고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유재선**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예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유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유재선입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지금까지는 중앙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지금까지 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평생학습도시가 4개가 있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라고 그래서 10개가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그 기관도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어울려서 평생학습축제를 더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확산시켜 가지고 할 계획이어서 부수도 늘리고 참가하는 인원도 늘고 행사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과 학생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다, 이래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도 아마 본청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8쪽 음성교육청에 누가 오셨어요.

저기 547쪽에 보면 지역공유재산관리 그래서 548쪽에 음성교육청 그래 가지고 중간에 보다 보니까 사유입목매입 그래 가지고 6,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입니다.

사유입목구매 6,540만원 건은 저희들이 관내에 교육감 소유 산이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주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산림법에 보면 위탁림 수입분배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분수림 계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 산주가 산을 조림이나 관리를 못했을 때 제3자에게 조림이나 관리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에 벌채를 했을 경우 벌채수입금을 서로 분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산이 어디냐 하면 바로 꽃동네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경계에 붙어 있는 산이 한 56헥타르(ha)가 됩니다. 그게 '69년도에 교육장님하고 맹동녹지회하고 위탁림 수입분배 계약을 맺었습니다. 30년 계약을 했는데 '99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다시 10년 연장해 갖고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조림자가 그걸 벌채를 하기 위해서 음성군청에 벌채허가를 냈는데 꽃동네에서 벌채를 못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갖고 벌채를 못하게끔 됐기 때문에 벌채를 못하는 대신 거기에 있는 그 사람 소유지분에 대한 나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갖고 저희들 그걸 갖다가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몇 십 년 후에도 꽃동네가 못 팔게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 조성만 해놓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양승근

지금 국가에서는 세계평균 국가보유림이 3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24%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수림 계약을 맺었을 때 전부다 그걸 벌채를 안하고 산림보존 차원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산림이 우거지지 않은 60년대 후반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소유주가 나무를 못 심을 경우에는 국가가 산림청에서 사방공사를 했고,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 민간인 독지가 영농자들로부터 산림을 자기들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남은 땅이라도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몇 년 후에 나무를 목재나 상품가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팔아서 소유주하고 그 산림업을 직접 가꾼 그분하고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도.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음성군 교육장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지금 경제림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매각을 할 단계가 와 있는데 지금 벌목허가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지금 벌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장님이 계약한 산림영농조합이죠 쉽게 말하면 산림을 계획을 하고 수 십 년 동안 가꿔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비어서 팔기로 한 그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이걸 우리보고 다 사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소송을 내서라도 우리가 우리 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일단 어떠한 법에 의해서 산림을 벌채허가가 안났는지는 그쪽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신뢰원칙에 의해서 계약부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6,500만원 정도의 감정은 직접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반 탁상감정으로 한 6,500정도 주면 그 나무를 그분 지분까지 교육감지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마 이분이 지금 복잡하게 이게 계약사항을 보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곧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의 패소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미 소송이 재기되어 있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또 그 나무가 우리 소유로 된다면 다소 경제적으로 돈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번 차제에 임목을 매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일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군수한테 왜 안해 주느냐 하고 따질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걸 강력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군수가 해 주느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결국 군수는 꽃동네라고 하는 표 많이 가진 데서 반대하니까 못 내주는 거고, 우리는 그냥 애초 계약 때는 잘 키웠다가 결국 키워서 못 베게 하면 음성군 전체로는 좋지만 어떤 신뢰관계는 누굴 믿고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참.....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언제간은 경제림으로써 두면 지금 최적기인지 수명이 더 오래된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깊이를 알 수 없지만 좀 더 두면 경제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벌채허가가 어느 시점에 날 것인지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걱정은 됩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5시가 됐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평가에 기정예산 대비 4,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평가위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안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쪽에 보면 방문평가여비가 1,155만원을 새로 계상하였는데 우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된 것은 평가기간을 당초 15일을 예상했다가 평가기간이 길면 처음 받는 유치

원과 나중에 받는 유치원간에 갭이 생겨서 유·불리를 따지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평가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 위해서 10명을 증원한 30명으로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무**

평가여비를 새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방문평가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1억 7,060만원 또 추경에서 8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평가 심사수당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방문평가에 그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무**

그러면 알기 쉽게 방문평가 심사하는데 일인당 1일이 얼마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무**

5만 5,000원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여비는 별도로 또 5만 5,000원을 주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여비는 5만 5,000원이고 수당이 4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무**

그러면 하루에 심사수당이 약 10만원꼴 되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9만 5,000원입니다.

● **위원장 정무**

구분해서 여비 따로 수당 따로 주니까 그렇지 심사하는데 수당이라고 하면 그걸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여비라고 별도로 주고 수당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전에는 그냥 심사수당해서 주고 말았는데 옛날 강의를 해도 강의수당하고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강의수당도 원거리 강의수당, 교통비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심사수당하고 여비를 구분했습니다.

● **위원장 정무**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방문평가 여비는 30명이 7회고 방문평가 심사수당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22회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2회라고 나와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평가대상 유치원이 22개 유치원이라서 여비는 한번 해서 여러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유치원 평가심사수당은 유치원별로 심사수당을 책정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알았습니다.

● 곽정수 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그러면 한 번에 다섯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수당은 다섯 군데를 받고 여비는 하루치를 받고 그런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사업을 너무 세분화하니까 자꾸 수당 따로 여비 따로 하니까 혼동이 되고, 자꾸 똑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돈을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개 대상유치원을 30명이 2회 가는 거하고 20명이 3회 가는 거하고는 숫자적으로 60이 총액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심사위원 10명이 늘었다고 그래서 수당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아서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비를 일정액을 인원이 여럿이면 다 같이 균등.....

● 곽정수 위원

아까 우리 권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심사를 하는데 하고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 하고 날짜의 갭이 많아서, 처음 받은 사람하고 마지막 받은 학교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10명을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를 10명을 늘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3개 학교를 20일 가는 거하고 반대로 2개 학교를 30일 가는 거하고 결국은 연인원은 마찬가지인데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설명과정에 저 스스로도 불명확해 가지고 혼란이 됐는데 인원을 늘인 것은 기간을 짧게 하고 30명이 28개원을 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할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부모만족도 조사해서 5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평가하고서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 3월 7일 2008년도 유아교육 예산관련 시·도 담당자회의 자료에 의거 학부모에 의한 유아교육만족도 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무**

학부모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을 만드는 것 아닌가 꼭 그게 유치원평가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지 아니면 요번 처음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3년 주기로 유치원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 첫 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처음 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 **위원장 정무**

그 다음에 보고서 및 리플릿 제작비가 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체평가보고서 따로 또 평가결과보고서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자체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를 받는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을 한 평가결과서이고, 평가결과보고서는 그 평가위원들이 107개원을 전부 평가를 한 뒤에 피드백자료로 우수자료로 보급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위원장 정무**

자체 평가보고서는 각 유치원에서 하는 거죠, 그럼.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무**

거기도 그러니까 보고서 운영비를 줘야 하는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자체 보고하라고 그러면 다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니냐, 학교로.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런데 유치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립유치원도 이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립유치원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무**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자기 유치원 평가 자체 보고하는데 그런 것까지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잉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지금 이 자체평가보고서는 유치원에서 자체진단을 하는 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 양식을 저희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무

그 양식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죠.

●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무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164쪽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 기준액이 시간당 2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시간당 단가를 3만원으로 해서 공립중학교 2,448만원, 공립고등학교 2,448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요번 추경에 보면 공립중학교가 빠져있습니다. 어째서 빠져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는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가 나와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중학교가 빠졌어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은 3단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그때 추가로 필요한 인력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만 시행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는 자체 내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것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무

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중학교는 추경에.....

● 교육국장 김종근

3단계로 할 때 영어선생님이 두 분인데 3단계로 하게 되면 셋이 필요하다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는 3단계로 하지 않고 그냥 영어선생님이 둘이면 2단계로 하고 셋이면 3단계로 할 때에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189쪽 중등교육과 소관 대안교육 위탁운영에 대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및 보호사업비로

3,975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뭘 줘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학생이 있고 그럴 때 대개 서로 보상을 요구하고 해주게 되는데, 가해학생이 학부모가 전혀 보상능력이 없다 또 어떤 학생은 가해학생이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있어도 전혀 보상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무**

예, 알았습니다.

다음 277쪽 교육정보화과 소관사업입니다.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비로 5,835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중앙총괄센터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2008년 1월에 전국적으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 유지보수비,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8년 2월 12일 공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규모에 따라서 16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무**

그러니까 분담해서 중앙총괄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거죠.

●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무**

알았습니다.

예산안 265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이제 한 달 열흘정도가 남아 훈련기간으로 봐서 경기력 향상에 선수와 지도교사가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상위입상이라는 목표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초등학교 체조장비와 오창중학교 역도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연습장비로 교체한다고 총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왕이면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언제 구입이 해서 날짜는 얼마 안남았는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

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이번 같은 역도장비나 체조장비 같은 것은 고가장비로다 본예산 시에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조경기장 지금 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철봉에서 뛰어서 내릴 때 안전하게 스펀지 가는 건데 그런 것이 1,5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겨울에 동계훈련에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경기종목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종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시설장비가 급작스레 고장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무**

이왕이면 그런 걸 예측해서 미리 좀 이왕 구입하는 거 미리 좀 구입해주지 좀 아쉬운 생각이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도선수가 여학생들이 상당히 기록이 좋고 장래성이 충만이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교실 한 칸을 가지고 역도장비를 전부 다 놓고 보니까 너무 비좁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의가 너무 산만스럽고, 그래서 교실을 반 칸의 지도선생님 방을 떨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장비가 또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기록향상에는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왕 장소를 조금 확장할 바에야 기구도 조금 보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늦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생들 선수기록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무**

대개 저도 옛날에 교장할 때 해 보니까 기록이 좋은 애들은 미리 압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좋은 애들은 지도자들이 관찰을 해서 미리 장비 같은 걸 해줬으면 더 좋은 기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82쪽 시설과 소관에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세명고등학교가 사립학교로는 아주 제가 듣기에는 그 학교재단이 튼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7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증·개축해 준다고 하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 배경 왜 세명고등학교냐 그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기숙사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기숙사가 우선적으로 공립 쪽에 많이 지었고 우선순위가 원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했었는데, 제천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원군하고 통폐합된 시내가 되기 때문에 제원군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기숙사의 필요성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충북에 다른 사립법인보다는 다소 건실한 법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인에서도 대학 쪽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아직은 고등학교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가 몇 년 동안 계속 기숙사문제가 거론 됐을 때마마 투자를 안해 주고 이러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도와주시면 학생들 주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립학교도 다 못해 주고 서로 해 달라고 굉장히들 아우성인데, 우리가 사립학교까지 챙겨서 해 줄 아직 입장이 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전반적으로 기숙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군 소재지에 있는 인문고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에 우선을 해서 학생을 80%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전부 다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곧 거기에 따른 재원이 아마 5월중으로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사립학교는 우선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고요 중앙에서, 공립을 우선으로 하되 지금 당초에는 군 소재지의 학교에서 지금은 도·농 통합 시까지를 확대를 해도 좋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충주하고 제천이 과거에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합치고 제원군하고 제

천시가 합쳤기 때문에 그 제원군이나 중원군 학생들이 시내로 다닐 때에도 혜택을 보도록 지금 그것이 완화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수용 80%라는 게 시내 학생들 빼버리면 80%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감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규모도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1개교에 한 100억 정도로 소요 예산으로 하던 것이 한 50억 정도로 지금 적게 주되 학교 수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 가는 상황이라,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군 소재지에 있는 기숙사를 학교의 기숙사를 짓는데 사립 쪽보다는 공립 쪽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립학교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기 때문에 다소 세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먼저 시행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 볼까요?

● **위원장 정무**

예, 말씀하세요.

● **김부웅 위원**

뭐 세명고 뿐만 아니고 예산안 전체를 보면 청석고에도 지붕보수 작업에 4,250만원, 충북여고에도 외부환경에 옹벽정도입니다. 옹벽 이게 5,068만원, 중원고등학교 조리실 증축에 1억 7,565만원, 형석고등학교에 지붕방수 또 흠통교환 이런 것 정도에 3억 7,050만원,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립재단에서 다 여기서 해줄 것으로 전혀 손을 안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방수정도 옹벽정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마침 얘기가 나와서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 짚어봤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설립 주체로 본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는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하고 공립학교는 도민의 세금가지고 해야 원칙인데, 지금 입학방법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교육감이 일방 배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필 때 학생 입장에서 행정을 피다보니까 설립취지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로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명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부분은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빨리 가야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좀 심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 운호학원하고 청석학원하고 대원고등학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가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 얘기는 설립주체 간에 사학은 사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전혀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공립학교로 투자될 돈이 사학으로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좀더 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아마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액이 다 깎였는데, 그 청석고등학교의 방수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실인데 그런 경우 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피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또 사립학교가 앞으로도 교육감님 방침이 다른 시설 무엇보다도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업부분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아이들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학습용구를 해주는 거라면 저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옹벽공사를 한다, 지붕누수 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주인이 해야 될 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일보다는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곽정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볼께요.

지금 하드웨어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예산이 가도 좋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재단에서 해결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이게 교육감한테 귀속되는 거냐 아니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교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드분야는 전부 다 법인에서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법인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법정부

담금도 10%, 20% 겨우 부담하는 처지에 시설까지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결국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방치가 된다면 결국에 학생들이 손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전반적으로 신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목적실을 지어 준다든가 개축을 해 줄 경우에 소유권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이게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전부 다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BTL사업과 같이 한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채무자로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 소유권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학의 BTL사업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법을 정리한 다음에 시행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 제가 별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 쪽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부분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이쪽에서 보조금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감이 준다 해서 그거를 교육감 소유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법 개정까지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감사원 쪽에서는 그거를 어떤 판단기준을 한번 검토한 후에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제가 한 2주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중단된 BTL사업도 어떻게 할는지를 조만간 저희들이 지침을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교육감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곽정수 위원**

2006학년도의 사립학교 BTL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영동에 심천중학교에 하다가 그때 중단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계약단계까지 갔었어요, 설계까지만 갔어요,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네 군데가 사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BTL사업 당초에 그러다가 중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육부 쪽에서 사학에 대해서는 일시 중단하라 그래 가지고 그때 대성고등학교 다목적실, 청석고등학교 다목적실,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개축문제 그 다음에 심천중학교 그렇

게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진행상태가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줘서 해도 좋다 도의회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해도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에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설계까지는 마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하고 청석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심천중학교하고 이렇게 교육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영동 인터넷고등학교는 본관교사이기 때문에 '5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거기서 재해위험 시설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고등학교 본관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아예 우리가 전면 개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금년에 영동 인터넷고등학교는 본관은 전면 개축을 지금 예산액을 상정해 놨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요거는 2007년도 말에 재해대책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에 일부 현장 점검도 했고 해서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본관은 교육부에서 개축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무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54쪽 학생회관 소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글사랑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 이전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으로선 아쉬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 제가 초등교육과에 있을 때에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잠을 못 자 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현재 한글사랑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장소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연결하면 더 활용도 가치가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재구성하실 때에 기존 전시쇼케이스 같은 걸 잘 재활용해서 현재의 구성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장님, 아까 118쪽에 있는 유치원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무

예

● 교육국장 김종근

우선 아까 숫자상에 혼돈이 있어서 금년도 유치원 평가대상은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해서 107개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20명 평가위원을 30명으로 증원을 해서 짧은 시일 내에 평가를 하고자 하고 30명의 구성은 전문대학교수, 퇴직교원, 전문직, 공·사립원장 이렇게 해서 30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 방문평가 여비에 7회로 나와 있는 것은 청주, 청원, 진천, 괴산은 여기 청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기타 지역만 계상했기 때문에 7개 지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에 22회가 나오는 것은 사전평가심사를 하고 그 다음 현장방문평가를 11회하고 11회, 11회 해서 22회를 잡아 가지고 심사수당은 4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치원홍보리플릿이 지금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본래는 그걸 하지 않고 가서 현장만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교과부의 지침이 이런 것을 만들라고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만족도 조사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위탁해서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은 더 재론 안하는데 산남고등학교에 보니까 교직원 화장실 증축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BTL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를 지었을 때는, 역시 그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 교육감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정을 투자하는 문제가 생겨서 1기관 내에 2개의 관리자가 생겼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직원 화장실 증축이 거기 7,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거기 여학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를 공모해서 검토하거나 또는 BTL사업자와 계약할 당시에 이게

지은 지 1년 조금 넘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짓겠다라고 우리 교육감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 그럼 이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맡길 때에는 우리 교육감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시설담당자가 이건 해태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교직원 화장실을 배치하면서 남녀교사를 구분해서 배치는 했는데,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다 보니까 남자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동거리가 멉니다. 조금 설계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전체가 여학교인데 남직원 화장실이 몇 개 있었어요?.

● **시설과장 안세열**

지금 어느 학교든지 교직원 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있는데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용기가 불편하다 이런 점 때문에 3층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 남직원 화장실 한 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앞으로 이런 BTL사업이든 신설할 때 화장실을 상당히 불편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길 바라고요.

● **시설과장 안세열**

유념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 다음에 사택문제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몇 몇 분하고 긴밀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세명고 기숙사 문제도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에 보면 공동숙소를 지금 수산면에다가 짓고 제천시 지역에 지어서 교원들의 애로를 많이 해결하려고 애쓴 그런 거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봉양중학교 기숙사 문제는 거기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짓는 쪽으로 해서 절감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재난 뭐로다가 해서 국고에서 목적비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위협을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돈이 나왔다고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염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중학교에 보니까 캐노피가 300㎡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3m 폭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m 길이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그러

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설물이 되어서 안전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또 그 위치의 적정성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캐노피 300㎡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남중학교의 경우에 본관교사하고 별관교사동이 상당히 멉니다. 본관이 남향으로 있고 별관은 지금 서편에 산밑에 있는 거기에 별관의 급식소가 있습니다. 특별교실하고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본관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곽정수 위원

사실은 판이 길어서 바람이나 이런 거 등등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교인가 보니까 잔디구장이 1억 5,000인가를 계상이 되어 있는 데를 언뜻 봤는데요, 1억 5,000 가지고 잔디구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돈을 투입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마 예성여고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성여고에 본래 인도어잔디를 하려면 저희들이 6억 내지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청에서 일부 그걸 부담하고 또 충주시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충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부담할 금액만 저희들이 통보된 것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충주 예성여고가 충주시에서 전국대통령배축구대회가 올 아마 전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충주시나 충청북도축구협회 쪽에서는 그거를 빨리 시공을 해 달라 그래서 5월말까지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일부는 와 있고 일부는 안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온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못처럼 전국대통령배축구대회를 하는데 지금 적극 협조를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외상공사라도 해서 하여튼 대회에 맞추어서 성립전 예산이라도 활용한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어차피 하는 거면 조금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해서 지역사회에 저희들도 기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내용은 청안중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괴산교육청에서 누가 오신 분 있으면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안중학교 제가 현황요구를 할 때 작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했던 예산의 총액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8억 6,000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8억 6,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안중학교의 학생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작년도에 많을 때 21명 작년 12월 15일날 18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8억 6,000이 이게 18명하는데 써서 일인당 표준교육비가 얼마나 들었나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운반 이동급식비가 얼마가 들었나 하고 보니까 240만원을 학생수로 나누어 보니까 수업일수 210일 잡고 20명이 운반급식으로 따져보니까 단가가 운반비만 570원이 들었고, 금년도의 예산이 7억 3,000이 들어가는데 금년도는 학생이 얼마인가 했더니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을 7억 3,000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표준교육비가 5,650만원 일인당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운반급식비도 240만원을 13명이 210일 잡고 해봤더니 운반비만 880원의 단가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상황을 보니까 2008년도 3월 1일날 1학년이 4명이 들어와서 3월 4일날 신입생이 4명이었는데 3월 5일날 2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1학년이 2명이 남아서 과연 이렇게 해도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건지 배정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될 일이 아니냐, 지금 학생 숫자가 입학식만 끝나고 3월 5일날 2명이 하나는 대서중학교로 하나는 증평중학교로 전학을 가서 1학년 현재 2명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배정인원이 작다보니까 2명을 꿔왔다는 얘기를 누가 해서 또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청안중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며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농촌학교에 대한 실상이 대부분 청안중학교 같은 학교들이 사실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사학부분들이 과거 50년대 60년대에 국가가 돈이 없을 때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사학들이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보다 교직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학생수 13명에 교직원수 1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한 학생을 가리키는 꼴이 되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기 그지없고, 저희들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사립학교를 포기하고 공립학교 넘기거나 또 아니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자 측에서는 전혀 정비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의무교육은 한 명이 있더라도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앞으로도 계속 설립자 측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어떻게 앞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2008년도에 우리가 수용계획을 통보하면서 학급배정을 통보하면서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줄어서 한 학년에 그러니까 신입생이 3명 이하로 들어올 경우에는 학급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예정통보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한 명이라는 학생이 거기에 다니겠다고 학부모형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로서 강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는 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배정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움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50명 이하의 학교들은 전부 통폐합하라고 하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통폐합도 쉽지를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회의를 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른

시·도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해결방안을 중앙하고 공조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언제까지 의무교육이라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참 저도 이런 소규모학교를 가슴 아퍼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연중학교를 갔을 때도 거기도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연중학교는 우리 공립이기 때문에 장연초·중교 통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안만은 지금 문제가 하나는 사학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공립으로 하다보니까 초·중교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여기 문제는 청안중학교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청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뭐냐 하면 청안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5학년 되면 증평으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다 저쪽으로 가길 원하고, 그래서 청안중학교 쪽에서 무슨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봉급 받아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더 나쁘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여튼 내 배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이 사실은 일인당 표준교육비가 5,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유학비용입니다. 과연 국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한번 1회성으로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되어야 될 걸로 믿고, 좀 한 명이 남아도 의무교육인데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내년도에는 이 학생이 배정기준에 미달한다면 과감히 배정중지를 해서 거기서도 뭔가 자구책을 찾고 또 노력을 해서 하는 흔적이 있게 그래서 무슨 사기치는 것 마냥 입학식 끝나고 두 명 없어지고 이거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깊이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되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오전에 저한테 주어 진시간 때문에 사실은 30여가지 질문을 못했는데 후에 하신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을 보시면 보건관리사업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8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질의에서 또 어떤 다른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화장실청소를 전혀 맡기지 않고 용역만 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화장실청소를 시켰다고 해서 그 자모가 와서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절절 매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를 화장실 청소하러 학교를 보내는 줄 아느냐 그리고 따지는데 대항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불러다가 자모님 선생님한테 절을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당신 아들을 화장실청소를 시켜봤기 때문에, 걔는 여기서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거동 불편했을 때 학교에서라도 어려운 그런 걸 해본 아이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건데 하고 치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것도 안해본 아이는 코 쥐고 내뺍니다. 아이고 엄마 실수한 것 치워달라고, 어떤 게 진정한 교육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자모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화장실청소가 전부 외부용역으로 맡겨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교육상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 18억 2,000만원 꼭 고집을 해야 할지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평체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것은 2007년도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엔 2007년도에는 국고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비 대응투자 5 대 5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8학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을 증액시켜놨다 해놓고선 전액 지방비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예산을 18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치 논리적으로 따질 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공간도 청소를 안하고 성장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치에는 맞는 않으나 또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추경안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200%정도의 증액을 시켰길래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교육상 아이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을 경험시키지 않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거 용역주어 가지고선 외부인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 1,2회 정도만 와서 하고 평소에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일선에 가보시면 아이들 화장실 청소 이제 안합니다. 외부에서 나와서 해주니까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다 와서 해줘요. 언뜻 생각하면 편한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조차도 안준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일전에 각리중학교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분노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참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교원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전부 설립목적이 사실은 교권수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일단락 되어 가는 정도로 아마 제가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사태는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일단락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도 또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교원단체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정말 이런 일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 보내는 것까지도 막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행정당국에서 하긴 썩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락 되는 게 조용하고 좋긴 좋겠죠.

그러나 교권을 수호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묻어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교원단체에 계속 예산 지원해 가면서도 그냥 놔둬도 괜찮으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인데요.

우리 관계관님들 하루종일 시달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무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중등교육과인데요.

학력신장 우수학교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지원하죠.

근데 같은 학교에 학습동아리한테 400, 300 지원하죠.

그거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더 주고 싶어서 배부되는 겁니까?

요번 추경에 동아리지원비가 들어갔던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학교에 지원하고 학습동아리를 또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학습체제가 자꾸 동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고 특히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호협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본예산 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요번 추경 거는 동아리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동아리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 간사 서수웅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 김부웅 위원

얼른 봐서는 중복이 되어 있어요.

●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학력우수학교에 800, 600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교육국장 김종근

그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아리가 전교생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요.

●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심화학습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경비로 다가 쓰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아이들이 어느 동아리엔가 다 속하지 않나요?

●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심화학습동아리는.....

● 간사 서수웅

심화학습동아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공부 잘하는 얘들 집단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양극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식으로 한다면 못하는 얘들 도와줘야지 불쌍한 얘들

●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근데 못하는 학생은 또 그 학생들도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아니 아까 못하는 학교에 준다고 그럴 때 못하는 학교에 주어서 격려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면 동아리들 잘하는 얘들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거 잘하는 얘들 못하는 얘들 나눠준다는 이런 게 없고 잘하는 얘들만 자꾸 준다면, 요번 처음 생긴 겁니까?

●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종근

동아리 요거는 처음 생긴 것이고요.

지금 못하는 학생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예산에서 부진학생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방과후학교에서 제도 운영하고 또 바우처제도 운영하고 여러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요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까?

동아리에 주는 돈은 어떻게 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중등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그룹 중에 아주 저소득층 학생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 지원도 하고.....

● 김부웅 위원

그게 다른데요.

우수, 장려 이런 등급이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종근

그 동아리 자체 학습활동을 할 때 교재 보급도 하고 이런 동아리 자체에도 평가

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 곽정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언뜻 그렇다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우수학교 또 최우수, 우수, 무슨 미흡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수학교에 예를 들어서 400, 300, 200 이렇게 간다면 그럼 우수학교동아리는 400, 그러면 결국은 우수한 학교는 학교 동아리도 400, 학교에 주는 것도 400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종근

학교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아리 평가를 따로 하니까요.

● 간사 서수웅

동아리 평가를 따로 한다.

● 김부웅 위원

예산서에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 간사 서수웅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점수가 이렇게 나올 테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수 동아리만 한다고 그러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선별과정이.

● 교육국장 김종근

선발과정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아니 그래서 요번 추경에 생겼길래, 보면서 혹시 중복된 건데 분명히 중복된 예감이 드는데 아예 800 줄 걸 이렇게 400 나누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서클로 준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게 거의 같은 학교로 중복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 교육국장 김종근

같은 학교를 전제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평가를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평가를 하자 그런 기본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동아리가 학교마다 1개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김종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런 계획을 반영을 해서 우리 학교는 우수반 동아리도 하고 부진아반 동아리도 하자 논술반 동아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평가잣대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요.

● 교육국장 김종근

참여율이나.....

● 간사 서수웅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은 학교에서

동아리가 2개, 3개 있을 수 있고 또 학교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학교에 동아리를 선정해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왜냐면 그 학교에 준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습동아리가 가장 우수동아리다라고 천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 주면 되지만 얼핏 생각하니까 영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평가척도를 잘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꼭 하셔야 돼요. 예감이 더 연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종근**

연구해서 평가척도를 만들어야죠.

● **간사 서수웅**

다음 예산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심화학습동아리는 아직 국장님도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구를 하신 다음에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9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서수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내역입

니다.

예산안 141쪽 방과후학교운영 진천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인건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61쪽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교원단체 지원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92쪽 중등학교 학교평가 미흡교 지원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5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 만들기 18억 2,000만원 중 9억 1,000만원 삭감, 예산안 266쪽 평생교육 시범학교운영 영화상영참여학교지원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01쪽 본청 시설 1급 관사 매입비 5억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 증·개축 제천교육청 수산면지역 공동사택비 2억 8,694만원 중 감리비 430만원 삭감, 예산안 383쪽 학교시설 증·개축 영동교육청 공동사택비 4억 7,624만원 중 감리비 660만원 삭감, 예산안 396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보은 삼산초 역사사료관 설치비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02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단양 대가초 냉난방개선비 7,975만원 중 감리비 190만원 삭감, 예산안 410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보은중 냉난방개선비 2억 3,177만원 중 감리비 1,600만원 삭감, 예산안 413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추풍령중학교 급식시설개선비 2억 3,300만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 총 18억 5,18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세출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수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사업비를 18억 5,18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조 4,886억 3,846만 1,000원으로 하고,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16억 5,812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　　감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정무, 간사 서수웅,

위　원 곽정수, 김부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 구명회,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별첨 2)

※ 별 책 부 록

► 200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별책 1)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8. 5. .

위 원 장 정 무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8. 4. 17. (목) 10:00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同意)의 건 5.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2)

의안번호	제 215-5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4월 일 (제 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15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의안 번호	215-5

제출연월일 : 2008. 4. 1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00억 2,478만 8천원에서 1,186억 1,367만 3천원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95억 4,373만원, 자체수입 47억 150만원, 차입 △16억 5,812만 4천원, 기타 560억 2,656만 7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13억 8,437만 5천원, 평생·직업교육 9억 2,103만 8천원, 교육일반 263억 826만원 계상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